

जय हो 03

January 2018 Vol. 3

Current view opinion
Hindi-Urdu: Yet again

Issue and Analysis
인도 축제

Language & Culture
신의나라인도: 신이되고 싶은 남자

Story of Advertisement
광고로 보는 축제

Travel & Culture
남인도 Chennai

My Experience
내가 경험한 인도 축제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언어문화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언어문화연구소

Institute of Indian Languages & Culture Studies contents

1	연구소 활동	2
2	시론	
	Hindi-Urdu: Yet again	8
3	기획특집 <인도 축제>	
	인도 축제 음식	신상림 17
	꾸모르폴리: 두르가의 재현	김민영 24
	인도 힌두교의 삼신에 대하여	상연진 30
	Prominent religions of India and their festival believes - Indian Festivals	Dhiraj 35
4	언어 & 문화연구	
	신의 나라 인도: 신이 되고 싶은 남자	47
5	광고 이야기	
	광고로 보는 축제	53
6	여행기	
	남인도 Chennai	김영진 58
	인도와의 첫 만남	배상원 62
	기차로 떠나는 여행	이정석 66
7	내가 경험한 인도 축제	69
8	Taza Khabar	76
9	알림마당	114

웹 진 / JAI HO
 발행일 / 2018년 1월 31일
 발행인 / 고흥근
 편집인 / 손연우
 발행처 /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언어문화연구소
 주 소 / 46234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글로벌센터 A407
 전 화 / 051-509-6727
 팩 스 / 051-509-6855
 이메일 / iilcs@bufs.ac.kr
 홈페이지
<http://bufs.icts21.com/india/>
 디자인 / 성주연
 인쇄 / 동해문화사

ISSN 2586-1115
 비매품

01 연구소 활동



초청강연

2017 년 9 월 26 일(화) 오전 11 시에 D308 호에서 호주 La Trobe 대학의 Dr. Ian Woolford 교수님을 모시고 제 3 회 초청특강을 진행했습니다. Ian Woolford 교수님께서 'Hindi as a World Language'를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국외에서 힌디어에 대한 인식과 인도 내에서 힌디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미국인으로 힌디어를 전공하고 힌디어 문학에 심취하신 교수님의 특강으로 힌디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셨으며 언어 학습의 효율적인 방법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이번 특강을 통해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외국인으로써 힌디어를 공부하신 교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힌디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언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특강에 참석해주신 인도학부 교수님들과 재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an Woolford 교수님의 강연



단체사진

콜로키움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에 부산외대 인도학부 문주연 교수님을 모시고 제3차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인도 중산층, 그들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문주연 교수님께서 중산층 계급의 탄생 계기, 중산층 계급의 분류 기준, 중산층 계급과 신중산층 계급의 비교, 그들의 주거형태 및 여가생활, 교육에 대한 투자, 신중산층의 소비성향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1991년 이후 경제자유화정책으로 인해 인도가 세계화되면서 90년대에 서구식 교육을 받은 도시 전문 종사자가 생겨나고, 그들의 소비성향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소비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신중산층의 소비지출 증가와 사치품 소비에 대한 욕구, 유행에 민감한 성향에 대해 사료를 통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인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준비해있는 명품관과 대형 쇼핑몰이 인도 젊은층의 소비문화를 대변해주고 있음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산층이 대두되면서 인도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앞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주연 교수님 발표



단체사진

월례학생세미나

2017학년도 2학기에 시행된 월례학생세미나는 재학생이 참여하여 인도의 언어 및 문화, 정치, 사회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한 정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심화학습 및 토론을 통한 인도 지역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소와 재학생 간의 유대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월에는 “인도 대통령 람나트 코빈드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최신 인도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재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는데 성공한 첫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10월에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을 주제로 글로벌시대의 라이벌인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갈등을 중심으로 인도와 중국의 관계 및 인중전쟁, 최근의 국경분쟁에 대한 원인 및 과정, 양국의 정치적인 목적 등 다방면에서 시사점을 모색하였습니다. 11월에는 “까마수뜨라: 소개”, 12월에는 “카스트제도와 불가촉민”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주제 선정과 심층적인 토론, 여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재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고, 홍보 효과로 인해 타과생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되었습니다.



9 월 세미나



10 월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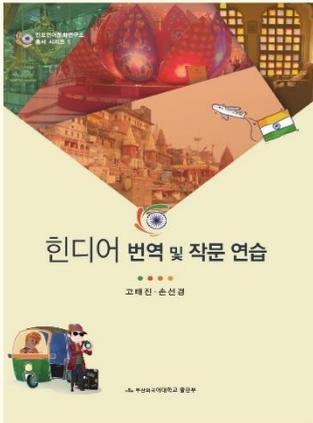
11 월 세미나



12 월 세미나

총서시리즈

본 연구소에서 출판한 총서시리즈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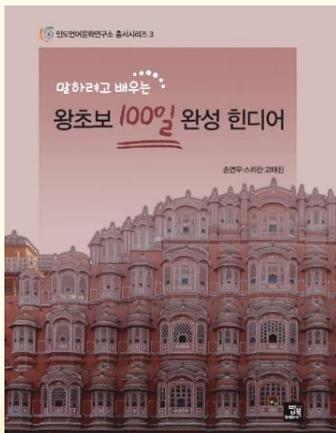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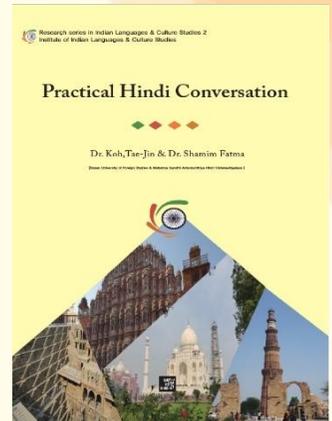


총서시리즈 1

초급 수준의 힌디어 문법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문법을 활용하여 작문 및 번역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힌디어 작문 및 번역 연습』을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힌디어로 작문하고, 힌디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문법을 활용한 단문과 중문, 회화, 구문 패턴 그리고 장문의 에세이를 작문 및 번역하는 연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총서시리즈 2

공동연구 교육과정 개발의 일환으로 인도의 마하뜨마 간디 국제 힌디 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교재입니다.



총서시리즈 3

『말하려고 배우는 왕초보 100일 완성 힌디어』는 힌디어를 접해보지 못한 기초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로 기본표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힌디어의 자음과 모음, 기본 문법을 간단하게 제시하였고, 힌디어 표현의 한국어 해석과 함께 어휘와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기초 학습자들이 꾸준히 학습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용한 표현을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연구 교육콘텐츠 개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국제 힌디 대학교(Mahatma Gandhi International Hindi University)와 연구소 간의 MOU 체결의 일환으로 공동연구 교육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교육콘텐츠는 총서시리즈 2를 바탕으로 인도 현지에서 제작된 영상 콘텐츠이며, 영상물을 통해 인도사회와 문화를 엿 볼 수 있고 힌디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어 쉽게 따라하며 학습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BU FS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महात्मा गांधी अंतरराष्ट्रीय हिंदी विश्वविद्यालय, वर्धा
Mahatma Gandhi Antarrashtriya Hindi VishwaVidyalaya,Wardha
(A Central University established by an Act of Parliament in 1997)

CORE
| 대학언어문화연구소사업 |

Practical Hindi Conversation

Lesson-26

शाँपिंग मॉल

Practical Hindi Conversation
Dr. K. K. Varma & Dr. D. Shrinani Prasad

Institute of Indian Languages & Culture Studies

महात्मा गांधी अंतरराष्ट्रीय हिंदी विश्वविद्यालय, वर्धा
Mahatma Gandhi Antarrashtriya Hindi VishwaVidyalaya,Wardha
(A Central University established by an Act of Parliament in 1997)

BU FS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हाँ, इसे म्हब्बत की निशानी भी कहते हैं।

02 시론 Current View Opinion



Hindi-Urdu: Yet Again

Dr. Sheetanshu Kuma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ndi
Assam University

Dr. Ramvilas Sharma has analysed the ongoing Hindi-Urdu debate in an in-depth manner. Two of his books, which are of great significance in this context are- *Bhasha Aur Samaj* and *Bhartendu Yug Aur Hindi Bhasha ki Vikas Parampara*. These books help to unveil the extent of frivolity and superficiality which largely dominate the debate. The gist of these books is that Persian heavy Urdu was not a product of the arrival of Mughals in India or their assimilation with the Hindus her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British colonizers and the earlier rulers in India is that the latter became a part of the nationality here. This is the reason why in the earlier times, there is no perceptible difference between Hindi and Urdu. One would come across several Muslim poets who have written extensively in various Indian languages and have also written poetry in the various *Janpadiya* dialects of Hindi Belt¹. Even until the eighteenth century one can see that poets in Delhi referred to their language as Hindi. The existence of Dakani dialect is proof of the fact that a composite form of Hindi-Urdu was prevalent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tarted unfolding only in the eighteenth century.

¹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Janapadas* of what we call Hindi Belt today, helped in the evolution of Hindi as a common identity for this whole area. And this Hindi bore cultural/linguistic influences from each of them.

Although Persian remained dominant over six hundred years, the overarching influence of Persian in Urdu or what can be called as Persianisation of Urdu began only after th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Matruqat*. This essentially means that the language which we call Hindi bears several *Janpadiya* influences. However the spread of Urdu took to a different direction when the language developed amidst the narrow confines of feudalism which chose to dissociate itself from its *Janapadiya* influences and take on the influence of Persian instead. A direct result of this was seen in the efforts made by poets to use words, expressions and styles that were alienated from India's culture, tradition of Hindi and the *Janapadiya* dialects of Hindi belt, and were influenced more by Persian. We see the same process taking place a few decades later with the increasing influence of Sanskrit in Hindi, although this occurred to a relatively lesser extent than in Urdu. Thus a distinction between Hindi and Urdu had already come into existence by the time the British arrived on India's political scene. The British exploited the available opportunity and shrewdly gave this distinction a communal colour- a colour that taints India till date.

Dr. Ramvilas Sharma leaves no scope for dissent to his argument arrived through a systematic scheme of logic. However, one would find it difficult to agree with his assertion about the linguistic landscape in the first two decades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role of the British colonial rulers' language policy during this period. In this article, I will be examining critically the finer points of a couple of his arguments about the nature of colonial rule and its relation with oriental knowledge in the beginning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re is, of course, no doubt to the fact that in the divide and rule policy of the colonial rulers and in their continuous attempts to widen the Hindu-Muslim divide in the nineteenth century, language policy too was an essential part of this colonial strategy. However, Dr. Ramvilas Sharma, by attempting to locate the seeds of this colonial policy and mindset in Gilchrist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Fort William College in 1800, not only becomes logically inconsistent but also misleadingly arrives at certain illogical conclusions. A number of thinkers and critics later on too ended up focusing rather uncritically on the 'role of colonialism'.

In reality, the nature of colonial rule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eigh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was markedly different from that during the mid-nineteenth century and it would be flawed to look at the entire period as a seamless one. An understanding of this period would be incomplete without keeping in mind the influences that were a product of mercantile capitalism or were related with feudalism. Dr. Ramvilas Sharma too placed a keen focus upon the dialectics between force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while addressing economic and social issues of the time. However, when it came to the question of language in 1800, he fails to employ the same logical method as while writing in other areas.

In my understanding, he was extremely eager to unravel the role of colonial policy in dividing the Hindi nationality and it was this overwhelming eagerness which prompted him to locate the colonial rulers' policy on language in 1800 itself. Undoubtedly, colonial rule dealt a severe blow to the Indian civilization and culture by rendering flawed and one-sided interpretations of Indian texts and dubbing the Indian civilization as backward. I also believe that Dr. Ramvilas Sharma's critical insights have performed the invaluable task of rescuing Indian history from these gross misinterpretations and restoring it to its rightful place. However, in the course of his critical analysis, he inadvertently ends up painting Fort William College, Gilchrist, William Price and Tarini Charan Mitra with the same brush. While some of Dr. Ramvilas Sharma's explanations are quite appropriate, there are still others which miss the mark. I will be examining a couple of his explanations here in order to illustrate my argument.

In his fervor to prove Fort William College as an obstacle in the creation of a Hindi nationality in India, Dr. Ramvilas Sharma fails to see that it was the colonial rulers who were relentlessly pushing Fort William College towards a miserable financial plight. If as he asserts, the strategy of dividing the Indian nationality on the basis of language was already a predominant part of British colonial policy by 1800, and Fort William College was the machinery employed to fortify the Hindi-Urdu divide, then logically, the British should have spared no effort in expanding this machinery. Rather contrarily,

however, the British East India Company's Court of Directors did everything possible to bring Fort William College to a state of utter financial ruin.² Contrary to the aims of Wellesley who put in all his stakes in saving Fort William, the Company was content with a small seminary and had no plans for a grand establishment either in 1800 or in the forthcoming two decades. Dr. Ramvilas Sharma also ignores the fact that Gilchrist, who he places at the centre of the Company's divide and rule strategy, had already put forward his opinions on language related matters before assuming a teaching position in Fort William College. Therefore Gilchrist's opinions and theses on language were his own and not that of any institution. After all, this was the very Gilchrist who was perceived as Wellesley's sycophant and viewed with distrust by the Company's Court of Directors. It was due to this distrust that Gilchrist also found it difficult to get a teaching job in London's Hileybury College. Dr. Ramvilas Sharma should have paid keener attention to the fact that if as per his assertion Fort William College had been develop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British Empire's larger imperial strategy of creating a Hindi-Urdu divide, then why was it that Persian occupied prime importance in Fort William and served as official language until 1837? Persian too should have been relegated to the margins much earlier.

However, rather than addressing these questions, in his book titled, '*Bhartendu Yug aur Hindi Bhasha ki Vikas Parampara*', Dr. Ramvilas Sharma chooses instead to highlight and criticize the supposedly negative role played by Fort William College in dividing the Indian nationality. It seems to have been easy for him to have employed a rather simplistic notion of colonial policy to aid his argument as the tell-tale signs of divide and rule emerge more clearly after a few years anyway. He writes, "The miracle of creating two separate streams of Hindi-Urdu under British colonial policy was carried out with the able support of Lallooji Hindu and Mazhar Ali Mussalman, who employed different

² Sheetanshu kumar, Fort William College Aur Hindi Bhasha, M.Phil Dissertation,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2009, See Chapter 2 for details.

pretexts.”³

Fort William College did play an active role in further cementing the Hindi-Urdu divide by formalizing Hindi in a Classical form, stripping it of its ease and flexibility and making the language rigid. However, one needs to make a distinction on whether the motivation for doing so was a product of colonial policy or the logical inconsistencies and weaknesses of the scholars who were writing on the issue. Wasn't the time period under current discussion one greatly influenced by faith and identity? Wasn't this a time marked by a consciousness and declarations of religious and racial superiority? If so, then shouldn't we first focus on these influences rather than on those factors whose influence on language emerge only a few years later? If Dr. Ramvilas Sharma holds the opinion that there was already an existing Hindi-Urdu divide, then is it not possible that the factors that predominantly influenced the British mind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Fort William College may have been those other than that stemming directly from imperial concerns? It would be rather reckless and hence unwise to undermine the dominant influences which were a product of British Orientalism and were prevalent in a period of transition; and choose instead to focus on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policy only after 1820. In fact, ironically, the Orientalist-Anglicist controversy deliberated upon by Dr. Ramvilas Sharma in his book too was absent in 1800 and hence use of this controversy as evidence of a divide and rule colonial language policy seems entirely misplaced.

It has become rather commonplace to see the Hindi-Urdu debate in two distinct ways – either that the two are separate languages, or that the British created a divide between the two. Similarly, in the context of Fort William College, it is easily and commonly assumed that since the college was controlled by the East India Company, the latter's policy of 'divide and rule' was held up and propagated by the College as well, creating the resultant divide in Hindi-Urdu. However, this

³ Ramvilas Sharma, *Bhartendu Yug aur Hindi Bhasha ki Vikas Parampara*, Rajkamal Prakashan, New Delhi, 1975, p. 294

assumption is extremely misleading and spurious. In fact, it is in Gilchrist's thesis on language policy that we find pointers that reveal the reasons for a comprehensive acceptance for the Hindi-Urdu divide.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se pointers, which are missing in Dr. Ramvilas Sharma's discussion.

Gilchrist, first and foremost, aimed to create a standardized language for Indians based on certain civilizational norms. As was the prevalent norm and thinking in Britain the Queen's English was considered to be the epitome of the English language. Gilchrist was afflicted with this mindset when he went about standardizing Khari Boli for India. The result was a language that was heavily laced with Persian and bore barely any traces from the *Janapadiya* Dialects. He rechristened this language as Hindustani. All other dialects of the Hindi Belt which did not meet the standardized Hindustani were put into the bracket of Hindvi. Thus, Gilchrist gave Hindustani an identity, name and recognition and also believed that in the future with growing religious difference and discord, Hindus would favour Hindi while Muslims would prefer Hindustani (Persianised).⁴

Gilchrist's point of departure was his belief in the racial difference and superiority of the British, a belief in Christianity cloaked in the irrational religious environment of that time along with the Orientalist viewpoint regarding Sanskrit and Persian. The orientalists had forged a complex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knowledge. How can we bypass the impact of this complex relation created by the orientalists in assessing the Hindi-Urdu divide and instead attribute all of it to the colonial policy of divide and rule which emerged much later? Long before the colonial policy of divide and rule, the British Orientalists' understanding was that of relation between Sanskrit and the Hindu tradition and similarly between Islam and the Farsi-Arabic tradition. How can we assume that this would have had no impact on the languages of the Hindi Belt. If Gilchrist was influenced more by religion in creating the distinction between Hindi and Hindustani, it was clearly a consequence of the Orientalist tradition

⁴ See, Sadikur Raham kidwai, *Gilchrist and the language of Hindustan*, Rachna Publishers, New Delhi, pg.90

and understanding of knowledge and language rather than colonial policy of divide and rule.

Additionally, the British were also drawn closer to the Persianised Hindustani as this was the language that prevailed in the courts and administration of the time. After all Dr. Ramvilas Sharma too has established that Urdu acquired a heavy Persian influence in the rigid feudal elite circles. Gilchrist too was attracted to the Persianised Hindustani as this was the language that was administratively useful and very popular amongst the elite and hence was seen as respectable. The notion of superiority which dominated Gilchrist's thought process led him to increase Persianisation in his attempt to groom the officers of the Company and give them a mark of distinction over the ordinary Indians.⁵ He carried this feeling of superiority to the extent of an excessive focus on diction and use of Persian and Roman script.⁶ Gilchrist's training too had a role to play in his rejection of the Hindustani as spoken by the common folk and a preoccupation instead with a Persian-Arabic dominant vocabulary. His view was also an outcome of the poetic works he read, which were written by famous Urdu poets rather than poetry written in the *Janpadiya* dialects.⁷ This also proved the economic importance of Hindustani. It can also be conjectured that Gilchrist was drawn towards a Persianised Hindustani with a keen focus on a polished diction, not only because of the respectability that it brought, but also because it was a good source of income.⁸

There may be many factors that give rise to a sense and assertion of superiority and distinction. Our current times perhaps provide ample evidence of this. Gilchrist was not alone in his sense of superiority, rather, majority of British believed in its superiority over other nations and races, and this was a product of economic, social, geographical and religious factors. The Hindi-Urdu divide that is seen in the beginning of the nineteenth century was mostly the result of all of these factors and it should not be seen as a product of colonial diplomacy of divide and rule. A conscious use of the divide

⁵ John Borthwick Gilchrist, *The Hindee-Roman Orthoepigraphical Ultimatum*, Kingsbury Parbury And Allen, London, 1820, pg. xi

⁶ *Ibid*, pg. xxi

⁷ Sadikur Rahman Kidwai, *ibid*, pg. 68

⁸ David Kopf, *British Orientalism and Bengal Renaissance*, Firma K.L. Mukhopadhyay, Calcutta, 1969, pg.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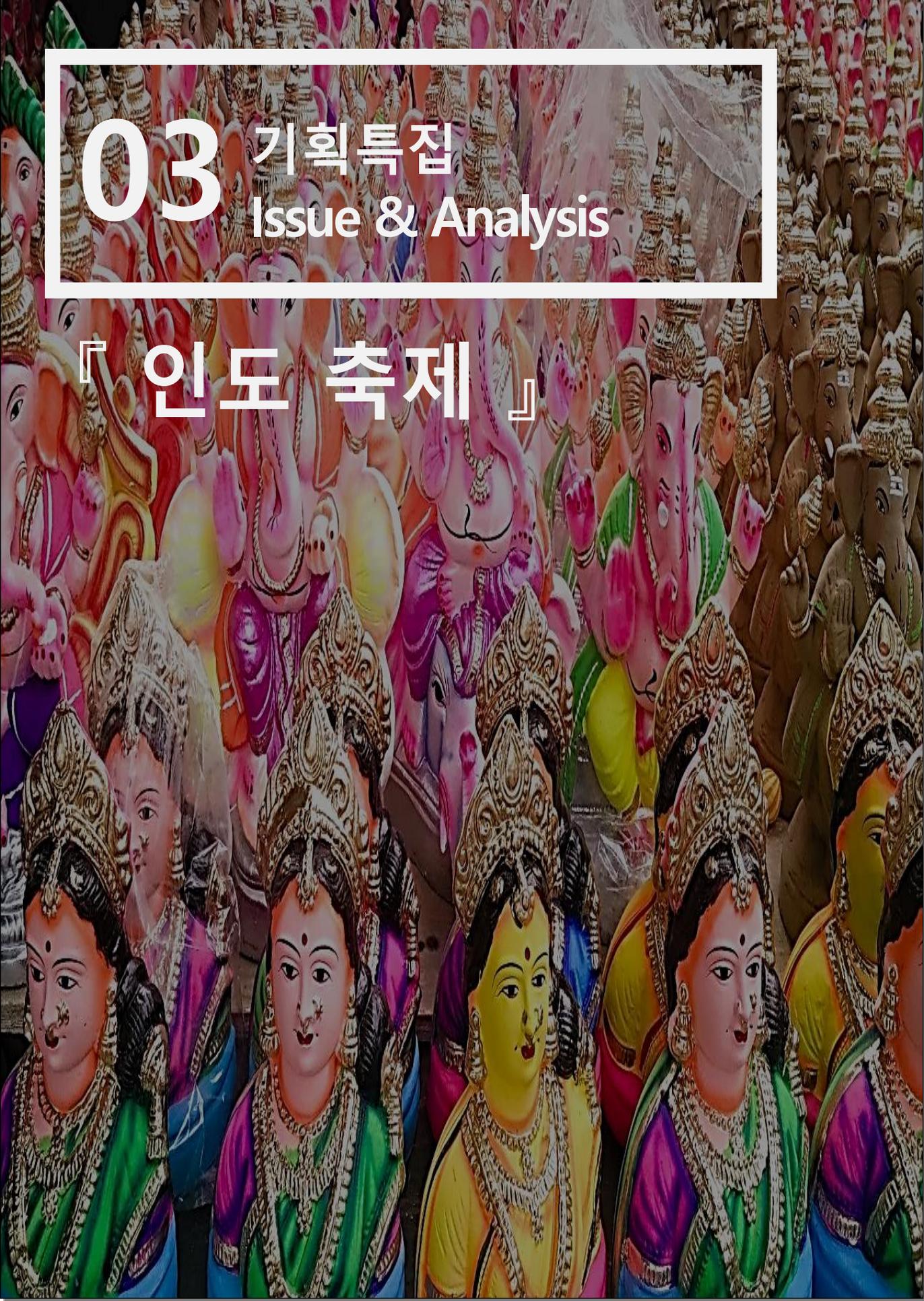
and rule policy was extended in the area of language as well but only a couple of decades later. Our aim here in raising these questions with respect to the Hindi-Urdu debate in the colonial period is to address the several nuances that are often bypassed by looking at the issue solely from a solitary angle.

03

기획특집

Issue & Analysis

『 인도 축제 』



쌀밥, 인도식 피클 아짜르(Achar), 인도식 요거트 라이따(Raita) 등의 매일 건강식들은 축제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각 축제 기간에는 그 축제의 풍미와 의미를 더해주는 특별식들이 마련된다.

1. 힌두 축제: 디왈리(Diwali), 홀리(Ho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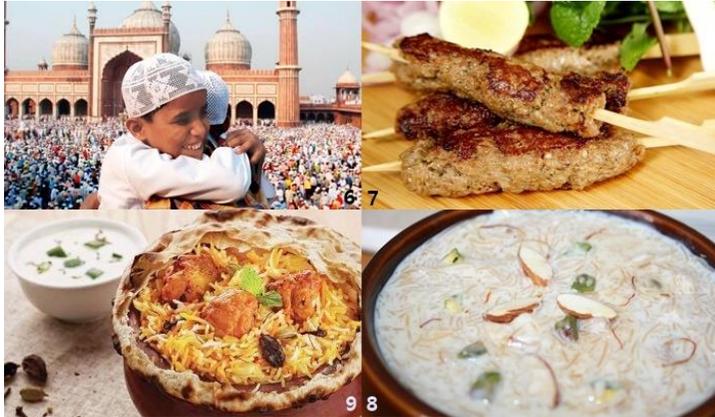
서사극 라마야나(Ramayana)의 한 장면에서 유래된 빛의 축제 디왈리(Diwali)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 진리에 의한 무지의 타파라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되새기는 축제이다 (Sharma, 2008, p. 75). 색의 황홀경에 빠지는 홀리(Holi)는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넘어가는 간절기에 한 해의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이자, 한편으로 다양한 색의 혼합처럼 모든 존재들이 조화, 사랑, 용서, 믿음 등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하려는 공동체의 다짐을 확인하는 축제이다. 디왈리와 홀리는 힌두뿐만 아니라 시크, 자이나, 무슬림, 인도 밖 해외 여러 문화권에서도 연중 가장 중요하고 성대하게 축하하는 역사 깊은 축제이므로 힌두 축제나 힌두 문화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디왈리와 홀리에는 코코넛을 비롯한 다양한 견과류, 곡류, 우유, 꿀을 혼합하여 만든 전통 당과인 미타이(Mithai)를 먹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디왈리에는 바르피(Barfi)나 굴랍자문(Gulab Jamun), 홀리에는 곡식이나 견과류로 속을 채워 튀긴 만두 모양의 구지아(Gujia)와 달콤한 팬케이크 말뿌아(Malpua)를 먹는다.



<그림 2 - 2. 구지아 3. 말뿌아 4. 미타이 5. 굴랍자문>

2. 무슬림 축제: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

이드 알피트르는 무슬림의 가장 큰 축제이자 예배로,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Ramadan)의 끝을 알리는 한편, 오랜 단식으로 피로해진 몸과 마음의 원기를 다시 회복하는 의식이다 (Singh, 2017, p. 102). 무슬림들은 평소에도 닭고기, 양고기, 소기기와 같은 육류를 즐겨 먹기에, 축제 음식에서도 여러 고기 요리들이 빠지지 않는다. 양고기 꼬치인 머튼 케밥(Mutton Kebab), 양고기 스튜인 하림(Haleem), 볶음밥 종류의 치킨 비리야니(Chicken Biryani) 등은 무슬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 음식이다. 이드에는 우유와 당면을 끓여 만든 감미로운 세비안(Sevian)이 준비된다.



<그림 3-6. 축제 이드 7. 머튼 케밥 8. 세비얀 9. 치킨 비리야니>

3. 불교 축제: 헤미스(Hemis) 축제

오늘날 인도에서 불교는 소수 종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도 북부 지역은 붓다의 탄생, 수행의 완성, 열반과 관련된 성지들로 많은 순례자, 여행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히말라야 산맥의 라다크 지역은 티벳 불교의 성지이자 영적 수행과 깨달음의 근원지로 유명하다. 라다크의 헤미스에는 11세기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티벳 불교 양식의 절, 고펜(Gompa)가 있어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곳이다 (Bansal, 2005, p. 19). 이곳에서 매년 6월 헤미스 축제가 열리는데, 동물 모양의 가면, 티벳 불교 양식의 독특한 춤과 음악으로 붓다의 환생과 재탄생을 축하한다 (Sharma, 2008, pp. 105-106). 헤미스 축제에서는 인도 음식들과는 모양이나 풍미가 또 다른 라다크 지역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음식들은 중국이나 한국 음식들과 비슷한데, 국물 국수인 푹빠(Thukpa), 수제비 뎨뚝(Thenthuk), 꽃빵 핑모(Tigmo), 만두 모모(Momo), 티벳식 빵 감비르(Khambir) 등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그림 4- 10. 헤미스 축제 11. 모모 12. 감비르 13. 푹빠>

4. 자이나교 축제: 미하비르 자안띠(Mahavir Jayanti)

마하비라(Mahavira)는 12년의 고행 끝에 해탈을 성취한 자인(Jain)으로 자이나교의 창시자이다. 마하비르 자안띠는 마하비라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일이자, 인격 완성과 더불어 존재의 깨달음에 대한 정신을 되새기는 성일로, 매년 3월이나 4월에 열린다. 자이나교도들은 비폭력의 아힘사(Ahimsa)를 비롯한, 불살생, 금육, 무소유, 고행 등의 엄격한 교조주의로 유명하다. 따라서 자이나교도들은 철저한 채식주의자들로 매일의 식단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계율들을 지켜야 한다. 계란을 포함한 육식은 불살생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금지이다. 감자, 무, 양파 같은 뿌리 채소들도 먹지 않는데, 뿌리 부분의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다. 씨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들도 생명 보존을 위해 삼가한다. 정수가 된 깨끗한 물이나 청결하게 착유한 우유를 마신다.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요거트나 치즈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발효 식품들은 하루를 넘기지 말고 요리하도록 하는데, 그 안에서 발효 작용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살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이다. 꿀은 꿀벌들의 생존을 위한 양식이므로, 그것을 섭취하는 일은 꿀벌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여 꿀 섭취도 금지한다. 마하비르 자안띠에는 이러한 계율을 지키는 전통적인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데, 더욱 절제되고 가벼운 음식들로 준비한다. 쌀과 우유로 만든 키르(Kheer), 다양한 곡물로 만든 인도식 케이크 도클라(Dhokla), 야채와 마살라를 넣은 요거트 다히바다(Dahi Vada), 인도식 빵 빠오 바지(Pav Bhaji) 등을 먹는다.



<그림 5- 14. 마하비르 자안띠 15. 도클라 16. 다히바다 17. 빠오바지>

5. 시크교 축제: 베사키(Baisakhi)

베사키(Baisakhi)는 매년 4월에 열리는 시크교도들의 형제애, 인류애인 칼사(Khalsa) 정신을 기리는 축제이자,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명절이다. 무슬림이었던 아우랑제브(Aurangzeb)는 시크교도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핍박하였는데, 1699년 구루 고빈드 싱(Guru Gobind Singh)과 시

크교도들은 칼사를 창시하여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신앙에 대한 맹세를 지킬 수 있었다. 베사키에는 시크교임을 확인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데, 암리따(Amrit)라는 불멸의 감로에 목욕을 한다. 또한 남자들은 시크 전통 의상인 꾸르따(Kurta)와 전통 병기인 샤스따(Shastar)를 착용하고, 키르딤(Kirtan)을 찬탄하며, 노래와 춤, 연주와 함께 행렬을 벌인다. 베사키에는 시크교도들이 집성되어 있는 인도 북부 편잡(Punjab) 지역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병아리콩으로 만든 커리 출레(Chole)와 같이 먹는 인도식 튀김 빵인 바투라(Bhature), 화덕에 굽는 탄두리 치킨(Tandoori Chicken), 머튼 커리,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로띠(Roti), 코코넛 라두(Coconut Ladoo) 등은 베사키에도 인기 많은 축제 음식들이다.



<그림 6 - 18. 축제 베사키 19. 출레 바투라 20. 코코넛 라두 21. 탄두리 치킨>

6. 추수감사제: 산끄란띠(Sankranti), 풍갈(Pongal), 오남(Onam)

인도 대륙이 광활한 만큼 씨뿌리기, 김매기, 추수 등의 농사와 관련된 축제와 행사들이 많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추수감사제는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북부 지역의 산끄란띠(Sankranti), 남부 깨랄라 지역의 오남(Onam), 남부 타밀 지역의 풍갈(Pongal) 등이 대표적이다(Singh, 2017, p. 11). 산끄란띠와 풍갈은 힌두력으로 1월에, 오남은 말라얌력에 따라 8월에 열리며, 농사와 기후를 관장하는 태양신(Surya)에게 축복과 감사를 빌고 풍요를 기원한다. 추수감사제에서는 그 지역 전통 의상을 입고, 춤과 노래, 가축 경연, 연날리기, 모닥불 놀이 같은 즐거운 행사들을 벌인다. 추수감사제 음식들은 쌀밥과 커리로 구성된 탈리(Thali) 정식들이 대부분이고, 제사용 미타이들을 만들어 올린다. 산끄란띠에는 깨로 만들어 영양가 높은 띠글(Thilgul)을(Sharma, 2008, pp. 78-79), 풍갈에는 쌀과 곡식, 콩을 곁들여 끓인 달콤한 풍갈(Pongal)을 먹는다.

이외에도 인도 전역에는 많은 축제와 기념 행사들이 열린다. 축제의 목적이나 의미들이 다양한 만큼 그 축제마다 준비되는 음식들도 각양각색이다. 인도 축제 음식들을 살펴보는 동안 ‘실현’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인도에서는 어느 종교가 되었든 간에, ‘너는 곧 네가 먹은 바(You are what

you eat)’ 라는 현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어 각 전통마다 심신의 건강과 증진을 도모하는 음식 재료, 조리, 섭식에 관한 여러 비법들을 전수하고 있다 (Sen, 2015, p. 8). 이 비법들은 오늘날 인도인들의 삼시 세끼를 챙기는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음식과 식이 요법을 통해 건강과 안녕을 지키도록 한 조상들의 지혜가 그들의 생활에서 몸소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날의 건강식이 곧 정성과 신명을 다하는 축제 음식으로 올려진다. 축제일에는 그 매일의 실현과 성공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다.



<그림 7 - 22. 축제 오남 23. 풍갈 24. 락굴 25. 탈리>

참고 문헌

- Bansal, S. P. (2005). *Encyclopaedia of India*. New Delhi: Smriti Books.
- Sen, C. T. (2015). *Feasts and Fasts: A History of Food in India*. London: Reaktion Books.
- Sharma, U. (2008). *Festivals in Indian Society*. New Delhi: Mittal Publication.
- Singh, V. (2017). *Vivek Singh's Indian Festival Feasts*. London: Absolute Press.
- Tribhuvan, R. D. (2003). *Fairs and Festivals of Indian Tribes*. New Delhi: Discovery Publishing House.
- Verma, M. (2007). *Fasts and Festivals of India*. Delhi: Diamond Books.

사진 출처

1. 인도 가정식: <https://fulloftravel.com/photo-galleries/indian-food/>
2. 구지아: <https://www.youtube.com/watch?v=IOumRoNaoTw>
3. 말뿌아: <https://food4yourmood.wordpress.com/2014/03/11/happy-holi-with-malpua/>
4. 미타이: <https://www.pinterest.co.kr/pin/380624605977469455/>
5. 굴랍자문: <http://food.ndtv.com/recipe-gulab-jamun-100479>
6. 축제 이드: <http://aveenir.com/article/soc.impact%20of%20eid.php>
7. 머튼 케밥: <https://www.youtube.com/watch?v=UFRieyzXWU>

8. 세비안: https://kfoods.com/urdu_recipes/seviyan_ki_kheer_rid6182
9. 치킨 비리야니: <https://www.hungryforever.com/bakra-eid-delhi-food/>
10. 헤미스 축제: <http://www.thenorthlines.com/ladakh-celebrates-hemis-festival-2016/>
11. 모모: <http://www.crazymasalafood.com/top-20-festival-foods-in-india/>
12. 감비르: <https://www.makemytrip.com/travel-guide/leh/khambir-dishes.html>
13. 뚝빠: <https://blog.coxandkings.com/cox-kings-customer-review-super-saver-ladakh/>
14. 마하비르 자얀띠: <http://www.kemmannu.com/index.php?action=topstory&type=4119>
15. 도클라: <https://www.archanaskitchen.com/gujarati-khatta-dhokla>
16. 다히 바다: <https://www.archanaskitchen.com/non-fried-dahi-vadas-lentil-dumplings-in-a-sweet-and-spicy-yogurt>
17. 빠오 바지: <http://www.vegetariansdelight.com/pav-bhaji-recipe/>
18. 축제 바세키: <http://www.kentecc.org.uk/vaisakhi-2015-attended-by-thousands/>
19. 출레바투라: <http://www.india.com/lifestyle/baisakhi-2017-top-10-traditional-baisakhi-dishes-to-feast-on-this-punjabi-new-year-2020837/>
20. 탄두리치킨: <http://pezcame.com/dGFuZG9vcmkY2hpY2tIbiByZWNPcGU/>
21. 코코넛라두: <http://eidmubarakwishess.com/eid-special-recipes-eid-food-ideas.html/coconut-laddoo-recipe-nariyal-ke-ladoo>
22. 축제 오남: <https://indiathedestiny.com/india-art-culture/festivals/onam-festival/>
23. 풍갈: <https://revisfoodography.com/2015/01/ven-pongal/>
24. 밀굴: <http://www.india.com/texas/makar-sankranti-the-use-and-significance-of-sesame-seeds-in-the-new-year-festival-247383/>
25. 탈리: <http://food.ndtv.com/food-drinks/onam-2016-your-guide-to-celebrating-this-auspicious-festival-1211623>

꾸모르똥리: 두르가의 재현

김민영 박사
네루대학교 역사학과

두르가 두르가!

북인도에서는 대부분 신을 찾을 때 람(Ram)을 외친다. 정식으로 만디르에서 기도를 드릴 때 든, 일상에서 절박한 마음을 담아 탄식을 할 때든, “헤이 람(Hey Ram!)”은 쉽게 터져나오는 소리이다. 비슈누의 일곱번째 화신이라던 람, 혹은 라마, 라마짚드라. 해마다 TV에선 버전을 달리한 라마야나 시리즈가 방영되고, 온갖 명절마다 라마처럼 분장을 한 어린아이들이 동네를 활보한다. 그만큼 람이 인기가 있다는 뜻일 게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인기있는 신을 이야기 하면 ‘람’이 빠질 수 없다.

인도 동부에선 상황이 달라진다. 벵갈인들의 입에서 가장 쉽게 터져나오는 신은 두르가이다. “헤이 람!”을 외치는 사람보다 “두르가 두르가!”를 외치는 사람이 훨씬 흔하다. 벵갈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으로 여겨지는 세 여신 두르가, 깔리, 사라스와띠 중에서도 두르가는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⁹. 심지어 깔리 여신의 이름이 붙어서 형성된 도시인 꼴까따¹⁰에서마저도 가장 인기있는 여신은 깔리가 아닌 두르가이다. 두르가는 악마인 아수라의 파괴자로서 숭배되고 있다. 두르가 여신 그 자체로서 악을 이기는 선의 상징이 된 것이다. 본래 아수라의 우두머리인 마히샤수라는 브라흐마를 헌신적으로 섬기던 악마이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브라흐마는 마히샤수라에게 그

⁹ 힌두교 신앙에서 깔리와 두르가는 본래 동일한 여신의 서로 다른 속성이 강조되어 드러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¹⁰꼴까따의 원래 명칭은 꼴리카따였으나 현대에 들어서 모음이 축약되어 꼴까따로 명칭이 굳어졌다

어떤 남자와 신에게도 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절대 무적의 힘을 가지게 된 마히샤수 라가 세상을 휘젓게 되고, 신들도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신들은 자신들의 힘을 모두 합해 여성의 모습을 한 두르가를 창조해낸다. 쉬바는 프리술(삼지창)을, 비슈누는 수다르산 짜끄라(원반형의 무기)를, 인드라는 바즈라(번개)를, 바루나는 고통나팔을, 바유는 활과 화살을 두



르가에게 줬다. 아그니는 광채와 힘을 내리며 축복했다. 마히샤수라는 끊임없이 형태를 바뀌며 싸웠지만 결국 본래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 두르가의 프리술에 찔려 죽는다. '악을 이기는 선'이라는 명제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최강의 힘을 가진 존재로서의 상징성은 삭티즘 전통과 맞물려 두르가 신앙이 인도 동부에서 뿌리내리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두르가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한 축제인 두르가뿌조는¹¹는 주로 벵갈지역을 중심으로, 벵갈 문화의 영향권에 포함되는 오릿사, 아쌘, 자르칸드, 비하르와 같은 인도 동부에서 기념하는 축제이다. 위에 언급한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명절인 만큼, 그 명칭도 다양해서 두르고뜨습(দুর্গোৎসব: 두르가의 축제), 어갈보돈¹²(অকাল ব:ধন:두르가의 때 이른 각성), 샤러도뜨습(শারদোৎসব:가을의 경배), 마에르뿌조(মায়ের পূজা:어머니의 경배), 머하뿌조(মহা পূজা:위대한 경배) 등으로 불린다. 타 지방에서는 더세라, 나브라뜨리 와 같은 다른 명칭으로 불리며 두르가를 기념하는 축제가 벌어지지만, 행사의 규모나 인기를 비교했을 때 벵갈 지역의 뿌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두르가뿌조가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11세기 부터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성대한 행사로서의 뿌조의 기원은 18세기 경 자민다르들의 대규모의 재력을 동원한 행사로 보는 것이

¹¹ 힌디어 발음으로는 두르가 뿌자에 가깝지만, 두르가 뿌자를 집중적으로 즐기는 지역에서 쓰는 벵골리 발음으로는 두르가 뿌조에 가깝기 때문에 이후로 계속 두르가뿌조로 칭함.

¹² 라마야나에 따르면, 라마가 악마 라바나와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르가의 축복이 필요했다. 원래 두르가를 위한 제사는 봄에 지내는 것이었는데, 라마는 전투를 앞둔 가을에 제를 지낸다. 때문에 '때이른 각성'이란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당시 두르가를 위한 제사에서는 100 송이의 푸른 연꽃을 바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라마는 부족한 한송이의 연꽃을 대신하여 자신의 눈을 바친다. 라마의 헌신에 만족한 두르가는 그를 위해 축복을 내린다. 셉도미에 시작된 전투는 결국 어쉬또미와 너보미에 끝이 나고 라바나는 더쇼미에 화장이 된다.



정설이다. 과거 대지주들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사지에서 진행하던 두르가뿌조는 이제 모든 대중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가 되었다. 뿌조 자체는 일반적으로 열흘동안 진행되며, 시작하는 날부터 종료되는날까지, 머할로야(महालया),머하셔쉬티(महाश्वती),머하섭또미

(महासप्तमी),머하어쉬또미(महाअष्टमी),머하너보미(महानवमी), 그리고 머하더쇼미(महादशमी) 혹은 비조야더쇼미(बिज्यादशमी)의 명칭이 붙는다. 기본적으로 뿌조는 힌두달력에 따라 날짜가 정해지는데 보통 9월이나 10월 경에 날짜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뿌조의 첫째날인 머할로야는 빠뜨리 뽀코¹³의 마지막 날이다. 뿌조가 시작되는 날부터를 데비 뽀코(देवी पक्ष: 여신의 기간)라고 칭한다. 이 기간에는 일가친척끼리 서로 새 옷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제를 기념하며,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뽀달¹⁴에 꽃과 공물을 바치러 간다. 데비 뽀코 중 치러지는 안잘리 뿌조 역시 두르가뿌조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사원에서 사제는 생화와 벨잎을 신자들에게 나눠주고 만트라를 읊는다. 공복으로 온 신자들은 사제를 따라 만트라를 하고 여신의 발에 꽃을 뿌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세차레씩 반복된다. 머할로야는 두르가 여신이 인간세상에 오기 위해 히말라야에서 출발한 날이라고 여겨진다. 벵갈 지역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데비마하뜨맘¹⁵을 부른다. 머할로야부터 대부분의 운동장, 공터, 공원에는 여신을 경배하기 위한 뽀달이 설치된다. 머할로야로부터 여섯번째 날인 머하셔쉬티에는 꺄뽀롬보뿌조(कनकात्मपूजा)가 거행되는데, 두르가 뿌조 기간 중 가장 성대한 규모의 뿌조가 바로 이 꺄뽀롬보뿌조이다. 여신이 자식들인 가네샤, 까르틱, 사라스와 띠, 그리고 락쉬미와 함께 인간세상에 도착한 날로 기념이 되며 두르가 신상의 얼굴이 이날 공개된다. 머할로야로부터 여덟번째 날인 머하섭또미에는 가네샤의 신부를 동트기 전에 가네샤 옆

¹³ 빠뜨리 뽀코(पति पक्ष:조상의 기간)는 상서롭지 못한 날로 여겨지는 기간으로, 쉬라다 혹은 따르뽀으로 통칭되는 제사를 지내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 혹은 친조부를 위하여 공물을 바치는 의식을 치르는데, 조상의 영혼이 이에 만족하면 후손의 건강, 부, 지식, 수명 뿐만 아니라 해탈까지도 이루게 해 줄 것이라고 힌두교인들은 믿는다.

¹⁴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구조물로, 장인들은 가급적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¹⁵ devimāhātmyam, देवीमाहात्म्यम् :여신을 우주의 창조자이자 절대적 힘으로 묘사한 힌두교 경전 가운데 하나로 기원전 600 년에서 400 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개의 장 안에 700 행의 운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르가 여신이 악마 마히샤수라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 데려다 놓는다. 이날은 너보빠뜨리까¹⁶(벵갈리: 두르가의 속성을 상징하는 아홉가지 식물)를 경배하는 날이다. 또한 여아아동들을 여신처럼 분장시켜 경배를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를 꾸마리 뿌조라고 한다. 다음 축일인 머하어쉬토미의 마지막 24분과 머하너보미의 처음 24분에는 손디 뿌조(সন্ধ্যা পূজা)가 치러



진다. 이 시점이 바로 여신이 짜문다로 변해 마히샤수라의 장수인 찬도와 문다의 목을 벤 순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뿌조는 108개의 등에 불을 밝힌 가운데 진행된다. 다음 축일인 머하너보미 저녁에는 두르가 여신 앞에서 다끼의 북소리에 맞춰 두누찌나쯔¹⁷(ধুনুচিলাট: 직역하면 향로춤, 보통 향로를 입에 물거나 향로를 등 뒤로 돌리는 등의 묘기를 부리며 춤을 추는 형태가 많음)를 춘다.

머하더쇼미, 또는 비조야더쇼미라고 하는 두르가 뿌자의 마지막 날에는 신두르켈라(সদিরখলা)가 있다.

신두르는 혼인한 여성의 가르마에 붉은 가루를 발라 결혼상태를 표시한 것을 일컫는다.

신두르켈라는 이 붉은 가루를 여신에게 칠하면서 꾸미고 공물을 바치며 여신과 작별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의식이 끝나면 여자들은 서로의 얼굴에 붉은 가루를 칠하며 논다. 이후 두르가여신을 남편인 쉬바에게 돌려보내는 의식인 비쇼르존(বিশ্রজন: 물에 잠김)이 치름으로써 두르가 뿌조는 완성된다. 이렇게 성대한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화려한 두르가 신상은 필수이다. 두르가 신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벵갈에서도 집중적으로 두르가 신상이 제작되는 곳은 꼴까따 북부에 위치한 꾸모르폴리이다.

¹⁶ 브라흐마니(바나나), 깔리까(콜라카시아), 두르가(강황), 카르티기(자얀띠), 시바(벨), 라고따단띠까(석류), 소끄라히따(아욱나무), 짜문다(아름), 락쉬미(벼). 원래 너보빠뜨리까는 풍작을 기원하던 농부에 의해 경배되었으나 두르가 숭배가 이 지역에서 주 신앙으로 자리잡자 두르가뿌조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¹⁷ <http://expressobserver.com/dhunuchi-dance-in-dussehra-1275.html> 두누찌나쯔를 추는 여인 뒷편으로 다끼가 보인다.



¹⁸19 그 명칭 자체는 ‘도공들의 동네’를 의미한다. 본래 캘커타에 위치한 동인도회사가 자회사의 일꾼들을 위한 거주지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옮겨살게 하면서 생겨난 마을 가운데 하나였던 꾸모르톨리는 두르가를 비롯한 신상 제작의 중심이 되었다. ²⁰신상의 구성은 크게는 여신, 여신 뒤에 있는 짚찌트라(চালচিত্র: 광배), 여신이 밟고 있는 악마 마하샤수라로 구성이 된다. 신상을 제작할 때는 우선 밑짚단으로 기본적인 뼈대를 만든다. 여신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작품의 구조는 이 단계에서 대부분 완성이 되는 것이다. 크기가 1미터도 안되는 소형 작품의 경우는 따로 뼈대 없이 바로 점토를 주물해서 성형하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에는 갠지스²¹에서 가져온 흙, 소의 배설물, 사창가의 흙²²을 배합한 점토를 이용하여 살을붙여나간다. 대부분의 두르가 여신은 팔이 다섯쌍의 팔을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된다. 그리고 그 팔에는 각기 다른 10종류의 무기가 들려있다. 여신이 타고 있는 동물은 호랑이일 때도 있지만 사자일 때도 있다. 여신의 이마에는 제3의 눈이있으며 여신 뒤에는 화려한 광배가 위치한다. 여신의 양 옆에는 보통 그 자식들인 네명의 신이 서 있는 경우가 많다. 신 아래에

¹⁸ https://www.google.co.in/url?sa=i&r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4op_Qv_DXAhXJPxoKHTYmBqwQjRwlBw&url=https%3A%2F%2Fcommons.wikimedia.org%2Fwiki%2FFile%3AInitial_framework_of_Durga_Idol_by_Straw%2C_Kumortuli.jpg&psig=AOvVaw2oCE5NrQV7yH71TvXq5qDI&ust=1512481719391964

¹⁹ https://www.google.co.in/url?sa=i&r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 u1--dv_DXA hWIMBoKHchaD7kQjRwlBw&url=https%3A%2F%2Fwww.ndtv.com%2Fkolkata-news%2Fkolkata-jail-inmates-carve-idols-ahead-of-the-durga-puja-festival 1466146&psig=AOvVaw0KhvVimlx7nk9PWvMHeCu9&ust=1512481563830953

²¹ 꼴까따 근방에서 갠지스의 흙을 직접 가져오기는 쉽지 않기에 대부분의 경우 갠지스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후글리 강에서 떠온다고 한다.

²² 사회의 최하층으로 취급받는 성매매 여성에게 허락을 받아 그 집 문앞의 흙을 구하는 이 절차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존재한다.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의 집 문 밖에 양심과 순수함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모두 버리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가치가 쌓인 문 앞 흙이 가장 순수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민간의 통설이 있으나, 이 역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 최하층으로 평소에 항상 천대받는 계층도 이 흙을 제공함으로써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 역시 문헌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다.

는 반드시 악마가 깔려 있다. 두르가 여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표현 방식에서 다양성이 발견된다. 화가 난 듯이 눈을 부릅뜨고 노랗게 채색이 되어 있는 여신에서부터 밝은 피부에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신까지, 신상을 제작하는 장인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탄생되는 것이다. 몇몇의 선구적인 장인들이 새로운 양식을 창조해 내고, 그 양식이 공방에서 수요가 많다는 것이 입증되면 대부분의 장인들이 유사한 형태로 소조하는 방식으로 신상제작이 이루어진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상을 보면 그 신상이 어떤 장인의 스타일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장인들마다 얼굴의 비율, 피부의 색, 눈의 크기, 속눈썹을 표현하는 방식 등 두르가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를 두기도 하고, 혹은 두르가에게 밝힌 악마를 묘사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기도 한다. 악마는 무기력하고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격렬하게 반항하는 근육질의 괴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두르가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즉 실제 사람의 외양과 흡사하게 묘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대로 화가 나서 눈에 핏발이 선, 위압적으로 보이도록 표현되기도 한다.²³ 꾸모르똥리에 정작 도착해도 꾸모르똥리 내부를 여유있게 관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각각의 소규모 공방들이 비좁은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공방을 관통하는 좁은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 자칫 잘못하면 작업단계에 있는 신상들을 건드리기 쉽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음 발 디딜 곳을 눈 부릅뜨고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공방 골목 사이를 지나다니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광경을 볼 수 있다. 힌두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인간의 손 끝에서 탄생하는 모습, 두르가뿌조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이다.

²³ https://www.google.co.in/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Cva_lvPDXAhXCAXoKHevJC98QjRwIBw&url=http%3A%2F%2Fwww.bomadg.in%2F2008%2F&psig=AOvVaw3r_liyqGA36e4ru5dcoTfl&ust=1512480955564761

²⁴

<https://www.google.co.in/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27e-fvwDXAhXM1BoKHZ8QCskQjRwIBw&url=https%3A%2F%2Fmywhatsappub.in%2F2017%2F04%2F28%2Fdurga-maa%2F&psig=AOvVaw0uPSzPasi7U2dZwt9ZUTve&ust=1512481346076303>

인도
의 삼
대하여
: 브라
비슈누,
중심으



힌두교
신에

흐마,
쉬바를
로

상연진 박사
네루대학교 사회학과

흔히들 인도와 인도인들에 대해 떠올리면 힌두교를 믿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신들에 대해 승

배를 하는 모습을 연관지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에는 어떤 지역에서도 신들을 모시는 많은 사원과 그곳을 찾는 신도들이 붐비고 신화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처럼 믿게 만드는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성화하고 있다.

신화는 원초의 시대에 일어난, 공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주로 구전으로 전승되며 종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도 한다. 종교와 관련된 신화는 그 종교의 세계관과 사회적, 문화적 이상향 등이 이야기 안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류경희, 2016,23).

오늘날 신화를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신화가 특정 지역의 전 세대와 문화에 대한 집단적 경험과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을 초월하는 인간심리의 기본패턴의 원형들을 보여준다 (류경희, 2016, 24-25). 따라서 신화는 인간과 그들의 특정 문화나 사회의 집단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주요 신들과 신화에 관해 살펴 보는 것은 인도인들의 문화적 특성과 삶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인도 신화는 사실상 인도인들의 80%이상이 믿는 힌두교에 토대를 두고 있고, 따라서 '인도 신화'는 '힌두신화'와 동일한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류경희, 2016, 36). 힌두교는 다양한 신앙과 사상 체계들이 변화, 유지되면서 발전되고 융화된 종교이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성 안에서 동질성이나 통일성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힌두 경전에 따르면 신의 수가 3억 3천이 넘는다고 하는데 힌두교도들은 이 같은 많은 신들이 사실은 하나의 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부수적인 신들은 주요 신들과 연관성을 갖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즉 힌두교는 일원론적 다신 신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류경희, 2016).

힌두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의 지위와 성향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기원전 아리아인들이 인도의 서북부로 이주해 오면서 만들어진 종교 문헌인 '베다'에는 주로 자연 현상이나 자연력을 신격화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천둥과 뇌우의 신 인드라, 불의 신 아그니 등이 그것이다. 이후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점차 적응해 나가면서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후 300년 사이에 고대 베다 종교의 변화와 함께 이전의 주요 베다의 신들이 전면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바로 브라흐마, 쉬바, 비슈누이다. 이들 중 쉬바와 비슈누가 힌두교에서 현재까지 가장 유명한 2대 신이 되었고 브라흐마는 상대적으로 주요 신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인도와 인도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창조신 브라흐마, 유지신 비슈누, 그리고 해체신 쉬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 브라흐마

브라흐마 (Brahmā) 는 우주의 창조, 유지, 해체의 순환과정에서 창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신이다. 브라흐마는 보통 네 개의 머리와 팔, 그리고 흰 수염을 가진 형상으로 소개된다. 보통 백조나 거위, 공작을 타고 다니고, 신화에 따르면 원래 머리가 다섯 개였다고 한다. 브라흐마는 자신에게서 나온 딸이 너무 아름다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얼굴을 돌려 쳐다보다가 머리가 다섯 개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쉬바가 분노를 느껴 위쪽에 있는 다섯 번째 머리가 잘렸고 나머지 네 개만 남았다고 한다.



<그림 1 브라흐마. Pahari Art. 약 서기 1700년>

힌두 신화의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주 창조 신화에서는 브라흐마가 창조의 역할을 담당한다. 브라흐마는 신화에서 낮에는 우주를 창조하고 밤에 잠이 들면 우주가 해체된다. 이러한 우주의 생성과 해체 과정이 되풀이되다가 브라흐마의 생애(100 신년)가 끝날 때 우주도 대해체기로 진입한다. 이후 브라흐마는 다시 태어나 우주 생성과 해체의 순환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브라흐마와 관련된 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힌두사상은 우주의 생성과 소멸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는 순환적 우주관을 내포하고 있다 (류경희, 2016, 103).

브라흐마는 힌두신화에서 창조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신앙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신화를 살펴보다도 브라흐마가 창조를 담당하는 일 이외에 신들과 인간사에 개입하는 경우는 잘 없다. 신들이나 인간이 도움을 청할 때는 비슈누나 쉬바를 통해 요청하도록 조언하는 역할 정도이다.

◎ 비슈누

오늘날 인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숭배되고 사랑받는 신 중에 하나인 비슈누는 고대문헌인 '리그베다'에도 나타나지만, 서사시와 '뿌라나' 시기에 세상과 우주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신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화에서 주로 표현되는 비슈누는 네 손에 원반, 조개 껍질, 곤봉, 연꽃을 가지고 있는 짙푸른 피부의 잘생긴 남성의 모습이다. 여기서 조개 껍질은 우주를 구성하는 다섯 요소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원반은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는 악마들을 막아내기 위한 무기이다. 그리고 연꽃은 정결함과 평화를, 곤봉은 원초적 지식을 상징한다.

비슈누는 처음에 28개의 화신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가 그 후 8세기경에 고착화된 10가지 화신의 모습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세 화신 물고기(마츠야), 거북이(쿠르마), 멧돼지(바라하)는 베다에서 나오는 창조물이다. 네 번째 화신은 악마로부터 세계를 구한 반인반사자인 나라시마, 다섯 번째는 난장이 바나마, 여섯 번째는 도끼를 가진 파라슈라마, 그리고 나머지가 비슈누의 화신 중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전설적 영웅 라마와 크리슈나, 불교의 창시자인 붓다, 그리고 우주의 해체 시기에 나타나게 될 깔끼이다. 이 열 번째 화신인 깔끼는 이전의 화신들이 이미 나타났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출현할 화신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림 2 비슈누>

◎ 쉬바

비슈누와 함께 현재 인도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는 쉬바는 파괴와 창조를 함께 담당하고, 고행과 출산의 신이기도 하다. 쉬바를 나타내는 형상은 다양하지만 주로 남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링가를 통해 숭배된다. 링가 외에도 지혜의 눈으로 지칭되는 양 미간 사이에 있는 제3의 눈, 우주의 창조, 유지, 해체를 상징하는 삼지창이 쉬바를 상징하는 것들이다.



<그림3 쉬바>



<그림 4 링가와 요니>

힌두교의 다른 신들처럼 쉬바도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명칭으로는 루드라(악과 슬픔의 파괴자), 상까라(선을 행하는 자), 마하요기(대요기), 닐라칸타(푸른 목을 지닌 이), 나따라자(춤의 왕), 빠슈빠띠(동물의 주인), 아다나르이슈와라(반남신 반여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많은 이름은 쉬바의 복합된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암시한다 (류경희, 2016, 117).

특히 쉬바는 힌두 신들 가운데 가장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쉬바는 파괴의 신인가 하면, 창조와 관련된 재생과 풍요의 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적인 면들의 공존이 쉬바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힌두 사상에서 파괴와 해체는 새로운 창조로 귀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쉬바가 다른 힌두 신들과 차이가 나타나는 점은 신상보다는 링가라 불리는 알 또는 끝이 둥근 돌기둥 형태로 숭배된다는 점이다. 남근상으로 추정되는 링가 때문에 쉬바는 성적 심볼로 상징화 되기도 하지만 사실 남근은 힌두교에서 우주의 모체 또는 근원적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쉬바와 관련된 예배 대상들은 쉬바의 아내 빠르와띠, 둘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인 가르띠게야와 가네샤, 쉬바의 탈 것인 난디와 수행자 구베라 등이다. 이 중 가네샤가 가장 유명한 숭배 대상이고 빠르와띠는 독자적인 예배 대상은 아니다. 쉬바의 신계보는 비슈누파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류경희. 2003. 인도 신화의 계보 (살림).

류경희. 2007. "인도의 독립적 여신신앙과 여성: 신화와 실제" 『인도연구』, 제12권 2호, 49-84.

류경희. 2016. 인도 힌두신화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송정란. 2007.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인도신화" 『인도연구』, 제12권 2호, 113-142.

Pattanaik, Devdutt. 2017. Shiva to Shankara: Giving Form to the Formless. Harper Element.



Prominent religions of India and their festival believes

Indian Festivals

Dhiraj Kumar Mishra

부산외대

When we want to know about any country, it becomes important to look upon their important and deep sides. We can see from the cultural aspect or from the historical aspect or yearly manner or by the other important factors. In the context of India our beautiful world is full filled with so many concepts. World's peoples want to understand concretely about India but diversity of India and mix culture makes this dream untrue. Actually, this coexistence of various cultures and religions is the strongest aspect of India. On the base of this aspect, world peoples mentioned India as 'incredible' or religious country. This incredibility inherited so many layers inside. When we focus our thinking upon India, picture came along with so many languages, case, race, state, culture and religions.

Our era is scientific era. In these time humans reached upon the mars and developing new things with deep research but according to the soil of India; human is incomplete without the emo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large population of world's biggest democracy, emotions ar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religions. Religion is a systematic form of emotions. So that when anyone wants to analyse India deeply; the most important visible aspects emerge as religion. From the aspect of the religion, different and almost opposite characters religions, co exists in the same time and space in the India. This is a well-known truth that religions breaths on the faith. Due to faith aspect every religion has different methods and rituals.

By the diversity of religions and their related faiths in India, so many festivals perform everywhere in the country. It may be say that every religion has so many festivals. We know that in India Hindu, Islam, Sikh, Buddha and Jain religion exists as prominent religions. In all these major religions so many festivals are celebrating by the concerned Indians. Here information's about the basic faiths and believe of all above said religions festivals are scripted. On the base of this anyone can understand the diversified cultural aspect of India.

Hindu-festivals: In all over the world Hindu religion is known as a very old and organised religion. Each and every Hindu Festival is decided on the base of Hindu calendar. This calendar days are calculated upon the movement of Sun and Moon. In all over India there are so many Hindu festival's in which Lohri, Makar Sankranti, Mahashiva ratri, Holi, Ram Navami, Guru Purnima, Onam, Rakshabandhan, Janmashtami, Navratri, Dushara, Karva chauth, Dhanteras, Deepawali, Govardhan pooja, Bhai dooj, Chhat puja are most important and popular.

Lohri: This is famous festival in the Punjab and Haryana state of India. Now in our time it is usually celebrated on the 13th January every year. Peoples believe and faith looks this festival as a mark the end of peak winter and is a traditional welcome of longer days and sun's journey to the northern hemisphere. In Punjab and Haryana state this festival is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the harvest of Rabi crops. The traditional time to harvest sugarcane crops is in January, therefore Lohri is seen by so many peoples as a harvest festival. In its original form Lohri is an ancient mid-winter Hindu festival. Traditionally Hindus lit bonfires in their farm land after the rabi season cropping work. This bonfire is usually socialised and all members are danced and sang together.

Makar Sankranti: Makar Sankranti festival celebrated just after the next day of Lohri means on 14th January. Actually, this festival is also one of the major harvest festival. It's important by Historically and mythical also. This festival is a traditional and oldest event, that happens on an equinox means the length of day and night remains equally long. It is faith that on this day Sun enters in to the spheres of Capricorn zodiac, in Hindi Makar Rashi. Term Sankranti signifies the movement of Sun from one zodiac sign to another. So that in India Makar Sankranti is marked as an end point of the inauspicious phase of the year which was begins in the mid of the December. All Hindu Believes that all sacred rituals can be performed from this day onwards. This auspicious day also marks beginning of the warmer and long days in comparison to nights. This is identified by different name, in Gujrat its known as Uttarayan, in Tamilnadu its known as Pongal, Uzhavar Thirunal; in Himachal Pradesh, Haryana, Punjab its known as Maghi, In Assam its known as Bhogali Bihu, now in these days some people celebrate this festival as kite fly festival.

On this day peoples go to sacred rivers or lakes and bathe with thanksgiving to the sun. The bathing is believed to result in merit or absolution of past sins. Peoples preparing themselves for this festival in many ways. They prepare sweets (til-laddu) and lip-smacking dishes for the celebration. Another faith for this festival is based upon the mythical story of devil Mahishasur and Goddess Durga. Peoples believes that Mata Mahisasurmardini set her foot first in the kataraj ashram of Rishi kardam and Devahuti on this auspicious day. Another thinking of peoples for the importance of this

day was signified by the Aryans who started celebrating this day as an auspicious day for festivities. In the epic of Mahabharata, an episode mentions how people in that era, also considered this day as auspicious. Ganga putra Bhishma Pitamah even after being wounded in the Mahabharata war lingered on till Uttarayan set in, so that he can attain heavenly abode in auspicious times. So, it is a fixed faith in the Hindus are death on this day brings Moksha or salvation to the deceased.

Mahashiva ratri: Maha Shivaratri is celebrated by the Hindus over three or ten days based on the Hindu luni-solar calendar. In every lunar month, there is a Shivaratri but the main festival is known as Maha Shivaratri, or great Shivaratri. this is always being on 13th night (waning moon) and 14th day of the hindu month Phalguna (Magha). This is corresponding to the month of February - March in English Calendar. In this festival devotees took fast all through the day and night of Shivaratri in honour of Lord Shiva and pay their faiths by visit to Shiva temples. As a part of the tradition devotees perform ritual bath of Shiva Lingam with milk, water, honey etc. Many peoples in India believe that Shivaratri festival actually marks the wedding day of Lord Shiva and Goddess Parvati. However, according to Hindu legends that was an auspicious night of Shivaratri in which Lord Shiva performed the 'Tandava' dance. Another sound faith says that and scripted in Linga Purana also, that it was on Shivaratri that Lord Shiva manifested himself in the form of a Linga. Hence the day is considered to be extremely auspicious by Shiva devotees and they celebrate it as Mahashivaratri.

Holi: This is a prominent festival of Hindus. This festival is marked as festival of colours and Its another name in traditional way is fagwa. This festival was originally a spring festival of harvesting and fertility. There is a legend in the Hinduism about this festival. In the very ancient age of India, there were a demon king named Hiranya kashyap and his sister Holika. Hiranya kahsyap was consider himself as a ruler of universe and above than all the gods. Hiranya kashayap had a son named Prahalad. Prahalad was opposite of Hiranya kashyap. He was a deep and great devotee of lord Vishnu. In this situation Hiranya kashyap hated his son and taken him as enemy. One-day Hirany kashyap asked to Prahalad that 'Who is greatest, God or me? Prahalad replied him 'defiantly God. You are only a King.' By this reply Hiranya kshyap was furious and decided to kill his son. He tried so many ways to kill him but all the attempts for murder of Prahalad didn't work too well. Prahalad was still survived even thrown over the cliff, being trampled by the elephants, bitten by the snakes and even attacked by the soldiers. Lastly Hirany kashyap gave order to his sister Holika to kill him. Holika collect the attention of the boy and sit in the middle of fire with him on her lap. Holkia had a given wish or power by the gods that made her immune in fire. So, she feels that in the fire Prahalad would burn till death while she remained cool but she foregate that gods told her that if she will use this

power for demon work than the power will be vanished. She taken granted the gods and enter into the fire. So, after vanishing of power she burnt till ashes and Prahalad stayed true to his god Vishnu and sat praying in the lap of his demon aunt. Lord Vishnu protected him and lastly, he survived. Shortly after this incident Lord Vishnu killed demons king Hirnya kashyap and Prahlad rules wise on his father place. Basically, Hindus taken this story as truth and believes that truth always wins on the demon things. Another legend is about Radha and Krishna. Krishna loved Radha, but felt self-conscious about how different their skin-colours were. So, on the advice of his mother, he went and playfully painted her face so it was the same colour as his. It is said that lovers often celebrate Holi in this tradition, by colouring their faces the same colour during the celebrations.

Holi also marked as the welcome festival of Spring. By the base of this some peoples called it's "Basant utsav" also. Holi is a very energetic festival filled with fun and good humours. Peoples celebrates this festival by smearing each other with paint and throwing coloured powder and dye around in the atmosphere. This festival usually celebrates in the month of March. This is a main festival of North India. Ancient distinction of caste, class, age and gender are suspended during Holi.

Ramnavami: In this Hindu festival Hindu's celebrates the birthday of God Ram. This festival fall on the ninth day of the bright half (Shukla Paksha) in the Hindu calendar month of chaitra. Basically, this is a Vedic festival. The ancient scriptures of India mentioned that Lord descends in his various incarnations in order to attract the devotees and destroy the evil minded. In every incarnation of lord, lords performed such activity which is known as lila. Those activity are worshiped and meditated by the devotees. Such lila's were performed by the lord Vishnu in his Ramaavtar or Ram incarnation. Ramnavami is performed in nine days. In nine days devotee meditate about the all life and activity of Ram. The ancient text of India's Hindu mentioned that Ram incarnation personifies justice, ethics and victory over vices. Ram performed his prescribed duties with perfections. Details about the activity and life of Ram known as Ramayan. Hindus believes that listening submissively of Ramayan cleans all misgivings from mind and soul.

Guru Purnima: This festival is celebrated to acknowledge the selfless induction of wisdom and knowledge by teachers. This festival is not important for Hindus only but also for Jains and Buddhist's. all of them indulge in festivities as a message of paying respect to their respective 'Guru'. This festival celebrated on the day of full moon in the month of Hindu calendar Ashadha means in the month of July-August. Hindus of India dedicated this festival of loving memory of Maharishi Veda Vyas, a sage who known as a responsible personality for editing the sacred text Mahabharat, Veda's and 18 Puran. Which is the foundation of Hindu religion. Buddhist celebrate this festival in

the rejoice for the divinity of their guru Lord Buddha. It is a faith in the Buddhist peoples that on this day their lord delivered their first sermon. On another ground this festival is also marked as an onset of monsoon and thus is a prime source for farmers for celebration.

Onam: Onam is the biggest festival in the Indian state of Kerala. Onam Festival falls during the Malayali month of Chingam (Aug - Sep) and marks the homecoming of legendary King Mahabali. This festival celebration is compiled in ten days and bring out best of Kerala culture and tradition. In this festival decorated Pookalam, ambrosial Onasadya, breathtaking Snake Boat Race and exotic Kaikottikali dance are the important aspect of attraction. Peoples celebrate this festival in the memory and regard of their ancient king Mahabali. Peoples think celebrates Onam for the visit of King Mahabali to the state of Kerala every year. In betwvn them King Mahabali is greatly respected by his subjects. It may be noted that Mahabali was the son of Veerochana and grandson of Prahlad, the devout son of demon King Hiranyakashyap. Mahabali had a son called Bana, who became a legendary king in his own right and became popular as Banraj in central Assam. Mahabali belonged to the Asura (demon) dynasty but was an ardent worshiper of Lord Vishnu. His bravery and strength of character earned him the title of "Mahabali Chakravathy" or Mahabali - the King of Kings. According to Vaishnava mythology, it is said that Mahabali came to power by defeating the gods and taking over the three worlds. Gods were unhappy by his popularity and asked for Lord Vishnu's help in a battle against the demon king. Vishnu agreed to help but did not want to participate in a battle as Mahabali was his ardent devotee. Instead, to help other gods, he took the form of a poor dwarf Brahmin (his Vamana avatar from the Dasavatara) and visited Mahabali, asking the king to grant him three wishes. Arguing that one must not ask more than what one needs, the Brahmin requested the property right over a piece of land that measures "three paces", to which Mahabali agreed little knowing that he was dealing with a god. Soon, the dwarf grew in size and with covered everything Mahabali ruled over in just two steps. For the third step, Mahabali offered his head, which Vishnu agreed to and placed his foot over the king's head, thus, casting him into the nether world. But impressed by Mahabali's devotion and good deeds, Vishnu allowed him to return to earth once a year — it is this annual visit that is celebrated with much fanfare as Onam. Every year people make elaborate preparations to welcome their King whom they affectionately call Onathappan. They wish to please the spirit of their King by depicting that his people are happy and wish him well.

Another legend for this festival is related to Parashurama, an incarnation of Vishnu who is credited in Hindu mythology to have founded the Western Ghats of India. According to this legend, Vishnu got upset with the kings and the warrior caste who were constantly at war and were arrogant over

others. In this condition Vishnu took the avatar of Parashurama means "Rama with an axe". In the era of King Kaartavirya. This king persecuted and oppressed the people, the sages and the gods. One day, the king came to the hermitage of Parashurama and his mother Renuka, where while Parashurama was away, the king without permission took away the calf of their cow. When Parashurama returned, he felt the injustice of the king, called him for war and killed the king along with all his oppressive warriors. At the end, he threw the axe. Wherever the axe fell, the sea retreated, creating the land of Kerala and other coastal western parts of Indian subcontinent. Another version states that Parashurama brought Namboodri Brahmins to southwestern parts of India, by creating a mini-Himalaya like mountain range with his axe. According to these legends, the Onam festival, celebrates Parashurama's creation of Kerala by marking those days as the new year.

Rakshabandhan: This Hindu festival explains and celebrates the bond of brother and sister. The date of Rakshabandhan varies from year to year since Hindus follow a lunar calendar for religious celebrations. It is celebrated on the full moon in the month of Shraavana in the lunar calendar. In Rakshabandhan sisters tie a protective thread around the right wrist of their brothers. Brothers give gifts and promise protection to their sisters. The word "rakshabandhan" means "tie of protection." This festival is also known as about the openness of Hinduism. One of the most popular legends surrounding Rakshabandhan concerns the connection between a Hindu queen and a Muslim king. The most widely repeated legend related to Rakshabandhan concerns Rani Karnavati, a 16th-century queen of the city of Chittorgarh in the western Indian state of Rajasthan, and the Muslim Mughal Emperor Humayun. The legend tells that the Chittorgarh was threatened by a neighboring sultan and Rani Karnavati knew that her troops could not prevail. So, she sent a rakhi to the even more powerful Mughal emperor Humayun. By the bonding of Rakhi Humayun and Karnavati became brother and sister and he sent troops to protect her. Besides this famous legendry some more legendry is also existing in the oral tradition of India. In this festival everyone gets ready early and gathers for the worship of the deities. After invoking the blessings of the Gods, the sister performs brother's arti, puts tika and chawal on his forehead and ties Rakhi.

Janmashtmi: This is the festival of birth celebration of Lord Krishna. The festival always occurs on the day of Ashtami in Hindu month Shravan. Which means the eighth day of the waning-moon, Hindus believe that Lord Krishna was born on this day. The legend behind Lord Krishna's birth, and his triumph over enemies, makes for one of Hindu folklore's most loved tales, and is recited amongst the devotees with much fervor on Janmashtami. According to the legendry Kingdom of Mathura was under deep peril and misery under the rule of King Kansa. The merciless king had a sister known as Princess Devaki, whom he loved dearly. He married his little sister to Vasudeva with

much splendor and magnificence, when suddenly the cloud roared with a prophecy that the eight sons of Devaki and Vasudev would be the cause of his death. The merciless king took over the loving brother and he immediately threw Devaki and Vasudev into the prison or 'Karagriha'. Kansa went on to kill all the six children that Devaki had borne in all those years. However, the seventh child who was informed to be miscarried was mystically transferred to the womb of Princess Rohini in Vrindavan who grew up to become Balram, the elder brother of Lord Krishna. During the birth of Lord Krishna, Vasudev was guided by the Gods and carried the baby to Vrindavan to the house of Nanda and Yasoda. It was a night of frightening thunderstorm and heavy downpour. But Vasudev kept walking with Krishna atop of his head in a basket, braving the storm and the choppy river. To protect Krishna, Shesh Nag (the Snake God) also quietly rose from behind to cover his lord from the rains, as Vasudeva made his way. When he reached Nanda's place, Vasudeva kept his son and returned with their girl child born on the same day to present her to King Kansa in the hope that he wouldn't harm her because the prophecy had said that the eight 'sons' would be the one to kill him. But the merciless Kansa held the child and tried to throw her against a rock when she rose to the air taking the form of Goddess Durga, warning him about his death. And sure enough, years later, Krishna took the life of Kansa and Mathura was reinstated as a happy kingdom once again. The actual celebration of Janmashtami takes place during the midnight as Sri Krishna is believed to be born on a dark, stormy and windy night. In the different part of India this festival is known by different names. In Maharashtra this is known as Dahi handi, In Gujrat this is known as Makahan Handi. In north east Indian state Manipur and Asam its known as Ras lila. In Odisha and West Bengal its known as Sri Krishna Jayanti.

Navaratri: Navratri--or the nine sacred days--mark the most auspicious days of the lunar calendar according to Hinduism. The festival is celebrated in the first nine days of bright half of the Hindu calendar month Ashvin Those nine days is dedicated to Maa Durga (Godess Durga) and her nine incarnations. Each day will for the one incarnation. All the nine days of Navratri festival are dedicated to each distinct avatar of the goddess. In India people's various faiths behind the celebration of the nine-day festival. In all stories have one thing in common – the victory of good over evil. The main and prominent story is about the battle in between Maa Durga and demon Mahisasur. It is believed that goddess Durga battled with the buffalo demon Mahishasura to restore peace and Dharma. She was successful and her success is commemorated every year through the Durga Pooja or Navratri. In the different parts of the India Navratri incorporated different small worships and pooja. In Eastern side and West Bengal this is celebrated by the prominent name of Durga-Puja. In Noth India this is celebrated by the name of shakti puja or Durga pooja. In Gujrat this is celebrated with the Garba dance.

In Goa its celebrated with the special Arti and Maha Arti. In the Kerla its celebrated with the name of Vijyadashmi. In Maharashtra its celebrated along with the worship of Goddess “Matangi”. In Telangana it is celebrated with the worship of goddess “Sarsawati”.

Dussehra: This festival is celebrated as a last day of Navratri. The day culminates a 9-day fasting period of Navratri in the Hindu culture. The day also coincides with immersion of the idol of Goddess Durga. On a large scale the day is celebrated to commemorate the killing of Ravana by Lord Rama. it is believed that the celebration of Dussehra started in the 17th century, when the king of Mysore ordered the celebration of the day on a grand scale. Ever since, the day is celebrated with great fervor and energy. There are a lot of mythological legends and faiths associated with the day. According to Ramayana, Ravana was killed by Lord Rama on this day as revenge against the cruel act of kidnapping Goddess Sita. Another Mythological believe is that on this day Goddess Durga killed demon Mahishasura after a long spell of cruelty and oppression by Mahishasura. Another story associated with the origins of this day is the raining of gold coins. After Kautsa asked King Raghu for 140 million coins to give an offering to his Guru in return for his knowledge, Raghuraja went to Indra for help who then asked Lord Kuber to rain coins on the city of Ayodhya. After giving 140 million coins to his Guru, Kautsa distributed the rest to the people of Ayodhya.

Karva Chauth: This festival falls on the fourth day of the Kartik month in the lunar-solar calendar. on this day married women and those reaching the marriageable age pray for the safety and long life of their husbands, fiancés or desired husbands. In so many state in India like Madhya Pradesh, Rajasthan, Punjab, Haryana, Himachal Pradesh and various parts of Uttar Pradesh observe the festival devotedly. Women observe rigorous fasting on this day, without even drinking a glass of water after sunrise. It is only when the moon rises that they eat something to break their fast. During this time, men are generally expected to feed the first bite of food to their wives. In among the Hindus there are some legendry about the Karva Chauth. Some peoples believe upon a story of Mahabharat. According to the Mahabharat Karva Chauth can be traced back to the time when Savitri begged the god of death, Lord Yama, for her husband’s soul. Another episode in the epic states that when Arjuna went to the Nilgiris to pray and meditate for a few days, leaving the rest of the Pandavas and Draupadi behind, his wife got worried and she sought Lord Krishna’s help. He advised her to fast for Arjuna’s well-being and reminded her how goddess Parvati did the same for Shiva’s safety. Draupadi adhered to the fast, observing all its rituals carefully and soon Arjuna returned home. Some peoples believe upon other legendries. Most famous story of Veeravaati is also associated with the festival Karwa chauth. In that story Veervati was the only sister among her seven brothers and hence she was the most loved one in the family. After her marriage, her first Karva Chauth was celebrated at her parents’

home. Although she observed a strict fast from sunrise, the young woman desperately waited for the moon to come out. Unable to see her thirsty and hunger stricken, her brothers created a mirror in a peepal tree that made it look like the moon had risen. Veervati mistook this as moonrise and broke the fast. However, the moment she took the first morsel in her mouth, she received a message from her servants that her husband was dead. Heartbroken, Veervati cried all night until a goddess appeared in front of her and asked her to observe the Karwa Chauth fast again with dedication and devotion to see her husband alive. Veervati followed the advice and observed the fast again. Seeing her devotion Yama, the God of death, was forced to bring her husband back to life. After full day fasting without water women break their fasting after moon rise, which they look at through a sieve while offering their prayers. According to the religious text, the moon on this day is said to be representative of Lord Shiva or Lord Ganesha.

Dhanteras: This festival is also known as dhantrayodashi, dhanvantarti trayodashi. This is celebrated on the thirteenth lunar day of Krishna Paksha (dark fortnight) in the Vikram Samvat Hindu calendar month of Ashwin. Dhanteras marks the beginning of Diwali, which is celebrated to honour the homecoming of Lord Rama to Ayodhya after 14 years of exile. Hindus worship wealth Lord Kubera and Goddess Lakshmi on this day. It is believed that Goddess Lakshmi came out of the ocean during the churning of the milky sea with a pot of gold and wealth on this day. To pay respect to them and holding the wealth's, devotees pray to Goddess Lakshmi and Lord Kubera on the auspicious day of Trayodashi. People clean their houses and decorate it before the dhanteras puja. They also make imprints of little feet of Goddess Lakshmi by rice flour at the entrance of the house and near the temples. People also deck up the entrance with flowers, colours, rangolis and light up diyas all around the place. devotees place seven grains in front of goddess Lakshmi's idol or picture. There is also a custom of buying silver utensils and gold ornaments in order to bring luck and prosperity in the house. Peoples also worshiped God Dhanvantari also on the occasion of Dhanteras, Dhanvantari is the god of Ayurveda who imparted the wisdom of Ayurveda for the betterment of mankind and to help rid it of the suffering of disease.

Diwali: Diwali or Deepavali, is Sanskrit word. This word meaning is "rows of lighted lamps". This is a Hindu-originated festival celebrated in India and outside of India by Indians Hindu. During festival clay lamps known as diyas are lit to signify the victory of good over evil. It's observed on the 15th day of Kartik, the holiest month in the Hindu lunar calendar. Thus, Diwali falls in either October or November each year. In Diwali peoples worships the goddess of wealth and prosperity Lakshmi. Some believe it falls on her birthday and the day she married to Lord Vishnu. The most

famous believe for the celebration of the Diwali is related to Rama. King Rama's return to Ayodhya after he defeated Ravana. Peoples welcome him by lighting rows of clay lamps. In southern India, people celebrate it as the day when Lord Krishna defeated the demon Narakasura. In western India, this festival marks the day when Lord Vishnu sent the demon King Bali to rule the nether world. Another major legendry in Hindus for Diwali is based on a story night of Yama and Nachiketa on Kartik Amavasya. That story is for right vs wrong, true wealth versus transient wealth, knowledge versus ignorance.

However, despite all the differences, a common symbolism remains – it's an important occasion that marks the victory of light over darkness, knowledge over ignorance, and good over evil. With this in mind, people ensure homes are spick and span, bright lights are everywhere and a feast is prepared to take part in the start of new beginnings. families would prepare a variety of delectable sweet and savoury treats in different colors and flavors.

Govardhan Pooja: Govardhan Pooja is celebrated immediately after Diwali in commemoration of Lord Krishna's victory over Lord Indira. Govardhan was a small hillock that was located near Mathura at a place called Braj. According to the Vishnu Puraan, that the town of Gokul used to worship Lord Indira because of their belief that he was the one who provided them with rains. The rains were important because their life and livelihood depended on it. However, Lord Krishna told the people that it wasn't Indra but Govardhan Parvat that brought the rains and therefore the latter should be worshipped and prayed to. When the people followed this ordinance, Lord Indira's wrath on the people resulted in heavy rains. Lord Krishna then saved the people of Gokul by first praying to Govardhan Parvat and then lifting it on his little finger under which the people took shelter from the rains. This day is celebrated under different nam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significance of the festival that is prevalent in that area. In Maharashtra this festival is known as Gudi Padwa. Some part of U.P and M.P its known as Annakut, In Gujrat this is known as Gujrati New year. On this day devotees prepare large and lavish meals that are offered to Lord Krishna.

Bhai dooj: Bhai Dooj is a most prominent and legendary festival of India when sisters make a pray to God for their dearest brothers to get a long living and prosperous life. Sisters perform puja and tika ceremony as well as gets return gifts from brothers. It is also called in India at various places as Bhau Beej (in the Goa, Maharashtra and Karnataka), Bhai Tika (in Nepal), Bhathru Dwithiya, Bhau-deej, Bhai Phota (in Bengal), and Ningol Chakuba (in Manipur). As per the Hindu calendar, it is celebrated on the second day of fortnight or shukla paksha (new moon) in the month of Kartika. There are a number of legends associated with Bhai Dooj and some of them are pretty

interesting. According to one of them, Lord Yama, also known as Yamraj (the god of death) visited his sister Yami one day. She welcomed him with an aarti, garland and put tilak on his forehead. She also offered him sweets and special treats. Overwhelmed by her gesture, Yamraj announced that brothers who receive the similar ritual (aarti, tika and sweets!) from their sisters on this day will be granted with long and healthy life. Therefore, this festival is also known as Yamadvitiya. According to another legend, Lord Krishna killed demon kind Narkasur on this day. After this, he visited his sister Subhadra who welcomed him with aarti, tilak, garland and sweets.

Chhath pooja: Chhath means sixth, this festival falls on the sixth day of the month of Kartika. This is the one of the most ancient Hindu Vedic festivals, is celebrated with much aplomb and gusto in states such as Bihar, Jharkhand and eastern Uttar Pradesh. The festival that is observed over a period of four days is dedicated to lord Surya, the Hindu Sun god and his wife Usha. Over the days, pujas are performed to acknowledge their blessings and support in sustaining life on earth. All through the four days, different rituals are observed. Fasting, holy bathing, fasting, abstaining from drinking water, offering prasad and prayers to the rising and setting sun form integral part of the four-day festivity.

Peoples look on the two epics Mahabharat and Ramayan as the background of this festival. It is believed that Draupadi along with the Pandavas, upon advice from the noble sage Dhaumya, performed Chhath Puja. As she worshipped the Sun God, Draupadi saw all her problems disappear and the Pandavas were able to win back their lost kingdom. Another belief is that as Sita was returning to Aodhya with Lord Ram, she observed a fast and prayed to the Sun God in the month of Kartik. So that Chhath Puja has become a significant festival for Hindus ever since.

References:

Kane, P.V; Dharmshastra ka itihās; Uttarpradesh Hindi Sansthan; 2010, Lucknow
Dinkar, Ramdhari Singh; Sanskriti ke char adhyay; Lokbharti Prakashan; 2011, Allahabad.

Web Links-

<https://www.sscnet.ucla.edu/southasia/Culture/Festivals/Festiv.html>
www.travelchannel.com
<https://indiasomeday.com>
www.traveltriangle.com
www.indiacelebrating.com
www.wikipedia.com

04 언어&문화 연구 Language & Culture



신의 나라 인도: 신이 되고 싶은 남자

신이 되는 사람들

'명상의 나라', '신비의 나라', '신의 나라'라는 수식어로 불려지기도 하는 인도에는 '갠지스강의 모래알만큼이나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힌두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에 3천 3백만 명의 힌두신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힌두교도 모두가 동일한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힌두교의 삼신으로 알려진 쉬바(Shiv), 비슈누(Vishnu), 브라흐마(Brahma) 그리고 가네샤(Ganesh), 락쉬미(Lakshmi), 두르가(Durga) 등 힌두교의 유명한 신들은 거대한 사원에서 매일 수천 만 명의 신도에게 경배를 받으며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다.

인도에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신들 이외에도 신으로 추앙받는 성직자가 있다. 대중적인 인도의 성자 사이 바바(Sai Baba)는 마하라슈뜨라 주(state)의 쉬르디 마을에서 태어났다. '쉬르디 사이 바바(Shirdi Sai Baba)'로 알려진 그는 물로 성화를 붙이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영적 능력을 가진 성자로 추앙되기 시작했으며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모여들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공중부양을 하거나 다양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도왔으며, 사람들에게 램(Ram), 끄리슈나(Krishna), 쉬바(Sh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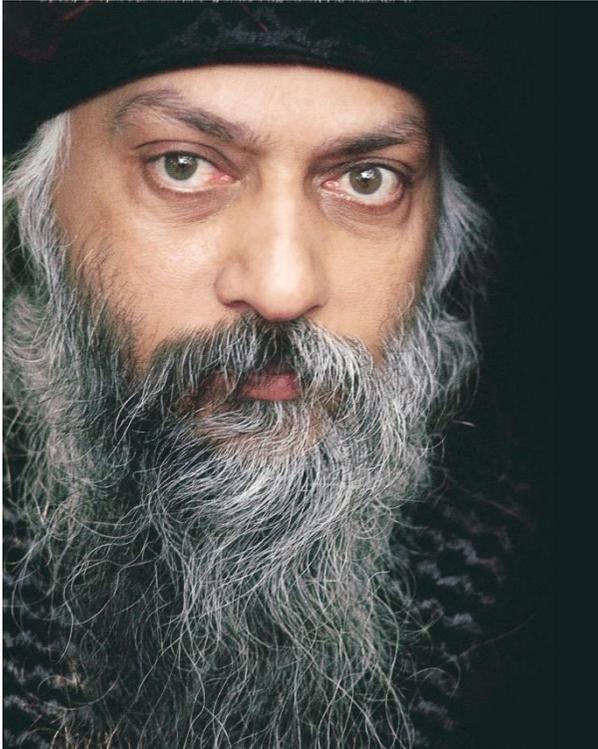


<사이 바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힌두인지 무슬림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평생을 이슬람 사원(모스크)에 거주하였다. 그의 가르침에는 힌두요소와 이슬람요소가 복합되어 있었으며, 수천 명에 달하는 엘리트 계층에 의해 숭배되었다.

요가 수행자 마하리시 마헤시(Maharishi Mahesh)는 초월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법을 창시하고 발전시켰으며 1950년대 중반부터 외국을 순례하며 강연했다. 1968년에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가 그의 강연에 참석하면서 비틀즈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정신적 구루(스승)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는 1970년대 다이내믹 명상(Dynamic Meditation)을 통해 서양의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그는 기존의 종교 및 사상에 반대하였고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뿌네(Pune) 지역에 아슈람²⁵을 설립하였다. 아슈람에서는 다양한 테라피와 명상이 이루어졌으며, 그의 개방성과 독특한 명상법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그들과 갈등을 빚었다. 그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오리건(Oregon) 주에 '라즈니쉬 포럼'을 설립하고 공동체를 조성하여 생활하였으나 여러 번 범죄의혹에 휘말려 미국의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추방당했다. 이후 인도로 돌아온 그는 건강이 악화되었고 뿌네의 아슈람에서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오쇼 라즈니쉬>

사이 바바와 그의 뒤를 이은 사트야 사이 바바(Satya Sai Baba), 마하리쉬 마헤쉬, 오쇼 라즈니쉬 이외에도 인도에는 국제크리슈나의식협회(ISKCON)와 스리 스리 라비상가르(Sri Sri Ravi Shankar), 바바 람데브(Baba Ramdev)와 같은 성직자의 신흥종교교단 및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설법과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교단과 차별화하여 도시 중산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에 신자와 스폰서를 확보하고 있어 충분한 자금력도 갖추고 있다. 탁월한 언변으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성직자와 교단이 있는가 하면 자국 내 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단이 있기도 하다.

구르미뜨 람 라힘 씽(Gurmeet Ram Rahim Singh)

²⁵ 아슈람(Ashram)-성직자들이 수행하며 머무르는 곳

1) 유죄판결

2017년 하리아나(Haryana) 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구르미뜨의 유죄 판결일 것이다. 구르미뜨는 1948년 하리아나의 시르사 지역에 설립된 교단 '데라 사짜 소다(Dera sacha souda)'의 대표 성직자이다. 그는 두 건의 살인미수와 강간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약 400명의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불임수술을 강요했고 무기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데라 사짜 소다' 교단은 신장, 혈액, 안구 등 장기 기증으로 지난 십 년간 기네스 북에 기록을 세웠다.

구르미뜨의 실체를 밝혀낸 지역 신문기자 람짠드라 차뜨라빠띠가 2002년 10월에 암살당했다. 암살자로 지목된 두 사람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총기와 총기 허가증은 '데라 사짜 소다'의 매니저 소유로 밝혀졌다. 하지만 람 라힘은 신문기자의 죽음에 대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행한 다양한 활동(알코올 중독자 구제, 마약 및 매춘 단절)에 반대하는 조직이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말했다. 하리아나, 뽀잡(Punjab), 라자스탄(Rajasthan), 우따르 프라데쉬(Uttar Pradesh),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에 아슈람을 설립하였고, 하리아나 시르사 지역의 아슈람은 거대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레스토랑, 탁아소, 병원 호텔 시설도 갖추고 있다



<화려한 의상이 돋보이는 구르미뜨>



<유죄판결에 항의하며 폭동을 일으키는 지지자들>

2) 슈퍼 바바

그는 사이바바, 오쇼 라즈니쉬, 스리 스리 라비상까르처럼 설법과 요가 수행, 정신수련과 명상뿐만 아니라 감독, 제작자, 영화배우, 음악가, 가수로 1인 다역을 맡은 영화 '신의 전령(Messenger of God)'를 촬영하기도 했다. 영화에서 슈퍼 바바²⁶(Super Baba)로 등장하여 마약 거래상과 매춘 알선자들을 처단하는 정의의 사도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을 '현자' 혹은 '성자'라고 칭하지만, 최신식 평안함을 누리면서 값비싼 차량을 소유하고 평범하지 않은 의상을 입고 공식석상에 등장한다. 보석이 박힌 선글라스와 알라딘 신발, 뽀

²⁶ 바바(Baba)-성자 혹은 영적 지도자

짜이는 화려한 무늬의 의상은 그가 즐겨 입는 옷차림이다. 독특한 의상으로 인해 그를 종교 성직자라기 보다는 볼리우드의 슈퍼 스타라고 여길 것이다.

‘데라 사짜 소다’에는 정치조직 및 군대가 형성되어 있다. 정치 조직은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에게 투표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지방 의회 선거에서 인도국민당(BJP)를 지지하였으며 BJP의 후보자들은 그를 찾아와 머리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하리아나 주 법원은 구르미뜨에게 여성신도 2명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구르미뜨의 유죄판결에 반발하며 지지자들은 격렬한 폭력 시위를 일으켰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군대를 비롯 수 십 만 명이 집결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시민과 언론은 교단에 소속된 유권자들의 투표권 상실을 우려하며 폭력시위를 진압하지 못한 하리아나 정부의 비겁함을 강렬히 비난했다. 샤흐 마스따나에 의해 1948년에 설립된 교단을 1990년에 이어받은 구르미뜨가 거대한 교단을 지속시키며 무조건적인 헌신을 맹세한 수 십만 명의 추종자를 이끌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져본다.

3) 신의 전령



<구르미뜨의 영화 '신의 전령'>

‘데라 사짜 소다’가 설립된 뵘잡, 하리아나, 라자스탄(강가 나가르)에서 구르미뜨는 저명한 성직자이며, 신자들은 대부분 이 지역의 달리트(Dalit) 계층에 속하는 하층민들이다. 이 지역의 한 가지 공통점이자 특징이라면 지역민들 중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이다. 구르미뜨는 하층민들 즉, 알코올 중독자들을 구제한 것이다.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가족들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바로 그가 해낸 것이다.

선행을 베풀어 갈 곳 없는 하층민을 구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미망인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신임을 얻었다. 하층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그를 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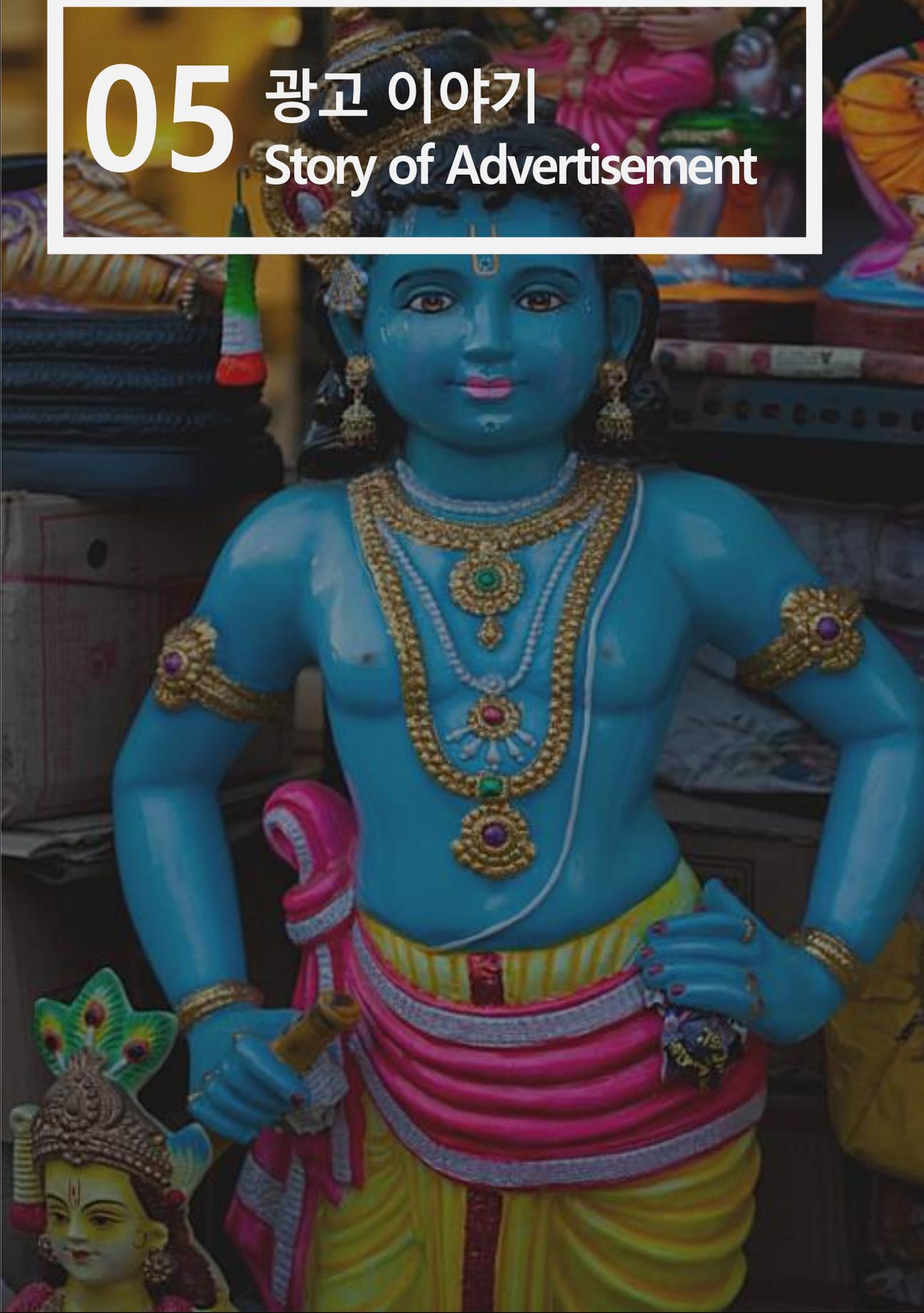
존경심은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변했으며 그들은 구르미뜨를 자신의 삶을 구제해주고 삶을 지속시켜 준 신으로 여기는 것이다.

‘데라 사짜 소다’의 수 십 만 명의 신자들은 대부분 하층민으로 가난한 문맹들이다. 그들은 평등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구르미뜨와 같은 성직자와 이단적인 성향의 교단에 의지하며 생활한다. 현 사회에서 통용되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의 잣대가 아닌 ‘인간’이라는 잣대로 그들은 교단 내 공동체 생활에서 평등함을 만끽한다. 수많은 성직자의 등장과 종교교단의 설립은 인도사회의 계급적 경제적 차별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은 현 정부와 정치정당, 종교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갠지스 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인도에서 한 명의 신이 더 존재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구르미뜨와 같은 성직자는 신으로 추앙 받으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사회에서 교육의 부재와 빈곤은 하층민들이 식량과 생활 공간, 삶의 안정과 평등함을 제공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가짜 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05

광고 이야기
Story of Advertisement



광고로 보는 축제

인도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홀리와 디왈리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광고를 알아보자

홀리를 테마로 한 광고

- 1) Khulke Khelo Holi – Parachute(코코넛 헤어오일)



노년층에게도 홀리 축제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젊은이들과 동일함을 보여주며 사회에서 노년층이 배제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 Sare mael Dho Daalo-Ghadi(세제)



홀리 축제를 기회로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남성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디왈리를 테마로 한 광고

1) Big Bazaar(슈퍼마켓)



빛의 축제, 소리의 축제인 디왈리에 폭죽 대신 종이로 만든 폭죽을 소개하며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개선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2) Cadbury (초콜릿)



디왈리 축제에 멀리 떨어져있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안부를 전하며 부모와 자녀, 형제간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함을 시사한다

3) Tanishq (쥬얼리)



디왈리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이며, 크고 작은 선물을 전달하면 가족에게 서로에 대한 마음과 사랑,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사진 출처>

<https://aksharit.org/2017/03/09/ghadi-detergent-holi-ad-lacked-execution/>

<https://www.youtube.com/watch?v=gPMjKIUNGDI>

<https://plus.google.com/+BigBazaarIn>

http://www.afaqs.com/news/story/46208_Celebrate-this-Diwali-with-Big-Bazaars-Paper-Patakha

https://www.youtube.com/watch?v=QKt7A_wsq_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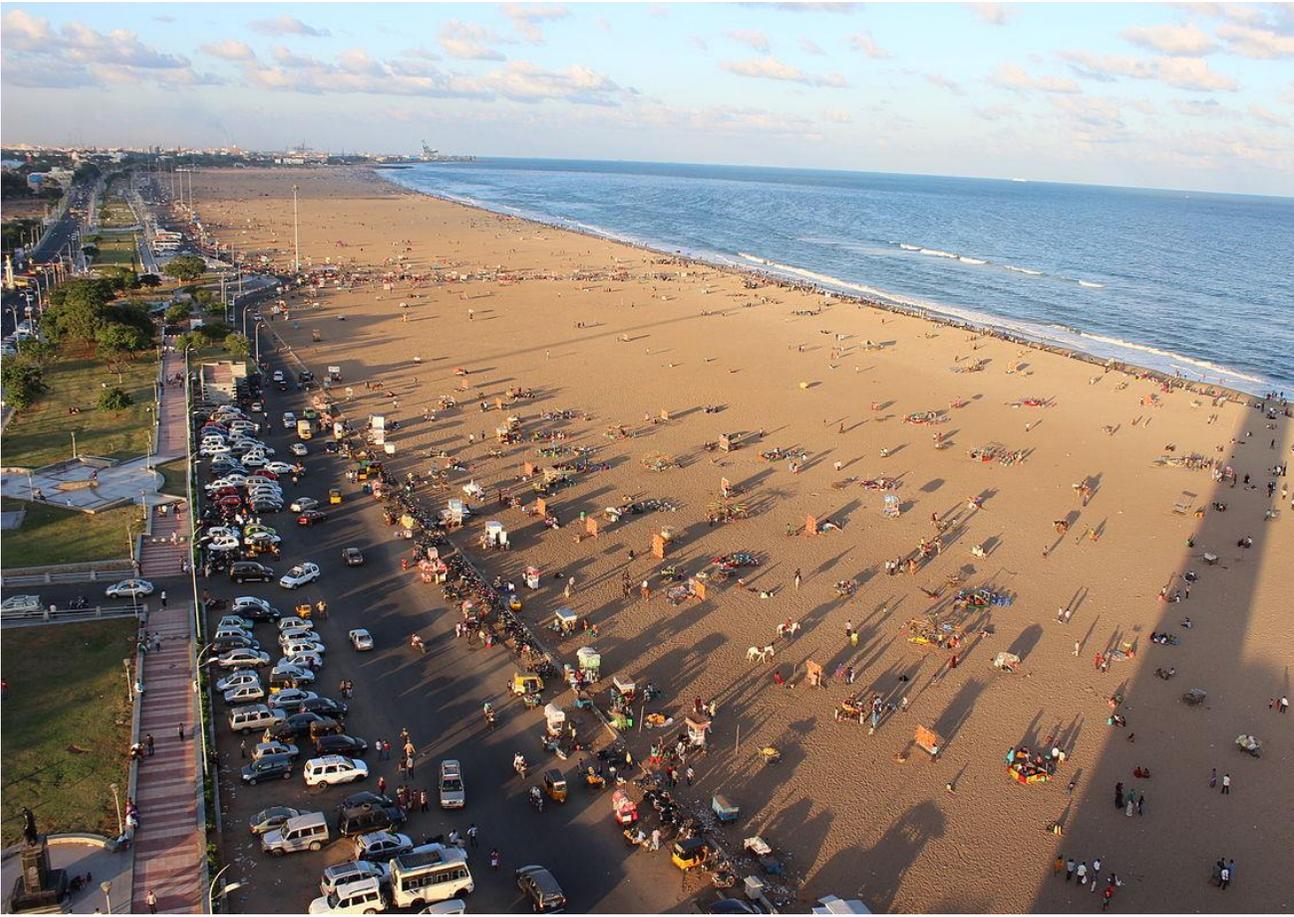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7C5gQLw3Yno>

06

여행기

Travel and Culture





남인도 Chennai

김영진
포스코 첸나이

개성넘치는 남인도: 첸나이

인도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나라!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직장인으로 첸나이에서 살며 느낀 남인도의 모습은 북인도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남인도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은 인도 속 또 다른 인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2009년과 2010년 북인도 델리 에서 궁핍한 학생으로 공부를 하며 겪은 인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2012년 첸나이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입국했다. 인도에 왔지만 다른 인도에 왔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시끄러운 경적소리와 길 위의 동물은 여기가 인도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익숙한 힌디어와 달리 공항에서 들리는 타밀어부터 많이 낯설었다. 드라비다 인종이 다수를 이루는

남인도인의 얼굴이 많이 낯설었다. 남인도 타밀나두의 수도 첸나이는 익숙한 듯하면서 낯선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첸나이에 처음 정착해서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점은 힌디어를 거의 사용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델리에서 자유롭게 타던 오토릭샤도 첸나이에서는 쉽지 않은 일 이었고, 거리의 타밀어 간판은 쉽게 적응이 안되었다.



<Audha Pooja 진행 중, 2016년>

남인도 타밀나두에서는 1월에 Pongal 연휴를 큰 명절로 여기며 집 앞에 색색의 문양을 그리며 한 해의 행운을 비는데, 북인도의 홀리와는 많이 다르다. Pongal 연휴 때 모든 회사와 상점은 문을 닫고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로 시간을 보낸다. 우리의 설날 명절과 비슷하다. Pongal 만큼 남인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은 Audha Pooja 이다. Audha pooja는 제물운을 기리는 명절로서, 소득에 중요하게 이용되는 금속 물체에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그날만큼은 생산 작업을 멈추고, 아침부터 기계를 닦고, 작업장을 청소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Pooja를 준비 한다. 기계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제사장이 직접 모든 기계를 돌아다니며, 코코넛으로 액운을 쫓고, 불을 피워 안전과 번영을 기원해주고, 직원들은 두손을 합장하며, 예의를 다한다.

현재 첸나이에 진출한 철강 업체에서 현장업무를 맡고 있다. 처음 첸나이에 와서 일을 시작 할 때, 북인도에서 가졌던 편견으로 남인도인들을 생각했지만, 생활하면서 만난 남인도 사람들은 북인도인들에 비하여, 대체로 온화라고 순한 성품을 가진 것 같다. 한국인만의 업무속도와 생산성은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중시 하고, 개인의 시간을 중시하는 모습은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직장 내에서는 상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

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물론 회사의 조직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인도와 비교한다면 친절하고, 순수한 면이 있다. 다만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남인도의 방식을 고수하는 면이 있다. 델리 NCR이나 뭄바이에서 현대식 의복을 입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남인도에서는 꾸르따와 사리를 입은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북인도와 비슷하게,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여, 간혹 업무 외적으로 불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 줘야 할 부분으로 모두 인식하는 분위기 이다. 관리자로서 막연하게 의사 발언을 가로 막기 보단,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반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만큼 업무 생산성도 높지 않고, 업무속도가 많이 느려서, 리드타임과 업무 진행 방향을 명확히 공유하고, 지시해야 한다. 처음 일을 시작하며, 적응하는데 나 또한 애를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고, 유의하며 근무하고 있다. 또한, 북인도에 대한 경쟁의식이 있는 것 같다. 북인도에 소재한 계열사와의 경쟁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을 자주 느낀다. 크리켓을 좋아하며 크리켓 경기에 열광하는 모습은 볼 때는 역시 인도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첸나이에서 현장 관리자로서, 인도인, 그 중에서 남인도 사람들과 일을 하며 야구선수의 타율을 많이 생각했다. 3할을 치는 타자가 수위타자로 인정 받듯, 10타수 10안타를 치는 타자는 없듯 말이다. 이들과 일을 하면서, 좀 더 그들과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인과 인도사람이 조직의 공통된 목표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더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같이 남인도식을 먹고 썸바에 밥을 비벼먹고, 바스마티 쌀알의 촉감을 손으로 느끼며, 비리야니의 맛을 서로 공유 할 때, 남인도 사람들도 한국인이 아닌 동료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대하여 줄 것이다. 입사 초반 자칭 "인도지역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했지만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았고, 직원들과 적잖은 갈등도 겪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맛봤다. 지금 돌이켜 보니, 결국 인도는 인도사람이 인도를 제일 잘 알고 이해 하는 곳이므로, 그들의 사고와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외국인으로 경험한 남인도 생활은 힘들지만 재미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국제 전략에서 인도는 절대로 간과 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꾸준히 인도에 투자 할 것이다.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와 친구가 되길 바란다. 지리적, 기후적, 종교적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지녀야 할 자세는 결국 존중이다. 소속감을 갖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큰 아들로 살아가는 남인도 사람들에게 회사는 평생 직장으로 여기지기 때문이다. 인도에 진출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인도 자동차 산업의 중심: 첸나이

2012년 11월 30일 밤 사회인으로 첫 걸음을 시작하며, 남인도 타밀나두의 최대도시 첸나이를 처음 왔을 때 내가 처음 본 것은 "인도의 디트로이트" 라는 명함을 증명하듯, 다양한 완성차 업체의 광고판이었다. 한국에도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첸나이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포드, 닌타, 르노, 닛산, 등 수 많은 자동차 업체의 생산 기지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를 따라 진출한 수 많은 부품사들 타밀나두 산업과 인도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첸나이의 자동차 생산기지는 첸나이 공항에서 차로 1시간 가량 떨어진, 칸치푸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정부의 전략적 정책으로 조성된 많은 공단(SIPCOT)을 중심으로 길 옆에 줄지어 서있는

대형 Car Carrier들의 풍경은 인도 자동차 산업 비중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이곳의 위용을 자랑하는 듯 하다. 첸나이 도로는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시장을 보는 듯 하며, 특히 왕복 6차선으로 재정비된 공단 도로에는 검은색 천으로 외관을 감추고 "Test Driving" 하는 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장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실어 나르는 각 회사들의 통근 버스 행렬은 교통정체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첸나이 지역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자들이 많음을 반증하는 모습이며, 이 지역 경제의 근간임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인도의 자동차 산업의 3대 지역 중에서도 첸나이 자동차 산업의 차이점은 지리적 특성을 식려, 인도 자동차 수출을 주도 한다는 점 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을 기점으로 인도는 세계 5위권 자동차 생산국가가 되었고, 따라서 중국 이후에 이어 세계 3대 자동차 산업 중심 시장이 될 것 이다. 무서운 성장을 거듭하는 인도 자동차 산업의 그 중심에 첸나이가 있다!

<다임러 공장 입구 (2013년)>



인도와의 첫 만남

인도학부

20131086 배상원

인도야, 내가 간다

2017년 여름, 1학기에 신청하였던 교환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나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공부를 하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합격하고 나 자신에게 다짐을 하며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억의 거대한 인구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바로 인도라는 국가가 나에게 조금 생소하기 때문이었다. 인도어를 전공하면서 약 1년 정도 인도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한 나라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인도는 아직도 많은 질문들로 가득한 나라이다. 수업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인도에 대한 이미지는 여름이 매우 더운 나라,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 치안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하는 나라 등 해외에서 공부한다는 설레임과 기대감보다는 내 스스로가 조심하고, 함께 가는 동기들이 서로를 도와줘야하는 그런 국가였던 것이다.

이러한 걱정을 뒤로하고 나는 8월 16일 만감이 교차하는 하는 마음으로, 인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처음 해외로 나가보는 나로서는 6시간가량의 긴 비행시간과 입에 맞지 않는 기내식이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인도에 착륙하여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말로만 듣던 인도에 내 두발로 서있다는 것과 내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거나 나쁘다라고 어느 하나 단정 지을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었다. 공항의 웅장함과 현대적인 시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런 공항 한 구석에 사람들이 바

닥에 맨몸을 누이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놀라움을 뒤로한 채 인도가 처음인 우리는 함께 지낼 졸업한 동기들을 만나 숙소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우버라는 택시 어플을 통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에도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에는 차선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질서하게 이동하는 차량들, 그 차량들 사이로 보이는 오토바이택시(나중에 알게 된 오토릭샤),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들이 새벽에 도착하여 피곤한 내 정신과 눈을 번뜩이게 해주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여 대충 짐을 정리한 후 아침이 되었고 모든 것이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델리 시내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델리 시내

델리의 중심지라 불리는 코넛 플레이스와 인근의 빠하르간즈를 둘러보기 위해 오토릭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오토릭샤는 인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개인택시(?)라고 할 수 있다. 교환학생 과정으로 인도에 와 본 동기들 중에 오토릭샤를 타고 다니면서 에피소드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이나믹하며, 처음 타는 순간부터 한국에 귀국하기 전까지 적응하기 힘든 이동수단이었다. 오토릭샤 체험의 가장 묘미는 릭샤왈라(릭샤 운전사)와의 가격협상이다. 한국 돈 1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더 받아보겠다고 외국인을 속이는 그들과의 협상은 아마도 힌디어를 더욱 잘 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자산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우리는 한국원화 약 540원 정도를 지불하고 코넛 플레이스 인근 지하철역까지 그리고 다시 지하철역에서 또 빠하르간즈까지 오토릭샤로 이동하였다. 코넛 플레이스는 델리의 시내 중심가이며, 마치 부산의 서면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코넛 플레이스의 중심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상점들이 위치해 있다. 다국적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상점들이 들어 서있다. 중심부에는 높은 빌딩과 호텔, 은행, 대기업 건물들이 즐비해 있다. 코넛 플레이스의 분위기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던 인도와는 달라서 또 다른 인도를 경험하게 된 것 같다. 우리는 코넛 플레이스의 로컬 햄버거 가게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인도 여행객들이 한번쯤은 꼭 방문 한다는 빠하르간즈로 이동하였다. 빠하르간즈에 도착한 후에는 다행히 공항에서만만큼의 놀라움은 없었다. 내가 예상했던 인도 그 모습 그대로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길거리에는 사탕수수 음료수를 파는 상인부터 과일 및 잡동사니들을 판매하는 상인과 그 옆을 어슬렁거리면서 지나다니는 소, 오토릭샤들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내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내가 상상하던 인도와 가장 흡사했기 때문이다. 뿌듯함이 밀려오기도 전에 우리는 북적거리는 빠하르간즈의 인파를 피하여 현지 음식을 먹기 위해 루프탑이 있는 식당으로 향했다. 그렇게 나는 인도에서의 8월을 적응하며 정신없이 보내었다.

바라나시 여행



<오토 릭샤>

9월 개강 이후 통학을 하면서 인도생활을 적응해가면서 생활이 생겼고 이제는 그 생활에 지루함을 느낄 때 즈음에 함께 수업을 들으러 온 선·후배 동기와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인도라는 국가가 넓은 만큼 가볼 곳도 많고, 방문한 도시도 다양하지만 내가 이번 여행기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도시는 바라나시(Varanasi)이다. 인도에서 가장 인도를 느낄 수 있었던 지역이기에 따즈마할, 고아, 푸쉬카르, 암리차르를 뒤로하고 바라나시를 소개하려고 한다. 바라나시를 방문했던 시기는 9월말, 인도의 더위가 조금씩 꺾이고 있을 시기에 우리는 인도하면 떠올리는 따즈마할과 갠지스 강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어 계획을 잡았다. 델리에서 바라나시까지 비행기로 약한 시간 삼십분 정도 걸렸다. 바라나시에 도착한 나는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일까,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의 웅장함에 비해 바라나시 공항은 정말 한적 그 자체였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나는 바라나시에 조금 더 정감이 생긴 것 일 수도 있다. 숙소를 정하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너무 더운 낮 시간을 피해 늦은 오후에 갠지스 강 가트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인도에서 거대한 규모의 바다와 강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예상과 다르게 갠지스 강에 도착하는 순간 넓은 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인도를 3차례 방문했던 선배가 바라나시 갠지스 강만큼 생각을 비우고 정리하기 좋은 곳은 없었다던 말이 뇌리에 스쳤다. 왜 힌두교도들이 인생에 꼭 한번은 갠지스 강에 순례를 오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고요한 갠지스 강가의 가트를 거닐며 경치를 감상하고 저녁에 있을 기도식(뿌자)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가트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에 봤던 갠지스 강이 평온한 느낌이었다면 저녁에 맞이한 갠지스 강은 또 다른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디아(등잔)를 갠지스 강에 띄우며 각자의 소망과 소원을 비는 모습들과 강물에 비친 조명들이 어우러져 또 다른 인도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보트를 타고 메인 가트 주변에서 뿌자를 보고 짧은 바라나시 일정을 아쉬워하며 가트주변을 걸었다. 우



<바라나시 메인 가트의 아르띠>

리는 갠지스 강에 대해 서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우리의 눈을 의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분명 사람의 형체인 것이 불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멈추어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몇 분이 지난 후에야 수업시간에 들었던 갠지스 강가의 화장터가 떠올랐다. 가트를 산책하면서 화장터까지 온 것이다. 사후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고 그러한 시체를 화장하여 재를 뿌린 강물 속으로 자신의 몸을 씻어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시야에 동시에 들어오는 순간 정말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격하지도 차분하지도 않은 애매한 감정이 와 닿았다. 그렇게 바라나시에서 짧은 여행을 마무리 하였다.

인도 여행 중 가장 인상적인 장소를 꼽으라 한다면 인도의 아름다운 장소와 대표적인 유적지들을 뒤로 한 채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갠지스 강이 있는 바라나시라고 말 할 것이다. 아직도 내 기억 속에는 그 때 당시의 그 감정이 생생히 남아있다. 인도 방문을 계획하는 누군가에게 바라나시를 꼭 방문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갠지스 강변의 화장터>

기차로 떠나는 인도

인도학부

20160968 이정석

'인도 여행에서 기차를 탈 줄 알면 인도여행의 반은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교환 학생으로 온 1학기 동안 여행을 많이 했지만 기차여행을 해 본 경험은 없다. 그래서 기차여행에 대해 현지 대학의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 인도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과 선배들이 인도에 온다는 말을 들었다. 기차를 타고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우다이푸르'에 같이 가기로 했다. 혼자서는 기차여행에 대해 두려움이 조금 있던 선배들과의 여행준비를 시작하고 기차표를 전부 예매했다. 여행 가기 하루 전 인터넷 블로그에서 인도 기차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는데 '인도의 기차와 한국의 기차는 절대 똑같은 기차가 아니다.' 라는 구문을 보고 솔직히 같은 기차인데 얼마나 다르겠어? 라는 안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음날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를 처음 타는 마음에 마냥 설레기만 했는데 기차를 타 본 선배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인도의 기차는 여러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예매한 티켓은 슬리퍼 칸(sleeper coach)이었다. 슬리퍼 칸에는 에어컨이 없는 침



<플랫폼에 정차해 있는 기차>

대석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왜 선배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람이 기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북인도는 겨울이 춥고 게다가 밤에 시속 70~80km로 달리는 기차 안으로 칼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오들오들 떨면서 1인용 침대에 두 명이 서로 껴안고 12시간을 갔다. 슬리퍼 칸에서 하룻밤을 보낸 우리는 이것을 교훈삼아 우다이푸르 시장에서 담요를 샀다. 돌아오는 기차도 슬리퍼 칸이었고, 역시 칼바람은 어김없이 들어오고 있었고 서로 껴안고 있는 우리를 본 인도인은 낄낄대며 웃고 있었다. 기차가 도착역에 가까워 질 때쯤, 다른 칸에 있던 두 명과 내릴 준비를 하자는 통화를 하고 입구를 향해 갔을 때, 내리지도 않는 인도인들이 입구를 빼곡하게 막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의 비웃음에 화가 살짝 나 있는 상태였고, 복도를 막고 있어서 그들을 밀치고 문까지 겨우 갔을 때, 문 앞에도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는 그들을 보고 빨리 문을 열라고 했으나 문을 안 열어주고 이곳은 내리는 역이 아니라고 막아서는 것이었다. 그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때까지 배운 힌디어를 총동원해서 빨리 비키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기차가 천천히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막아서는 사람들을 전부 밀치고 강제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 '이쯤이면 발이 땅에 닿아야 하는데 왜 안 닿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는 그대로 땅바닥으로 굴렀다. 떠나는 기차 안에서 길을 막고 있던 인도인들이 나를 향해 박장대소를 하고 있었다. 기운 없이 숙소로 돌아오고 나서 왜 처음에 선배님들의 표정이 그랬는지 이해가 되었고 다음부터 기차를 탈 때는 상위 등급을 이용해야겠다는 커다란 교훈을 준 첫 기차여행이었다.



<기차 슬리퍼 칸의 내부>

07 내가 경험한 인도 축제 My Experience





디왈리 축제

김지윤
인도언어문화전공

디왈리는 집마다 수많은 작은 등불을 밝히고 힌두교의 신들을 맞이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힌두교 3대 축제 중 하나이다. 인도에 있는 동안 디왈리를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다. 3대 축제 중 하나여서 기대가 됐다. 디왈리가 다가오기 시작하자 인도인들은 크리스마스처럼 집 앞을 꾸미기 시작했다. 사람들도 살짝 들뜬 것 같아 보였다. 내가 살던 집은 디야(Diya, 촛불)를 현관문 양쪽에 놓았다. 이 축제 기간에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여신이 집에 잘 찾아오도록 집 안팎 구석구석에 등불을 밝힌다고 한다. 디왈리 전날에 집 앞 단골 가게에 라두(Ladoo)를 사러 갔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Happy Diwali"라고 인사해주셨다. 백화점도 디왈리 축제로 예쁘게 꾸며놓았고 디왈리를 맞이하여 세일 행사도 하고 있었다.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를 빌려주셔서 사리를 입고 델리 시내를 돌아다녀 보기도 했다.

디왈리 당일에는 평소에 북적북적하던 백화점도 문을 일찍 닫았고, 도로에 차들도 거의 없었다. 우리는 네루대학교 교수님이 디왈리 날 교환 학생들을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해주셨다. 교수님

이 사는 아파트에도 베란다에 대부분 집이 장식돼 있었다.

직접 만드신 인도 음식으로 교수님 가족분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교수님 가족분들이 뿌자(Pooja) 의식을 치르셨다. 사뭇 진지했다. 이렇게 뿌자를 가까이 본 것은 처음이었다. 종교뿌자 의식을 하고 다 같이 집 앞에 나갔다. 그 앞엔 아파트 주민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었다. 모두 같이 폭죽을 쏘며 재미있게 놀았다. 하기 전엔 다치진 않을까 걱정됐었는데 직접 해보니 여러 개의 폭죽을 터뜨리고 하지는 않아서 생각만큼 위험하진 않았다. 교수님께 우리가 집에 가기 전에 'Soan Papdi'라는 미타이를 선물 받았다. 달고 잘 부서지는 케이크 같았다. 인도 가정집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디왈리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의 문화를 가까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교수님께 인사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네루대학교 안에서도 디왈리 축제를 즐기고 있다고 해서 학교를 구경하러 갔다. 학교 캔틴에서도 행사를 하고 깔리 신의 모형도 보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 기숙사 입구마다 학생들이 예쁜 문양들을 색색의 가루와 디야로 꾸며놓았다. "Happy Diwali"라고 적은 곳도 있었고, 공작(인도 국조), 가네샤 등 다양하게 그려놓았다.

집에 와서도 새벽에 아직까지도 밖에서 웃으며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디왈리 축제를 하면서 폭죽을 전국에서 터뜨려서 그런지 디왈리가 끝난 이후로 델리의 공기가 매우 안 좋아졌다. 너무 뿌여서 도로가 잘 안 보일 정도 였다.

인도의 디왈리 축제는 인도인에게 크고 중요한 축제라는 것을 느꼈고, 인도 교수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HOLI FESTIVAL

인도학부
진주영

'홀리'축제는 인도에서 매년 열리는 힌두교 축제이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됐음을 축하하는 축제임과 동시에 인도 축제 가운데 가장 화려한 축제이기도 하다. 이 축제 때에는 서로에게 색가루나 색 물감을 던지고 문지르거나 뿌린다. 이 날 만큼은 서로의 카스트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물감을 던지고 문지를 수 있는 날이라서 모두가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홀리'는 인도의 축제이지만, 부산 해운대에서도 매년 3월에 즐길 수 있다. 올해 3월에 개최했던 축제가 제 7회였고, 매년 많은 한국인들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축제를 같이 즐기고 싶단 생각에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로 향했다.

'홀리'축제를 즐기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해운대에 갔는데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곳이 한국이 맞나?'싶을 정도로 많은 인도인들로 해변이 붐비고 있었다.

입장표를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현장에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현장에서 표를 구매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를 구매하면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

표를 사고나서 축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감가루를 사러 갔다.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 사람당 3가지의 색을 샀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등 많은 색깔을 다양하게 나눠 사면서 축제를 즐길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인도인들이 자주 먹는 간식을 먹기 위해 간식코너에 갔다. 거기엔 '사모사'가 있었다. 만두같이 생긴 것이 맛있어보여서 친구들과 하나씩 물고 짐을 맡기러 가는데 인도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났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맛일뿐더러 낯선 향이었지만, '인도축제를 즐기러 갔으니 음식도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먹었다. 사모사를 먹고 짐을 맡기고 우리는 축제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모든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해변에 모인 동시에 축제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했다. 한국말을 잘하는 DJ의 큰 목소리와 함께 축제도 시작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물감을 던지고 문질러야 하는지 몰라서 어벙벙하게 서있을 때 외국인들이 먼저 우리에게 색 가루를 던지고 물감을 문지르고 갔다. 그 때를 시작으로 우리도 같이 사람들에게 물감을 문지르고, 가루를 던지면서 축제를 즐겼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고 큰 인도노래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고 기차 놀이를 하는데 정말 흥이 넘쳐났고 재미가 있었다. 서로가 처음 보는 사이이며,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즐겁게 간접적으로라도 느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모두가 웃으면서 재미있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들이 순수해보였다.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해맑게 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마냥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서로에게 물감을 던지고 문지르는데, 그 순간들만큼은 모두가 걱정이 없이 마음이 가벼워보였다.

인도축제를 한국에서 즐기는 것도 나에겐 신선하고 재미가 있는데 인도에서 직접 홀리 축제를 즐기면 얼마나 재밌을지 궁금하다. 한국에서 느낀 재미의 몇 배 이상으로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값진 추억과 경험이 되었다.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어두웠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 되었었고, 인도인들에 대한 인식도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좋지 않았었는데 이 축제를 통해 인도인들의 순수함과 '인도'라는 나라는 흥이 많고, 밝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순간의 걱정들을 잊게 해주고,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값지고 좋은 경험이었다.



홀리 축제를 다녀와서

인도학부
20171003 김지원

내가 인도 홀리축제가 우리나라 해운대에서 열리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나와 글로벌 튜터링을 하는 아쉬토쉬가 가르쳐 줬서이다. 그 주 주말에 인도에서 하는 축제가 해운대에서 열리는데 같이 가자는 이야기만 들어서 처음에는 그 축제가 홀리 축제인지 몰랐다. 네이버에 검색하고 나서 그 축제가 홀리 축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는 홀리 축제를 배우기 전이어서 홀리 축제가 뭔지도 몰랐다. 그래서 축제를 가기 전에 축제의 기원, 유래, 특징 등등 여러 가지를 조사한 후에 갔다. 짧게 홀리 축제의 기원과 특징을 적어보자면 먼저 홀리 축제는 힌두력 달력을 기반으로 하는 봄맞이 축제이다. 그리고 이 축제는 힌두교의 축제이지만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전 국민적 명절이고 인도의 축제 가운데 가장 화려한 축제이다. 이 축제는 위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다양한 빛깔의 색 가루와 색 물감을 서로의 얼굴이나 몸에 문지르고 뿌려서 색체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빛깔의 색 가루나 물감을 뿌리는 이유는 서로에게 쌓인

나쁜 감정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다. 나는 우리 학교 교환학생들과 부산대 교환 학생들과 갔다.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처음에는 쉽게 친해지지 못했는데 지하철 갈아타는 것을 도와주다가 친해졌다. 홀리 축제는 해운대 해변 끝쪽 모서리에서 했다. 그곳에 갔더니 스리잔 교수님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고 교수님이 많은 양의 색가루를 주셨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같이 간 아크말, 하킴, 넬리, 화봉, 자파랑 놀았다. 점점 놀다가 우리는 그 곳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이랑도 서로 뒤섞여서 놀았다. 그 쪽에서 놀다가 같은 학부 동기 수연이랑 지희도 만났다. 해운대 홀리 축제는 인도 홀리 축제와 다르게 이 패스티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얀옷을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운대에 관광 온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다. 홀리 축제가 3월 달에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점퍼 안에 하얀색 반팔을 입고 갔다. 아침에 갈때는 추웠는데 홀리 축제에서 점프하고 춤추면서 더워서 반팔을 입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반팔은 빨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얼룩덜룩해져서 결국 그 옷은 버렸다. 홀리 축제는 내가 처음으로 참여해본 외국 축제였다. 그래서 더욱 기억에 오래 남고 내가 공부하는 나라의 축제가기 때문에 마음에 담겼다. 그리고 이 축제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다. 나는 이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하고 있으며 친하게 지낸다.



08

Taza Khabar
최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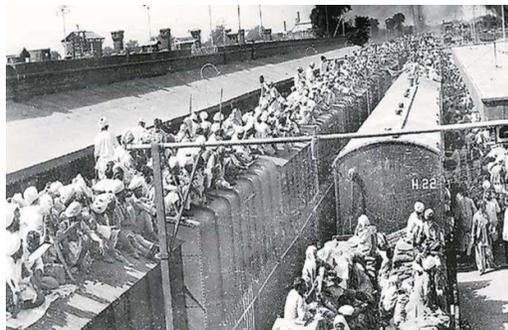


파키스탄에서 공부하는 어린이 : Thug Hindus 가 무슬림을 학살하고 재산을 움켜 잡고 인도를 도망 가게했다

2017. 08. 04. JANSATTA

인도와 파키스탄은 70년 동안 분리됐지만 양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의 힌두인과 인도인에 대한 태도가 수십 년이나 적대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HT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학교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이 적대감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한다. 인도의 이웃 나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힌두 사람이 강패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이 힌두교도들은 대규모 학살 혐의로 기소되고 있으며 70년 전부터 힌두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움켜 잡고 강제로 파키스탄에서 무슬림을 추방했다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파키스탄 발 루치 스탠 지방의 정부 학교에서 정부가 승인한 5가지의 역사 책은 힌두교도가 강패라고 주장했다. 힌두교도들은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했으며 인도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파키스탄에서 무슬림을 강제 추방했다고. 17세의 파키스탄 편집 주 Afzal은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파키스탄을 만든 이유이다." 파키스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던 Afzal은 책을 통해서 70년 전 분할이 끝난 후 힌두교도가 유혈을 저질렀고 무슬림을 고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열되기 전에 그 나라가 전복되었고 영국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민족주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사고 방식을 발전시켰을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국가에 대한 표현을 개발하고 통제 해왔다. 올해 8월에는 70년 동안 인도 - 파키스탄의 분할시 폭력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여자들은 Julmo Sepam의 의도를 받았다. 그들은 고문, 강패, 폭행에 직면해야했다.

(이언지)



<http://www.jansatta.com/national/pakistani-textbook-says-hindus-are-thugs-who-massacred-muslims-confiscated-their-property-and-forced-them-to-leave-india/394915/>

메리 케이 칼슨 (mary kay carlson)주미 미국대 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7. 08. 07. BBC

메리 케이 칼슨 주미 미국 대사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은 정치적 또는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독립 기념일에 사리를 입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 칼슨 은 지난 며칠간 트위터에서 #sareesearch를 통해 독립 기념일에 처음으로 sarees 를 착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에 인도 saree 를 착용해야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Narendra modi 총리는 원주민 제품 홍보를 위해 도착민 제품에 대한 주한 미국 대사를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는 "나는 인도 사리를 매우 좋아한다. 나는 독립기념일에 인도 사리를 입을 것이다 인도 독립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나의 첫 번째 사리를 살 것이다. khage village industries 에 와서 사리를 살 수는 있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메리케이 칼슨은 khage village industries 에서 사리 4 개를 가져 왔다. 그러나 이들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온라인 으로서 사리 선택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사리에 대해 조언했다.

@BLEAviation 핸들에 "검은 색 블라우스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했고 @raopm9 는 부인 독립 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kanujivaram 을 착용 하고

저녁식사에 드레스를 입어야 해요. 라는 등 사람들은 네 사리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허다영)



<http://www.bbc.com/hindi/social-40847165>

인도 병원 : 우타르 프라데시 내 60명의 아이들이 죽음

2017. 08. 12. BBC NEWS

인도 북쪽의 공립 병원에서 적어도 60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했으며, 미납된 돈 때문에 산소 공급을 중단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관계자들은 산소가 중단 된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죽음의 원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희생자들은 신생아 병동에 있거나, 뇌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락퍼 지역에 위치한 바바 라그하브 다스 병원에서 월요일부터 5 일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지역 관계자인 '아닐 쿠마르'는 이것이 체납과 관련된 것을 인정했지만, 죽음은 많은 환자들의 심각한 상태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인도 내 가장 가난한 지역 중의 하나로 뇌염을 포함한 질병 때문에 매년, 수 백 명의 아이들의 사망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보건 장관 '시드하트 나트 싱' 또한 아이들의 죽음이 산소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 년 동안 8 월 기간에 병원 내에서 평균적으로 19~22 명의 매일 죽어왔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오직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원 내에 산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응급 산소통이 부족 했던 2 시간 동안, 수동 인공호흡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사망자인 11 살 소녀의 삼촌은 ABP 뉴스에 말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직원들은 우리에게 인공 백을 3 번 주기로 계속 누르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병원 측의 성명서에는 "액체 산소 공급기의 기압이 낮아지고 예비 원통이 배치되었지만, 이것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일어났고 왜 수 많은 아이들이 2 일동안 사망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내에 대확살이라고 표현되는 분노를 일으켰다고, BBC 뉴 델리 기자 '산조이 마줌달' 보고했습니다.

야당대표는 주를 담당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BJP 당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주 관계자들은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으며, 모디정부는 사건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말했습니다.

(윤영훈)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40911287>

폭탄테러 협박을 받고 삼엄한 경계에 있는 뉴델리 역, 현재 수색 중

2017. 08. 14. Zee News

뉴델리: 정부 철도 경찰은 월요일에 폭탄 테러 협박을 받은 후, 뉴델리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기차들을 수색하고있다.

오전 4시 10분 경에 폭탄이 역의 한 열차 안에 있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고 고위 철도 당국자가 뉴스 에이전시인 IANS 에 전했다.

북부 철도 대변인인 니라즈 샤르마는 정부 철도 경찰(GRP)과 철도방위청(RDF)이 탐지견을 데리고 수색 중에 있다고 에이전시에 말했다.

이를 전쯤, 델리 경찰은 델리 고등법원 건물 내에 폭탄이 있다는 유사한 전화를 받았다.

ANI 는 경찰특공기동대, 소방대, 폭탄처리반이 법원에 도착했지만, 나중에 그 전화는 사기극으로 밝혀졌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보국이 몇몇의 테러리스트가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도중 테러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후 수도에는 보안이 강화되었고, 약 47,000 명의 보안요원이 배치되었다.

(전지영)



<http://zeenews.india.com/india/new-delhi-railway-station-on-high-alert-after-bomb-threat-search-on-2034658.html>

3개월 만에 도발적인 논쟁이 벌어졌고, 중국은 인도와 다시 대화를 나눴다

2017. 08. 16 JANSATTA

중국과 인도 간의 분쟁은 Doklam 에서 3 개월째 시작되고 있다. 수요일에 중국은 인도의 도골람 지역에서 병력 철수를 요청했다. 중국 외교부의 Hua Chuying 대변인은 양측 간의 대화에는 인도가 Dolaam 의 병사들을 상기시킬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인도는 도골람에서 인도 - 중국과 부탄의 동맹에서 그들의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인도의 요구가 있다. 위기는 6 월 16 일 인도 육군이 중국군이 도골람에서 도로를 만들 것을 중단했을 때 시작되었다. 인도는 이 지역이 부탄이라고 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 영토라고 믿고 있으며 인도는 국경 분쟁 사례를 멀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골람 국경에서의 인도와 중국의 군사력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나라 간의 국경 분쟁이 안정

될 것이라는 희망은 없다. 베이징에서 지명된 전직 외교관은 인도는 참을성있게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경에 계속 머물러야 하며 외교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2016 년 1 월에 은퇴한 Ashok Kantha 인도 대사는 양국간 첫 경계 분쟁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연구소의 칸타(Kantha) 국장은 IANS 에 "중국이 이 분쟁에 대해 상호 이해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중국이 받아 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는 현재 상황에서 충분한 힘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이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라고 했다.

칸타 총리는 1986 년의 교착 상태를 상기하면서 "1986 년 중반부터 상호 이해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1987 년 말까지 군사 배치를 줄이기 시작했다. 칸타 총리는 Dalam 분쟁의 논쟁을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참을성 있게 해야한다." 고 했다.

그는 인도가 동부 지역의 군대 배치를 늘린 소식에 대해 인도는 배치 문제에 있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칸타(Kantha)에 따르면 양국 간 외교 관계가 활발하고 베이징과 뉴델리에 배치된 외교관 모두 경험이 매우 풍부하며 중국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고 했다. Ajit Doval 국가 안보 보좌관은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해 브릭스 안보 회의 이외에 중국 측 수석 대표인 Yang Jiechi 와의 양자 회담에 참가했다.

칸타 총리는 "대화는 중단되지 않는다" 면서 "일반적으로 중국과의 접촉은 더 좋으며 인도는 대화가 없을 때까지 군인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athu La 장교들과 다양한 접촉이 외교적 수준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전문가인 Srikanth Kondapalli 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 때문에 다소 조용해질 수 있다고 했다.

자와할랄네루대학교의 중국학과 Kondapalli 교수는 IANS 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나라도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협박의 강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국경인 1,415km 에 대한 군사 배치를 강화했다. Kondapalli 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의 지속적인 긴장은 '와일드 카드'와 같다.

(이언지)



<http://www.jansatta.com/international/doklam-standoff-enters-third-month-china-reiterates-india-must-retreat/404437/>

힌두교 친구를 위해 Saraswati동상을 들고있는 파키스탄 소녀

2017. 08. 17 BBC

21살의 한 파키스탄 소녀가 있다. 그녀를 통해 우정과 공동의 조화에 대한 아름다운 예를 보여주고있다. 파키스탄의 이 소녀는 인도로 왔다. 그리고 카라치에 살고있는 그의 힌두교 친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녀는 madhya pradesh 에 오고있다. 그녀는 힌두교 친구에게 줄 선물로 sarasati 여신상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통신사 PTI 에 말하기를 "나는 나의 친구와 함께 카라치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인도에서 너를 위해 어떤 선물을 줘야하는지 그는 나에게 여신상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여신상 Saraswari 의 동상을 가지고 왔다. 나는 이동상을 Harda(madhya pradesh)의 현지 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

파키스탄 그리고 힌두스탄 출신의 이 두 소녀는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우호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소녀가 말하기를 "나는 saraswati 동상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있다. 인도에서 saraswati 은 지혜의여신이다. 나의 친구도 새로운

정보를 찾는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그녀가 여신에게 축복을 얻기를"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지난 번 harda 에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코끼리 여신상을 가져 왔고 그녀의 친구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파키스탄 소녀의 엄마도 harda 에 산다. 그녀가 사라스вати 동상을 갖고 인도에 오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그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동상을 사기위해 시장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도와파키스탄에 공동의 조화를 증가 시킬 것입니다.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허다영)



<http://www.bbc.com/hindi/social-40958339>

현재 비하르 홍수 사망자 253명에 달함

2017. 08. 22. Times of India

파트나 : 비하르 주의 홍수 사상자 수가 일요일에 51 명으로 보고되었는데, 현재 253 명으로 증가했다. 폭우로 20 개 지역의 1260 만 명의 사람들이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49.2 만 명 이상의 홍수 피해자들이 여러 주의 2,569 개의 공동주방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받고있다. 72.1 만 명 이상의 갇힌 사람들은 NDRF, SDRF,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 구출되었다.

네팔의 침수지역은 호우로 인해 이미 최악의 상황인 아라리아 지역을 더 악화시켰다. 뿌르니아와 아라리아 지역을 거쳐 갠지스 강과 합류하는 마하난다 강, 칸카이 강, 빠르만 강도 범람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자르칸드 주의 사헬간즈 지역에서는 갠지스 강의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 까티하르 지역을 침수시킬 수도 있다.

중앙 수자원 위원회는 월요일, 북부 비하르 지역에 약한 비나 보통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지영)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bihar-flood-toll-now-reaches->

[253/articleshow/60151336.cms?utm_source=toiaandroidapp&utm_medium=others&utm_campaign=show](http://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bihar-flood-toll-now-reaches-253/articleshow/60151336.cms?utm_source=toiaandroidapp&utm_medium=others&utm_campaign=show)

타타모터스: 400억 루피 투자로 경영 호전 시도 및 신제품 출시

2017. 08. 21. NDTV

오늘, 인도의 주요 자동차생산회사인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자사경영 호전전략의 일환으로 현 회계연도에 400 억루피를 투자 하여 시장에 새로운 승객과 상업용 차량의 유입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한 다양한 비용 최적화 시도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150 억루피 이상의 수익을 끌어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7-18년에는 경영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생산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공장에서 일부 생산 라인의 "일시적인 동면"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회사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의거하여 '포부의 연결'이라는 태그라인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사명(Brand Promise)을 발표했다. 타타자동차의 전무이사 쾨터 버트슈크(Guenter Butschek)는 2-3 년 내에 달성을 목표로 이미 계획된 사업 전환을 대비해 향후 6-9 개월이 결정적인 경영호전 프로그램을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자에게 국내 상업용 차량사업은 타타자동차의 중추이며 경영호전의 초점은 이 부문에서 5 퍼센트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더 빨리 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트슈크는 "상업용 차량 부문에서 18 회계연도에 150 억 루피를 책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10 개의 새로운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 중 6 개 제품은 중대형 상용차군에 속하며 4 개는 중형 상용군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용차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투자 금액이 250 억 루피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제품 출시와 관련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타타자동차는 내달 소형 SUV 인 넥슨(Nexon)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까지 4 가지 차체를 갖추는 자사의 AMP(Advanced Modular Platform)플랫폼에서 첫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그는 말했다.

버트슈크는 진행중인 경영 호전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회계연도에는 시장변동성과 더불어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음에 따라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버트슈크는 타타자동차가 운영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에 따라 150 억 루피를 비축하여 기업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사업의 호전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회장인 찬드라세카란(Chandrasekaran)과 함께 회사 경영진이 매월마다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6 주마다 이사회와 함께 그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타타자동차는 독자적으로 2017-18 회계연도의 6 월 분기 동안 46.7 억 루피의 손실에 대해 게시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2.5 억 루피의 이익을 등록했다.

전체적인 계획 중 한 가지 일환으로 타타자동차는 제조공간의 최적화를 검토 중이다. 일부 공장에서는 상용차 부문에서 약 40%의 가동률을 기록했으나 승용차 부문의 경우, 사난드 공장에서는 한 때 10 %만쯤의 낮은 가동률을 보였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공장을 어떻게 최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몇 개의 라인이 일시적인 동면에 들어갈 수 있으며 수요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기능하도록 하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슨 공장의 어떤 라인에 해당 조치를 취할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구상 중이라고 했다.

타타자동차는 푸네, 잠셰드푸르, 러크나우 및 판트나가르 등지에 공장이 있다.

사측에서 언제까지 국내운영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바라건대 이번 회계연도이다." 라고 답했다. 버트슈크는 타타자동차의 스포츠카 라세코 출시 계획은 전반적인 경영호전을 우선으로

상용차 사업에 중점을 두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류 중에 있다고 했다.

“경영호전에 공들이기 위한 내부 안건의 일환으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자본 지출을 살펴보았으며 초기 리스트 중에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매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김보미)



<http://profit.ndtv.com/news/auto/article-tata-motors-to-pump-1740172>

인도의 강간범 구루: 판사 말하길, 구르미트 람 라힘 싱은 들짐승이다

2017. 08. 29. BBC

강간죄로 징역 20 년을 선고받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도의 구루(종교 지도자)의 담당 판사는 그를 자비를 베풀 가치 없는 들짐승이라고 말했다.

자그딕 싱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르미트 람 라힘 싱의 제자들에게 대한 성폭행은 '사회적지위를 남용한 강간(custodial rape)'이며 그에 따라 최대 형량을 선고 받을 만 하다고 말했다.

자칭 성자라는 이 사람은 2 명의 여성 추종자를 1999 년부터 2002 년 까지 성폭행 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자에 대해 중신형을 요구하였었다.

피해자들의 변호사는 40-50 명의 여성들이 그의 강간 혐의를 주장하며 나섰고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루는 강간죄 외에도 내달 공판이 열릴 2 개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람 라힘 싱의 추종자들은 지난 금요일 유죄선고 이후 소요상태를 일으켜 38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월요일에는 최종판결을 위해 판사들은 이 자칭 성자가 구금된 교도소로 항공기를 타고 갔다.

BBC 의 기타 판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싱 판사는 강경한 어조의 판결을 내리며 해당 죄수는 응당한 최대 형량을 받을 것이며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신처럼 표현하며 그의 지위와 우선순위를 지나치게 이용하였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 죄수를 신상으로 섬기며 숭배하였다. 하지만 죄수는 그 순진하고 눈 먼 추종자들을 성폭행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형태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판사는 람 라힘 싱은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 예방의 메시지를 보내기위해서는 그에게 적절한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고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집단적인 양심을 흐르는 일이다.” 그는 덧붙였다.

람 라힘 싱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감형을 요구하며 그가 “고혈압, 급성 당뇨 및 심한 요통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그가 “선량한 시민”이었으며 “다양한 사회사업에 참여”하고 병원 운영 및 시민들을 위한 여러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중국에 판사는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자신의 독실한 제자조차도 아끼지 않으며 들짐승처럼 행동한 죄수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구르미트 람 라힘 싱은 누구인가?

- 전 세계에 6 천만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라 사차 사우다(Dera Sacha Sauda) 종파의 문제적 지도자.
- 그는 23 세에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이자 영성종교단체”라고 주장하는 이 종파를 장악했다.
- 락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며 영화에도 출연, 심지어 개인 식료품 라인 소유.
- 그의 반짝거리고 컬러풀한 의상 스타일로 인해 “락스타 바바”또는 “블링블링 구루”로 알려졌다.
- 시크교와 힌두교 인물들을 조롱하여 고발 당함.
- 살인, 강간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나 혐의 부인 중.
- 추종자들에게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거세를 강요하여 고발 당함.

(김보미)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41079736>

18일부터 댕구와 말라리아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열차 운행예정

2017. 08. 31. Hindustan

모기를 박멸하기위해 18 일부터 방역열차가 운행될것이다.

델리의 선로근처 다양한지역에 열차는 모기살충제를 뿌릴예정이다. 9 월 7 일까지 시행될 방역활동은 약 400kg 의 살충제를 사용할것이다.

댕구열과 말라리아의 인명피해의 증가와 더불어 여러업체들의 모기번식을 멈추게 하는노력은 점차 이루어지고있다.

8 월 18 일부터 철도청의 도움과함께 운행될 열차에는 거대한 방역기계가 있다.

이기계로부터 선로근처지역엔 살충제가 뿌려질것이다. (김동혁)



<http://www.livehindustan.com/ncr/new-delhi/story-mosquitoes-will-run-from-train-18-to-prevent-dengue-and-malaria-1263726.html>

델리메트로, 블루라인 승객들 무료와이파이 이용가능할것

2017. 08. 26 Hindustan

델리지하철의 블루라인 이용객들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사용가능할것이다.

DMRC(Delhi Metro Rail Corporation)의 운영책임자

Dr.망구 싱은 금요일 라지브초크역에서 서비스를 실시했다.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는 블루라인의 50개, 모든 역에서 사용가능하다.

역안내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 승객들은 자신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역안에서 켜야한다. 역으로 들어오는 전동차는 와이파이와 연결될것이다. 그후에 와이파이망에 등록하는것을 요청한다.

등록한후 승객들은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자신의 이메일, 페이스북, 구글, 비디오챗, 실시간 크리켓경기,풋볼 경기등을 포함해 웹사이트도 이용가능하다. 이서비스를 실행하기위해 DMRC는 Techno set communication 회사와 협력했다.

이회사는 공항철도의 모든역에서도 작년부터 이서비스를 실시하는중이다. 이와더불어 델리-하와라 라즈다니 익스프레스에서도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중이다.

DMRC의 관계자는 Techno set communication가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실행하는것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사업은 굉장히 빠른속도로 진행되고있다. 앞으로 6~8개월안에 옐로우라인의 모든역에서도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설치할것이라고 했다.

그후 옐로우라인 이용객또한 무료와이파이를 이용할수 있을것이다. (김동혁)



<http://www.livehindustan.com/ncr/new-delhi/story-free-wifi-in-blue-line-of-delhi-metro-1374623.html>

이혼절차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는 이슬람 학교

2017. 08. 29 BBC

인도의 주요 이슬람 단체들은 그들의 법에 따른, 정확한 이혼 절차를 무슬림 남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15,000명의 마드라사 혹은 이슬람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다르가-에-알라-하자르트는 급작스러운 이혼을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즉각적인 이혼'은 이슬람 법률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단체의 높은 성직자는 그들은 이혼에 관한 수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란과 이슬람 법률을 중심으로 한 신학생들의 교과과정에는 이미 이혼에 관한 수업이 있지만,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니다.

"대법원의 판결 후에 우리는 마드라사와 관련된 성직자 회의를 진행했고, 그들에게 금요일 기도시간에 탈라크(이혼)에 관한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의 고위 성직자인 '마우라나 샤부딘 라즈비'가 BBC Hindi의 '사미르마지 미슈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에 만연한 '즉각적인 이혼'이 이슬람 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학생의 경우 남자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라즈비씨는 말했습니다.

추가된 수업은 내년 학기가 시작되는 2018년7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탈라크'를 세 번 외치고 이혼한 남편들에 대한 무슬림 여성들의 불만이 경찰들의 보도를 통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41080929>

스마트 폰에서 CIA를 비롯하여 전세계에 퍼져 나가는 인도인의 40 %에 대한 정보

2017. 09. 01. JANSATTA

유니세프 내무부 장관으로 은퇴한 라지브 마하리시(Rajiv Maharishi)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도인의 40 %가 CIA(미국 정보 기관)를 포함한 전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ajiv Maharishi는 Aadhar와 다른 서비스를 연결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Rajiv Maharishi는 그러한 위험은 처음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Indian Express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Rajiv Maharishi는 7월 21일 의회위원회(PAC) 앞에서 이것을 말했다. 고위 총재인 P.Chidambaram이 이끌던 사람인 라지브 마하리시(Rajiv Maharishi)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도인의 40%가 의도적으로, 또는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세계와 공유한다고 말했다.

Rajiv Maharishi는 사람들의 정보를 훔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Rajiv는 개인 정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idambaram은 또한 같은 지역에 두 사람의 위치가 보이는 경우 동일한 방에 있다고 추정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Rajiv Maharishi는 수요일에 인도의 새로운 감사관(CAG)으로 임명되었다.

(이언지)



<http://www.jansatta.com/national/rajiv-mehrishi-says-to-pac-smartphones-share-data-of-40-per-cent-indians-with-the-world-cia/418971/>

BRICS(브릭스) 선언에서 최초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테러 단체를 언급.

2017. 09. 04. NDT

인도는 오늘 처음으로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 회담에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테러단체인 Lashkar-e-Taiba (라시까르 따이바), Jaish-e-Mohammed (자이쉬 모하메드) 그리고 Haqqani network (하까니 네트워크)의 테러를 비난하는 강경한 선언을 함으로서 중요한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 "우리는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강하게 비난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역의 안보상황과 Taliban(탈레반), ISIL/DAISH(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Al Qaida(알카에다) 그리고 그들의 연맹단체인 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 the Haqqani network(하까니 네트워크), Lashkar-e-Taiba(라시까르 따이바), Jaish-e-Mohammed(자이쉬 모하메드), TTP(파키스탄 탈레반) 그리고 Hizb ut-Tahrir(히즈부트 따흐리르)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에 우려를 표한다."고 사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국가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선언에서 발표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에 참석중이며, 지난 달에 장기적이었던 도클람 교착상태를 끝내고 처음으로 내일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과 협의를 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브릭스가 채택한 선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긴밀한 동맹국이지만, 그 성명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언급한다.

"우리는 브릭스 나라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개탄하고, 모든 테러 행위를 비난하며, 어디에서 행해졌던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던지 테러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는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조직하거나 지원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작년 고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파키스탄 주도의 테러행위에 대한 이 선언에 중국을 참가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파키스탄의 가장 긴밀한 동맹인 베이징의 정책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외교부의 Geng Shuang 대변인은 BRICS 국가는 "이 단체들이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통신사 PTI에 말했다.

BRICS(브릭스) 선언에서 파키스탄 기반의 테러단체들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지만, 작년 12월에 암릿사르에서 개최된 Heart of Asia conference on Afghanistan에서도 유사한 선언을 했다. 그 선언에서도 Lashkar(라시까르)와 Jaish(자이쉬)가 언급되었고, 파키스탄과 중국은 멤버로서 그 회의에 같이 있었다.

Jaish(자이쉬)는 이미 예전인 2001년 UN에 의해 금지되었다. 중국은 그 단체와 그 단체의 수장인 마수드 아즈하르를 구분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인도가 유엔에서 마수드 아즈하르를 테러리스트로 지명하려고 하는것을 막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인도를 지지했다.

(전지영)



<http://www.ndtv.com/world-news/brics-declaration-names-pakistan-based-terror-groups-for-the-first-time-1745721>

열차에서 상한 음식과 불편한 시설을 경험하셨다면, 철도공사에 알려주세요

2017. 09. 16. JANSATTA

열차의 승객과 판매자 사이의 싸움은 종종 열차의 상한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제 철도공사는 승객들이 인도 철도의 프리미엄 열차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시설의 부족을 즉시 알릴 수 있는 제도를 실시했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위해 철도 태블릿을 사용한다. 이것은 큰 레스토랑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정보에 의하면, Tejas, Rajdhani, August Kranti 및 Shatabdi Express에서 이 제도를 실시했다.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의 보도

에 따르면, 9월 14일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태블릿의 사용이 아흐메다바드-델리 라즈다니 익스프레스에서 실시되었다. IRCTC(인도철도관광공사) 대변인은 이 태블릿을 통해 즉시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식사와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RCTC 서부지역의 총 책임자 인 Arvind Malkhede는 태블릿으로 토요일부터(9월 16일) Tejas와 Rajdhani Express에서 승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드백 소프트웨어에는 승객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및 기차 세부 정보가 저장된다. 여행 중 식사 경험에 대해 질문 할 것이다. 피드백을 주면 승객은 모바일로 메시지를 받게 된다. 승객에게 피드백에 대한 감사인사의 메시지가 갈 것이고, 피드백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한 판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Tejas Express 승객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모든 객차의 외부에 예약차트가 부착되는데 이 차트에는 승객 이름과 좌석 번호, 이동 구간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와 있다. 이제 철도공사는 열차 객차의 외부에 차트를 부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철도공사는 뉴델리, 뭄바이 센트럴, 첸나이 센트럴, 콜카타 하우라 정선 및 콜카타 시얌다흐 정선에서 출발하는 기차들의 예약차트를 부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불편함은 예약 대기 중이거나 RAC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겪을 것이다. 그들의 좌석은 기차 출발 몇 분 전에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이언지)



<http://www.jansatta.com/national/not-satisfied-with-your-food-on-trains-now-send-instant-feedback-with-tablets-to-indian-railway/432804/>

나렌드라 모디의 생일에 어떤 선물을 하길 원하십니까?

2017. 09. 17. BBC Hindi

9월 17일 은 인도총리인 나렌드라 모디의 생일이다. 모디의 나이는 67세이다.

아침부터 PM MODI 의 생일은 Facebook과 Twitte 의 최고의 이슈이자 최고의 트렌드이다.

친구가 생일을 맞을 때, 선물을주어야 할 때, 어떤 선물을 주어야할지 생각할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나라 총리에게 생일 선물을 주어야 한다면,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BBC는 사람들에게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어떤 생일 선물을 주고 싶은지 물었다.

우리는 이 질문에 2천 5백만 건이 넘는 응답을 받았습시다.

몇가지를 골라 보았습니다.

모디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사시 브라담 뻬데 - JIO(통신회사)의 SIM 카드와 휘발유, (JIO 통신사의 요금제로) 무제한 "Maan Ki baat"에서 이야기하고 구경도 다닐 것이다

@비렌드라 씽 - 화폐개혁이 있고 50일이 지난 후 부터 우리는 선물을 주려고 사거리에서 있다.

(* "화폐개혁 이후 50일이 지나면, 시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 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거리에서 나를 처형해도 좋다"고 한 나렌드라 모디의 말을 비교면서 보낸 메시지인 것 같다)

@디네쉬 바부 - 내 저축 예금 계좌에 들어온 150 만루피를 돌려주길 원한다

@마노즈 샤프마- 2019년에도 모디가 다시 총리가 되길 신에게 기도 할 것이다

@비제이 꾸마르 쯤 - 선물은 모디가 주어야 한다. 2019년까지 정당과 친구들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를 위해 그는 일해야 할 것이다

@아제이 - 나는 모디에게 소의 배설물, 소변을 선물 해주고 싶다. 정말로. 왜냐하면 나는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등 지금까지는 모디의 생일 선물은 핫 한 이슈이다.

(허다영)



<http://www.bbc.com/hindi/social-41297942>

2005년 인도의 핵미사일 발사, 미국스파이들은 1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2017. 09. 27. Hindustan Times

The Intercept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의 핵능력보유 미사일 프로젝트의 실험 1년 이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으며 인도 핵폭탄에 관한 "중요한 기밀"을 입수했다고 한다.

에드워드 스노우덴이 입수한 유출된 정보를 담아 최신 발간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05년의 사가리카(Sagarika)와 다누쉬(Dhanush) 미사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한다.

"1998년 봄, 인도가 행한 일련의 핵무기 실험은 (미국)정보기관 커뮤니티 충격에 몰아넣으며 실험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내부 조사를 촉구했다. 데이터 수집에서의 비슷한 실수가 2005년에 다시 발생하면 안되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SIDtoday(국가안보국의 신호정보부서의 내부 뉴스레터)에 따르면 호주의 국가 안보국 기지인 RAINFALL에서 인도 핵시설과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신호를 식별했다. RAINFALL과 2개의 태국 NSA 기지(INDRA와 LEMONWOOD)간의 협력작업으로 신호의 출처를 확인하고 인도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차단을 승인했다."

사가리카 미사일 프로그램은 인도가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인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K-15를 시험발사한 2008년 까지 극비사항으로 부쳐졌다.

국방연구개발기구의 수석판제사 S Prahlada는 K-15가 700km의 발사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에 인도는 벙골만의 해군함정에서 핵 탄도 미사일 다누쉬의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누쉬는 핵 탄도 미사일 프리트비(Prithvi)의 해군

버전이다. 이의 발사범위는 350km이며 500kg이상의 재래식 또는 핵 탑재물을 운반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육지와 해상 타겟 모두를 공격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내용들은 9월 14일 The Intercept에서 발행한 294편의 기사를 통해 폭로되었다.

(김보미)



<http://www.hindustantimes.com/india-news/us-spies-knew-about-two-indian-nuclear-missiles-in-2005-years-before-launch-report/story-VPQA5hsVNma2yqjMwN4gPO.html>

팔알에서 라즈다니 익스프레스와 충돌, 학생 두 명 사망

2017. 09. 10. Hindustan

다로카역 근처에서 자전거가 철도를 가로지르던 중 라즈다니 익스프레스와 충돌했다.

이로써 학생 두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기차의 엔진에 자전거가 킴으로써 기차는 삼 십분 뒤에 재운행될 수 있었다.

다꼬라(Dakora) 마을의 14살 소누(sonu)라고도 불리는 소랍(Saurabh), 고돏(Godot) 마을의 17살 쉬브(Shiv)가 사망했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라비(Ravi)는 치료를 위해 개인 병원에 입원시켰다.



<http://www.livehindustan.com/ncr/new-delhi/story-two-students-die-after-being-hit-by-the-rajdhani-express-in-palwal-1484304.html>

우따르칸드 폭우 지속, 107개 도로 폐쇄

2017. 09. 24. Hindustan

도로를 개방하기위해 132대의 JCB가 배치됐다. 비로인해 연속적인 도로 폐쇄를 막을수가없다.

일요일에 11개이상의 도로가 폐쇄됐다. 여기엔 바드리나트, 깨다르나트 그리고 야무노뜨리 고속도로가 포함된다.

폐쇄된 도로를 개방하기위해 Ionivi를 대표하여 132대의 JCB가 우따르칸드 전체에 배치됐다. 하지만 길을 치우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비는 내리는중이다. 길이 폐쇄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걱정이 짐이 놓여있다.

특히 산악지역의 많은 지역과 고속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해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나바라뜨리와 사디의 시기라서 사람들에게 더욱더많은 부담이 쌓이고있다. Ionivi의 수석엔지니어 H.K 우쁘레띠는 도로를 개방하기 위해 모든지역에 수준급의 엔지니어와 관리감독자들이 배치될것이며, 그리고 도로개방을위해 배치된 JCB와 관련된 개인 업자들도 함께 배치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가 줄어들면 모든 폐쇄된 도로를 개방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재난 완화 관리센터의 정보에의하면 바드리나트, 시로바가르, 깨다르나트, 파타, 야무나뜨리 고속도로 등 많은 지역이 폐쇄됐다고 한다.

-고산지역에 강설

지속적인 비로써 기온이 저하됐다. 이로인해 바다리나트 지역의 나르 나라얀, 날 깐트, 햄꾼드 사히, 울리, 가르쑹, 룬꾼드, 바구바바싸 그리고 끼다르나트의 바수끼 호수, 메루-수메르 산에는 눈이 내렸다. 강설때문에 바다리나트, 깨다르나트의 기온은 많이 저하됐다.

-머수리, 비로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재앙

머수리에서는 지속적인 비로인해 사람들의 삶이 크게 영향 받았다. 머수리는 비로인해 추위가 심해졌다. 또한 비로인해 많은 여행객이 호텔방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다. 몰로드에도 적은수의 여행객만이 보인다. 비로인해 시내의 여행객을위한 장소에는 침묵만이 놓여있다. 캠프티폴의 상인 라제시 노띠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로인해 침묵뿐이라고 말했고, 하르모한 싱은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볼것이라고 말했다.

-데헤라둔에는 비로인한 추위

데헤라둔에는 비로인해 추위가왔다. 데헤라둔포함 여러도시의 사람들은 따듯함으로인한 안도감을 느꼈다. 둔의 최저기온은 섭씨 22도였다. 금요일 밤부터 데헤라둔포함 주전체에 비가 지속됐다. 둔시내에 몇몇지역에 물이 채워짐으로써 사람들은 걱정했다. 도로의 구덩이에 물이 채워짐으로써 사고에대한 공포심이 야기됐다. 또 비로인한 추위로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토요일 데헤라둔의 최고온도는 섭씨 28.1도, 최저 22도를 기록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둔에 33.3mm의 강수가 기록됐다. 목떼샤와르에는 최고온도 섭씨 15.5도 최저 13.5도, 뉴띠하리에는 최고 19.6도, 최저 14.6도를 기록했다. 앞으로 점점더 추워질것이다.

-오는 일주일동안은 약한비

기상과학청에 의하면 일요일부터 약한비가 우따르칸드 주전체에 올것이라고한다. 토요일 낮시간대 데헤라둔에는 부슬비가 올것이라고 한다. 기상과학청의 센터장 비끄람 싱은 오는 몇일동안 우따라칸드 주에 폭우는 오지않을것이며, 그리고 몇몇지역에는 약한비가 올것이고, 구름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혁)



<http://www.livehindustan.com/uttarakhand/dehradun/story-107-roads-closed-with-heavy-rain-in-uttarakhand-1566290.html>

구자라트에서 짜이를 파세요 라ahul 간디 씨, 축복이 쏟아질 거예요

2017. 09. 26. BBC Hindi

라ahul 간디(rahul Gandhi) 부총재가 3일간 구자라트 여행을 떠난다. 방문 도중 라ahul 간디는 나렌드라 모디와 BJP가 이끄는 구자라트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라ahul은 여행 첫날 Hanjarpur 마을에 도착했다. 라ahul은 마을에 사는 shripal ambilaya의 집에서 차를 마

했다. 라홀 간디의 구자라트 방문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일부사람들은 구자라트 여행을 칭찬하고, 일부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라홀은 mithapur 공항에서 출발하여 드와르카(Dwarka)로 직행했다. 그는 드와르카디쉬 사원에서 성전을 경배했다. 라홀간디는 마을에 도착하기 위해 황소를 타는 것을 원했고 황소를 타고 마을에 도착했다.

한 사용자는 라홀 의 사진과 함께 "바바지(baa ji) 어떻게 총리가 되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를 ~구자라트에서 짜이를 팔아 .그러면 축복이 쏟아질거야" 라는 글을 적었다.

ankush choubey는 "BJP는 15년 전 구자라트 폭동의 책임이 있으며, 제물로 희생제를 치른다고 해도 BJP를 구할 수 없다."라고 썼다.

탈발 나크는 "구자라트에서 BJP의 승리를 확실하기 위해서 BJP의 스타 선거운동가가 구자라트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 9월 27일 의 라홀 간디의 일정

-아침에는 쪼딜라 사원에서 기도를 드릴 것이다.

-정오에는 필요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곧달 왕복 두시에 갈 것 이다.

-오후 4시 30분에 제드뿌르에서 공개회의를 열 것이다.

(전지영)



<http://www.bbc.com/hindi/social-41403564>

인도-미얀마 국경에서 인도군에 의해 NSCN-K의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사망했다

2017. 09. 26. JANSATTA

인도 육군은 미얀마 국경에 있는 많은 테러리스트 진영을 파괴했다. 미 육군 동부 지휘관은 미 육군의 동방 제국이 미얀마 국경에서 미지의 침입자들이 총격을 가할 때 순찰 중이라고 발표했다. 인도군은 히말라야의 팁 오프(tip-off)로 대응하고 많은 적을

죽였고,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울창한 숲으로 피신했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군대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 군대는 인도-미얀마 국경을 넘지 않았다.

군대에 따르면, 공격한 테러리스트들은 NSCN(Khaplong) 그룹 출신이었다. 그 전에는 인도 육군이 미얀마를 더 일찍 공격하여 많은 인도 무장 세력을 공격했다. 2015년 6월 10일 인도는 인도-미얀마 국경 지역의 테러리스트 진영에 공격을 가했다. 2015년 6월 4일, NSCN-Khaplong은 마니뿌르의 Chandel 지역에 있는 도그라 연대(Dogra Regiment)의 인도 육군 대대 호송을 공격하여 18명의 육군 병사를 살해했다. 인도 군대는 이에 대응하여 육군과 공군은 인도-미얀마 국경을 넘어 2개의 무장 세력을 소탕했다. 이 캠페인은 미얀마 지역의 Nagaland와 Manipur 국경의 두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격에서 인도 군대는 40분이 걸렸다. 인도 군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70명의 특공대가 이 공격에 연루되었다. 이 공격에서 육군은 158 명의 무장 세력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언지)



<http://www.jansatta.com/national/surgical-strike-indian-army-myanmar-ns-cn-terrorists/442564/>

뭄바이 엘핀스톤 역 근처에서 압사사고로 22명이 사망했고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

2017. 09. 29. NDTV

오늘 아침 뭄바이에서 러시아워에 사람들이 폭우가 내린 후 두 역을 연결하는 좁은 기차역 육교를 빠져나가려다가 압사사고로 22명이 사망했고, 30명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가슴아픈 영상은 다리 위에서 난간의 압박으로 인해사람들의 몸이 짓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러 사람들의 무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으며 일부는 다리에서 뛰어 내리는 것으로 보였다.

이 압사사고는 오전 10시 30분 경에혼잡한파렐역과 엘핀스톤역 사이의 육교에서 발생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4대의 기차가 동시에 들어왔고, 비 때문에 몇몇의 통근자들이 미끌어졌고 이 때문에 비극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당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면서 이 압사사고가 발생했어요”라고 철도청 대변인인 아닐 섉세나(Anil Saxena)가 말했다.

그 사고 이후의 영상들은 땅 위에 널부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살리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동조차 없었다. 승객들과 현지인들은 시체를 육교 밑으로 끌어내리려고했다. 신발들은 다리 옆에 널부러져있었다.

조사중인 경찰은 육교 근처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큰 소리가 사람들을 놀라게해서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철도청 장관인 빠유스 고얌(Piyush Goyal)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뭄바이에 도착하기 한 시간 전에 발생했다. “금방 뭄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엘핀스톤 로드의 육교에서 불행하게 압사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비극에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그는 트위터에 올렸으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애도를 표한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이 지역에는 회사가 많아서 많은 뭄바이의 통근자들이 두 역을 이용해왔다.

성난 통근자들과 주민들은 붐비는 구역에서 이용되기에 이 육교는 너무 좁고 튼튼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예고된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육교는 수년간 과밀상태였고, 이 지역에 더 많은 철도 교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여러 번있었어요.”라고 현지 주민이 말했다.

“저는 5-6년간 이 역을 이용해왔어요. 이곳은 항상 이랬어요. 우리에게는 이 육교를 이용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육교외에 우리가 어디로

다닐 수 있겠어요?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라고 여성 통근자가 말했다.



<https://www.ndtv.com/mumbai-news/elphinstone-railway-station-stampede-at-overbridge-several-injured-1756677?from=home-lateststories>

100일만에 끝난 다즐링 파업

2017. 09. 27. BBC NEWS

인도 다즐링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시작 된 100일간의 파업이 내무 장관의 간청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번 일은 유명한 다즐링 차 생산단지를 마비 시켰고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파업을 주도한 Gorkha Janmukti Morch(GJM)은 수요일 아침6시에 공장과 가게의 휴업이 끝났다고 언급했다.

서 벵갈 주 정부가 벵갈어를 다즐링을 포함한 주 전체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겠다는 결정 때문에 운동은 시작되었으며, GJM은 대다수 네팔어를 사용하는 고르카족에 의해서 분리된 주를 원했다.

여름 관광의 성수기, 수만 명의 관광객들은 나가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 그 지역에 묶여있게 되었습니다. GJM 지도자 '비말 구룽(Bimal Gurung)'은 관광객들은 이곳에 머무를 수 있지만 위험해 처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속된 파업은 관광과 차 생산에 의존하는 많은 지역민들의 생활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차 산업은 100,000명의 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업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게들은 판매 금지에 대한 반항으로 지난 주부터 다시 장사를 재개했다고 Press Trust of India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인도 내무장관인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의 파업을 그만하라는 호소에 의해 중단 되었다고 PTI뉴스는 GJM 대변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싱 장관은

GJM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영훈)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41410887>

24시간 전력공급에 반대하는 인도 농부들

2017. 09. 28. BBC NEWS

인도 남쪽 텔랑가나 주의 농부들은 마을에 24시간 전력공급을 중단하라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도한 지하수 사용을 발생 시키기 때문입니다. "모터들은 지하수를 끌어 올 것이고 우물은 마를 것입니다." 농부인 '예람 안지레디'는 BBC Telugu에 말했습니다.

금년 7월, 정부는 주 내 3개의 지역에 24시간 전력을 공급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하루 9시간의 제한된 공급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24시간 전력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나라에서의 색다른 요구입니다.

많은 농부들은 전기가 켜질 때마다 자동적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형성된 모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비록 그들이 모터를 끄더라도, 다른 이들이 물을 사용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지하수가 마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뭄의 영향으로 우물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지하수는 이미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지레디 씨는 "우리는 농사를 위해 완전히 우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공급은 우리의 미래에 큰 위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수 백만 명의 농부들로 구성된 메달, 날곤다 그리고 카림나가르의 세 지역에서 비슷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BBC Telugu에 말했습니다. 아직 그들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 공직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9시간으로의 감소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1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날곤다 지역의 농부인 사티쉬 씨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윤영훈)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41426089>

피자헛과 도미노가 말야(Mallya)에 의해 놀랐다

2017. 10. 03. BBC Hindi

인도 사업가 비제이 말야(VIJAY MALLYA)는 화요일 오후 런던에서 체포되었다가 잠시후 보석금을 지불한 뒤 석방되었다. MALLYA는 돈 세탁 관련 문제로 체포되었다.

crown prosecutio service (cps)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정부는 vijay mallya 에 대한 자금 세탁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mallya를 인도로 데려오려고 하고있다.

cps에 따르면 mallya는 화요일에 청문회 전에 체포되었지만 보석금을 지불한뒤 석방되었고 다음 심리는 12월 4일에 있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웨스트 민스터 치안 법원에서 열릴 것이다.

Mallya 는 인도 은행에 900억 루피(한화 1조 5,660 억원)의 대출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난 받고있다. 이 소식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여러가지 반응을 보았다.

사람들은 마릴라는 짧은시간에 보석금을 지불해서 석방되었는데 왜 인도로 데려 오는것은 어려운가에 대해 여러가지 농담을 던졌다.

말야를 인도로 데려 오는 것이 왜 어려운가요?

isha는 트위터로 '비제이 말야는 30분 안에 보석금

을 지불했고 석방되었다. 피자 헛과 도미노는 그것을 두려워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른것에 대해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는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농담을 하며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뜨겁다.

(허다영)



<http://www.bbc.com/hindi/social-41489242>

새해에 폭죽이 터지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디왈리에 터지면...

2017. 10. 10. BBC Hindi

월요일 NCR이 이번에 델리에서는 디왈리 행사에서 폭죽을 팔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대법원은 델리 경찰이 발행 한 모든 영구 및 임시 면허 정지 명령을 즉각 발효했다.

대법원은 디왈리 이전의 폭죽 판매에 대한 BAN의 오염 감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BAIN의 불꽃 판매에 대한 청원은 세 자녀를 대신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사람들은 혼합 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PARBHAT KUMAR SINGH 은 법정에서 주어진 판결을 환영한다. 이것은 힌두교인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NAARESH HARDIYA 는 이러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환경을 유지한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디왈리는 새해 그리고 지도자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폭죽을 태우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미 폭

죽을 구입 한 사람들은 그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HARIPARAYA PADMANABHAN 은 대법원의 판결에 매우 만족하며 이 결정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폭죽을 구입한 델리 가게주인은 NCF밖에서 폭죽을 팔 수 있다.

@CHANDAN YADAV 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 하지만 크래서 공장, 근로자 주택, 화상 제작자 는 디왈리를 어떻게 축하 할 것인가...! 존경하는 대법원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할 것입니까?

VINAY KUMMAR 는 나또한 이결정에 칭찬한다. 매우 환영받을만한 결정입니다.

이결정에 힌두vs무슬림 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환경오염 때문에 심장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알지 못한다.

라는 등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고 있다

(허다영)



<http://www.bbc.com/hindi/social-41563640>

인도, 일본에서 현장실무교육 받도록 30만 청년 보낼 것

2017.10.11. NDTV

인도는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0만명의 청년을 3-5년동안의 현장연수를 위해 일본에 파견할 것이라고 오늘 연방장관 다르멘드라 프라단은 말했다.

인도 인턴들에 대한 기술교육의 재정비용은 일본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기술개발 및 창업부서 장관은 연방내각이 인도와 일본간의 기술인턴연수프로그램(TITP) 협력각서(MoC)에 대한 서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협력각서(MoC)는 그가 일본을 방문하는 3일동안 서명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였다.

려주겠다.

집에서 폰을 잠글 수 있는 방법, 폰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폰이 어떤 상황에서 발견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몇몇의 방법들이 있다.

1 - 안드로이드 폰을 잃어버린 사람은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폰이 켜져있을 때만 전화를 찾을 수 있다.

2 - 폰에는 이메일 등의 Google 계정 로그인이가 있어야 한다.

3 - 폰에 인터넷이 실행되어야 한다. 즉 휴대 전화가 모바일 데이터 또는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한다.

4 - 폰에 GPS 위치가 있어야 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5 - 내 장치를 찾아야 한다.

폰을 분실한 경우 먼저 컴퓨터에서 android.com/find 로 이동해라. 여기에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분실한 폰과 동일한 이메일 ID로 여기에 로그인해라. 로그인한 즉시 Google 지도가 장치와 함께 표시된다. 장치의 위치도 Google 지도에 표시된다.

또한 다양한 옵션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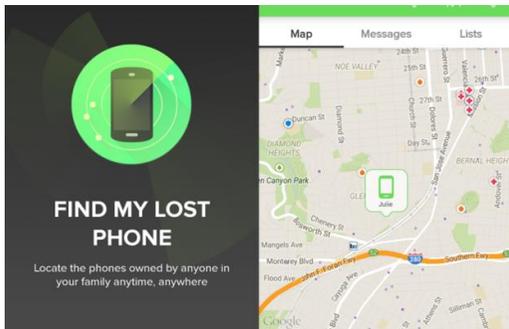
왼쪽에는 폰 아래의 소리를 재생하는 옵션이 나타난다. 여기를 클릭하면 전화 벨소리가 들리며 전화가 무음 상태 일지라도 벨소리가 계속 울린다.

이 아래에 잠금의 두 번째 옵션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를 클릭하여 전화, 메시지 또는 전화번호를 잠글 수 있다.

이 후 세 번째 옵션은 장치에서 데이터를 삭제한다.

여기를 클릭해서 폰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이언지)



<http://www.jansatta.com/technology-news/how-can-i-find-my-lost-android-smartphone-and-lock-or-delete-all-data-from-the-phone/457262/>

공항에서 시가 41라크 금밀수 잡히다.

2017. 10. 14. Hindustan

화요일 델리공항에서 리야드에서 출발해, 델리 세관의 직원이 금밀수 혐의로 붙잡혔다.

승객에게는 12개의 금괴가 있었다.

이것의 가치는 약 41라크루피(410만루피)로 알려졌다.

화요일 델리공항, 리야드에서 온 한 시민을 세관직원이 의심했다.

심문하는 도중 그 여행객은 긴장하고 있었다.

그에게 액체용기 한 개가 있었다.

세관직원이 액체용기를 조사하는 도중 압축된 12개의 금괴를 찾았다.

이것의 무게는 약 1.4kg이었다.

이 금괴의 총 시가는 약 41라크루피(410만루피)로 알려졌다.

후에 여행객은 체포되었다.

(김동혁)



<http://www.livehindustan.com/ncr/new-delhi/story-airport-1590941.html>

델리를 믿지마라, 대법원의 연기 명령

2017. 10. 20. BBC Hindi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진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표시되는 광고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디왈리(diwali)이후 발생한 오염을 감안할 때, 대법원은 델리 NCR은 폭죽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금지조치 이후 사람들은 아침에 폭죽을 터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안개와 오염은 더이상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폭죽을 터트렸고 아침 공기 오염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디왈리 후 금요일 아침에 오염가득한 연무를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디왈리 지역에서 오염이 줄어 들었지만 중대한 하락은 없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서는. #delhipollution 태그는 인기 급상승하고 있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샤르 는 "어제밤 판결은 시장에서 팔리고 연기가 나왔다."

amol sarkj는 "가슴 허리케인의 눈에는 왜 자극이 있습니까? 왜 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소년같아?"

mohit pasricha 는 facebook에 "오는 날부터 기침이 진행 중입니다. kaushalya어머니"

vikrant chauhan "델리에서 폐쇄 된 델리에서 불꽃놀이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바룬 샤르마 "왜 디 왈리에서만? 오늘 오염은 없을 것인가? 우리는 정치가 아닌 공해에 대해 노력해야 합니다."

umashanka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종교이지만, 사람들은 법은 어기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신적 노예가 아닌 헌법을 통과하기 때문에 법원의 법보다 더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다영)



<http://www.bbc.com/hindi/social-41691733>

아다르 번호를 은행계좌에 연결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고 RBI는 말했다

2017. 10. 22. NDTV

मुंबाई: 인도중앙은행(RBI)은 토요일 국가 신분증 번호인 아다르 번호를 은행계좌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성명서에는 요건이 돈세탁방지규정에 의거하여 효력이 유효하다고 되어있다.

인도중앙은행은 적용 가능한 경우, 아다르 번호를 은행 계좌에 연결하는 것은 돈세탁방지 (2017), 제 2차

개정규칙에 의거하여 의무사항이라고 성명서에 밝혔다.

인도중앙은행은 2017년 6월에 발표 된 돈세탁방지 규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은행은 추가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 생체 인식 신분증 프로그램인 아다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촉발시켰다.

8월 대법원은 사생활보호는 근본적인 권리이며 판결은 나렌드라모디 총리의 정부가 신분증 번호를 은행 계좌나 휴대폰 번호 등과 연결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거라고 예상하고있다.

(전지영)



<http://profit.ndtv.com/news/banking-finance/article-rbi-says-linking-aadhaar-number-to-bank-accounts-mandatory-1765333?pfrom=home-lateststories>

틸러슨, 중국에 맞서 인도와의 유대를 외치다.

2017. 10. 24. BBC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인도와의 협조를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를 "전략적관계"의 "파트너"로 묘사하며 미국은 "비민주적 사회의 중국과는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끔씩 베이징은 국제적 협약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며 남중국해 분쟁을 예로 들었다.

이 발언은 다음주에 행해지는 틸러슨 국무총리의 인도방문에 앞서 나온 것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국을 포함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 할 예정이다.

워싱턴에 위치한 전략국제연구센터 싱크탱크(CSIS)에서 틸러슨은 "미국은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나 중국의 규칙기반질서에 대한 도전과 중국이 주변국의 주권을 좀먹고 미국과 우리 우방국에 불이익을 가하는 것에 대해 몸 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인도는 "더욱 커가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동질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묘사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당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앞으로 국제문제에서 베이징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사한 이후 몇 시간 뒤 나왔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강력한 초강대국이 되었다"고 하며 공산주의하의 중국의 발전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지난 화요일 연설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행위"를 비난하면 중국이 "미국과 인도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국제법과 규범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인도와 나란히 성장하였으나 책임감없이 행동하고 번번히 국제적인 규칙기반의 질서를 훼손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인도가 지역내에서 더 큰 안보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인도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주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또 지역구조내에서 타국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이어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베이징은 "절대 패권의 추구나 신장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타국의 국익을 희생시키면서 발전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중국은 "규칙기반의 세계 질서를 수호하고 기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보미)



<http://www.bbc.com/news/world-asia-41675796>

뉴델리역을 개선하기위해 위원회 구성되다.

2017. 10. 26. Hindustan

염두해두고 있던 뉴델리역의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에 큰 규모의 보수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위 관료들의 위원회 또한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역내 문제점들을 찾아 낼 것이며, 이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종합적인 작업계획을 세울것이다.

이 작업계획에는 역내 모든 승강장, 역건물, 울타리, 주차지역, 열차의 운행, 소포의 운송역의 신호, 안전관리 및 청소등 역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것들이 포함된다.

현재 역에는 지난 일들에 대해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계획들이 준비 되어있다.

빠른 시일내 해야하는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역내 승강장과 도로 수리 작업부터 시작된다.

이외에 역내의 승인되지 않은 주차구역과 교통혼잡을 관리하기 위해 교통요원을 배치할 것이다.

또한 역의 보안강화를 위해서 이동식 CCTV카메라로 실시간 감시와 비허가 차량을 쫓아내 도움이 될것이다.

역밖의 차선은 다시 디자인 될것이다.

첫번째는 인도로써 보행자를 위해, 두번째는 차선으로써 자가용 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번째 차선은 오토릭샤와 택시를 위해서 만들어 질것이다.

하나의 특별한 차서는 오로지 택시들을 위해서 만들어 질것이다.

역에는 이외에도 많은 개발이 구상되어있다.

(김동혁)





<http://www.livehindustan.com/ncr/new-delhi/story-new-delhi-railway-station-1612571.html>

이제 모바일에서 이것을 보여줘도 공항 입구를 갈 수 있을 것이다.

2017. 10. 28. JANSATTA

모바일베이스(M-base)는 이제 공항 진입을 위한 신분 카드로 사용된다.

동시에 부모와 함께 오는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Civil Aviation Security Bureau(BCAA)는 공항에 진입하기 위한 원형 카드를 발행했다.

BCAS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승객은 공항에 입장하기 위해 10개의 신분증 중 하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권, 유권자 신원 카드, 기본 또는 M-base 및 PAN 카드 및 운전 면허가 포함된다.

BCAS에서 10월 26일 발급한 회람에 따르면, "합법적인 여행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유효한 항공권으로 여행하기 위해 다음 사진 증명 서류(원본 형식) 중 하나와 함께 휴대해야 합니다. 승객의 보안과 수사 중에 분쟁이나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외에도, 여권, 통장, 연금 카드, 중앙 은행/지방 정부, PSU, 지방 단체 및 사립 유한 회사의 국유 은행 및 신분증의 사진, 장애인 신분증도 유효하다. 학생들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이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다.

명시된 순서대로, "유효한 승객이며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학부모는 이 상황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자가 이 10개의 서류 중 하나를 보여주지 못하

면 중앙 정부의 A 그룹의 Gazetted Officer가 발급한 신분 증명서를 보여줄 수 있다.

국제 여행객은 여권과 비행기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언지)



<http://www.jansatta.com/national/how-m-aadhaar-will-be-able-to-show-in-airports-and-get-entry/468694/>

인도 첸나이에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몬순 비

2017. 11. 04. BBC INDIA

현재 인도 남쪽 도시 첸나이의 많은 양의 몬순 비는, 2015년 도시를 마비시키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일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홍수에 대한 심각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통학을 금지했습니다.

전 도시에 걸쳐 물에 잠긴 도로는 교통 혼란을 일으켰고 비행은 연착되었습니다. 타미лна두 주의 해안 도시들 또한 폭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부터, 벵골 만의 저기압에 의해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의 몇몇 지역은 이미 물에 잠겼으며, 이 상황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BBC 기상은 첸나이의 강우량은 다음 몇 일 동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트위터에 언급했습니다.

기상청은 간헐적인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지방 자치 의원인 카티키안씨는 공항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비는 곧 그칠 것이며, 지난 2015년 도시에 한 세기 만에 기록적으로 가장 많은 폭우가 내렸던 상황은 피할 것이라고 NDTV 뉴스 채널에서 말했습니다.

2015년, 첸나이에 이를 동안 계속된 폭우 이후 발

뉘인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인도 육군과 공군 병력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도로들은 강과 같았고 지하철은 물로 차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는 감전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 공급을 중단했었습니다.

2015년 홍수의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호수와 강 바닥의 침식이 첸나이의 심각한 홍수 문제를 일으켰다" 결론 지었습니다.

(윤영환)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41828304>

Hardik Patel 의 주장: BJP가 '가짜 성관계 CD' 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2017. 11. 04. Times of India

BJP가 '가짜 성관계 CD'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Hardik Patel 의 주장

아메다바드: 지난 금요일, Patidar (주로, 인도 구자라트에서 발견되는 계급) 할당 선동 시위 지도자 Hardik Patel씨는 BJP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그를 성관계 CD로 음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BJP는 나를 깎아 내리기 위해 가짜 성관계 CD를 준비했으며, 그것을 선거 직전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 외에 BJP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다리고 보고 즐기십시오."

어떻게 CD에 대해서 아냐고 물었을 때, "이것은 BJP당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라고 그는 답했습니다. BJP당 대표인 Jitu Vaghani는 Hardik의 혐의에 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Hardik는 또한 결함 있는 VVPAT(유권자 확인을 위한 종이 감사추적, 투표 결과를 기록한 일종의 영수증을 자동으로 종이에 출력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와 EVMs(프로젝트의 비용, 일정 그리고 기술 측면 등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비한 실제 성과를 측

정, 분석하는 관리체계)가 구자라트 투표소에 사용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3,550 VVPAT 시스템은 선거 관리 위원회의 첫 단계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BJP는 투표소에서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경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관리 위원 Rawat씨는 말합니다.

"EVMs/VVPAT의 첫 확인 단계에서 실패 비율은 3%-4%였습니다. 구자라트 여론 조사를 위해 선거에 배포된 총 70,000건의 'VVPAT로 이용 가능한 EVMs'의 결과, 실패 비율이 5%였습니다. 약간 증가된 실패 확률은 직원들이 'VVPAT로 가능한 EVMs' 처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구자라트의 선거 책임자인 Swain씨는 말했습니다.

"EVM 기기가 다른 주에서 운송되어지기 때문에, 첫 확인 단계는 모든 주와 같은 기준 절차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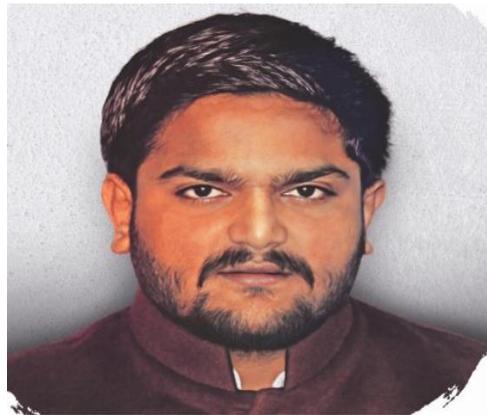
Hardik씨는 처음 꺼림칙한 선거에서 고등 법원의 판결 이후에 VVPAT를 도입되어야만 한다고 TOI에 말했습니다.

그 기계가 몇몇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BJP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도입 할 것입니다."

Hardik씨는 BJP당이 선거에 앞서 집단적 긴장과 심지어는 폭동까지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영환)



아미타부는 왜?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 라

고 말했는가?

2017. 11. 05. BBC Hindi

볼리우드의 슈퍼스타인 아미타 바찬 (Amitabh bachchan)은 75세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커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작은화면을 만들고 있으며 많은 제품의 광고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미타바찬은 이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헤드라인에 대한 갈망이 없어 보입니다. 일요일에 바찬은 그의 블로그에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언론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아미타바찬은 그의 블로그를 통해 언론의 기능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미디어가 항상 첫 번째 정보를 가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이 민주주의의 네번째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뉴스를 발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이 시리즈에서는 다른 출처를 통해 질문을 저에게 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때로는 거짓 비난에 대해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진실로 취급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미타 바찬은 또 "오늘날의 미디어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침까지 모든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하루 아침에 알려 집니다. 뉴스 헤드 라인은 소셜 미디어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 집니다."

"전자 매체는 인쇄보다 빠르며 바로 뉴스로 만들어 집니다. 다음날 뉴스에 출연할지 여부는 그들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아미타 바찬은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어떤 미디어는 나를 칭찬합니다. 나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나에게 대한 혐의가 있다면, 제대로 처리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꺼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끔 침묵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풀리면, 나는 모든 기관들 앞에서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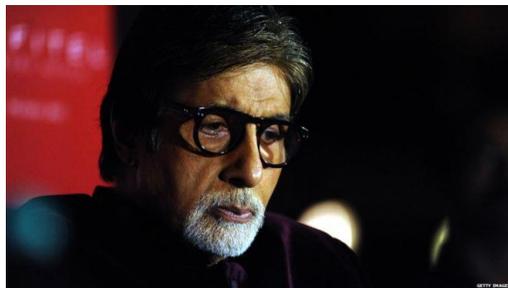
블로그 끝에 아미타 바찬은 이시대에 와서 평화를

찾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나는 내 인생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살고 싶다. 나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나는 헤드라인에 올 의사가 없다. 그만큼 가치도 없고, 정체성을 만들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 가치가 없다." 라고 덧붙였다.

아미타바찬 는 자신의 블로그를 트위터에 공유했다.

(허다영)



<http://www.bbc.com/hindi/social-41874969>

영화 빠드마와띠: 산제이릴라 감독, 알라우딘 킬지와 빠드마와띠 사이의 로맨스신은 없다 주장

2017. 11. 09. Hindustan Times

여럿 정치 단체들이 개봉예정 영화 '빠드마와띠 (Padmavati)'의 상영금지를 요구함에 따라 감독 산제이 릴라 반살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수요일에 게시 된 유튜브 비디오에서 그는 이 영화는 라즈푸트의 명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떠한 묘사도 없다고 되풀이했다.

(산제이 릴라 반살리 감독의 영화 "파드마바티"는 13-14세기 인도 라즈푸트 왕국의 왕비 라니 파드미니가 델리의 술탄 알라우딘 킬리지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전해듣고 성을 포위하자 붙잡히기 전, 자신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를 담았다.)

이 논란에 대한 언급을 삼가오던 반살리는 비디오에서 "저는 이 영화를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라니 빠드마와띠의 이야기는 저에게 언제나 감명을 주었으며 이 영화는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소문으로 인해 이 영화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

다." 라고 말했다.
 "소문은 라니 빠드마와띠와 알라우딘 킬지 사이의 로맨스를 담은 장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미 이에 대해 부정하였으나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영화에서는 라니 빠드마와띠와 알라우딘 킬지가 함께 나오는 장면, 다른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대하 역사 드라마라고 일컬어지는 이영화는 디피카 파두콘이 라즈푸트의 영화 라니 빠드마와띠로, 샤히드 카푸르가 그녀의 남편 라왈 라탄 싱으로, 그리고 란비르 싱이 델리의 술탄 알라우딘 킬지로 출연한다.
 촬영 당시에도 이 영화는 논란에 빠졌는데 스리 라즈푸트 카르니 세나 라는 라즈푸트 조직의 운동가이자이푸르 촬영장에서 반살리 감독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나중에는 콜하푸르 지역의 촬영 세트가 파손되고 불타는 일도 있었다.
 그 당시에도 반살리 감독은 영화에서 빠드마와띠와 킬지 사이의 어떠한 로맨스 신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 후 영화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조용해졌으나 영화의 홍보가 시작되자 되살아났다.

(전지영)



<http://www.hindustantimes.com/bollywood/rani-padmavati-and-alauddin-khilji-have-no-such-scene-which-hurts-anyone-s-sentiments-bhansali/story-kjfx4yelcFNmualTm7wkuO.html>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

2017. 11. 10. BBC Hindi

2016년 11월 8일 저녁 모디총리는 8일 저녁에 500 그리고 1000 루피 지폐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 결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결정의 효과는 2일후에 나타났다.
 은행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 이중에 일부는 오래된 지폐를 예금하고 새로운 지폐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부들은 숨겨진 돈을 찾아 내고 저축하고 아이들은 돼지 저금통을 깨고 돈을 정리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빌린돈도 다 제자리로 찾아가고 정리가 되었다.
 화폐개혁을 한지 1년이 넘었다.
 bbc 힌디어 독자들에게 그들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질문 했다.
 Bbc 독자인 deepak towar는 그는 가장 싼 물건을 사고 상점주인이 물건을 빌려주었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잠에서 일어나서 줄을 섰고 새로운 지폐를 모았다고 한다.
 Harish pratap singh는 하루종일 사무실에 있을때 돈을 인출할수 있는 ATM 기계를 밤새 검색했다고 한다.
 Gyaneudra kuwer는 은행이 열리자마자 즉시 500루피 3장을 바꾸었고 처음에는 하루에 150 루피만 쓰고 생활 했다고 한다.
 krishan pratop는 그는 하루에 500루피 정도의 지폐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하루에 100루피 정도 휘발유를 충전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른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허다영)



<http://www.bbc.com/hindi/social-41942646>

런던에서 스모그로 4000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같은 상황이 델리에서도 일어났다!

2017. 11. 10. JANSATTA

수도인 델리는 가스실이 되었다.

연기가 섞인 스모그는 유독한 공기로 인해 아이들의 학교를 닫게 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때는 1952년이였다. 이 동안 4천명이 사망했다. 산업혁명 이후 여러 공장들이 런던에서 운영되었다. 이 기간 동안 유독 가스로 인해 사람들은 질식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그 다음, 런던의 12월 추운 겨울이었다. 1952년 12월 4일 오후, 템즈 강과 그 주변 하늘에 검은색의 짙은 담요같은 안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처음엔 안개라고 생각했다.

차가운 바람이 나라의 서쪽 해안에 이르자마자 하늘이 두꺼워졌다. 추위로 인해 사람들이 석탄을 태우고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여서 하늘에는 연기가 증가했다.

게다가, 런던에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양의 오염이 있었다. 런던의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에서도 유독 가스가 나왔다.

석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황과 한동안의 연기로 인해 거대한 스모그 시트가 하늘에 퍼졌다.

12월 5일 아침에, 스모그의 두꺼운 층이 수백 평방 마일의 하늘에 앉았다. 이 유독 가스 연기는 런던의 하늘에서 두꺼워졌다.

12월 7일 아침 런던 시민들은 햇빛을 볼 수 없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야가 5-10미터로 감소했다.

Kudrat의 이 혼란은 런던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고를 초래했다. 많은 열차가 서로 충돌했고, 런던 브릿지의 두 열차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영향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인간과 동물이었다. 사람들이 구토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런던 병원은 호흡기 환자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산소 부족으로 수면 중 사망했다.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런던 메트로폴리스에서 공식 사망자 수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약 4천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일부 수치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1만 2천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런던 정부는 많은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런던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다음번에는 100명이 또다시 사망했다. 오늘날 델리에서도 건강 기준에 대해 거의 같은 위험한 상태가 있었다.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잘못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기다릴 것이다.

(이연지)



<http://www.jansatta.com/rajya/new-delhi/delhi-air-pollution-reaches-to-the-level-of-killer-london-smog-of-1952-hindi-news/481443/>

뭄바이: 기차가 기관사없이 13km 운행되었고, 철도청 직원이 오토바이로 기차를 뒤쫓음

2017. 11. 11. Zee News

이 사건은 할리우드 드라마 못지않았다.

이 기차는 직원이 멈춰 세우기 전까지, 마하라슈트라 지역의 와디역에서 약 13km를 기관사 없이 이동했다. 이 직원은 기차를 멈춰세우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수 킬로미터를 뒤쫓았다.

그동안 주변의 역들은 신호와 철로를 없애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마침내 기차를 따라잡았고, 뛰어올라 기차를 멈춰세웠다.

수요일 오후 세시쯤, 첸나이-뭄바이 기차가 깔라부라기 지역의 와디역에 도착한 후 그 기차는 전기 엔진에서 디젤 엔진으로 교체되었다.

솔라뿌르로 가는 뭄바이 기차에 디젤 엔진이 부착되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 동안 '실수'라고 표현된 어떠한 이유로 인해 풀린 전기 엔진은 기관사가 나간 후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기관사는 멍하게 구경만 했고, 와디역 관계자는 다

음 역들에 신호와 철로를 없애라고 알렸다.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의 기차도 모두 멈춰세웠다. 전기 엔진은 계속 움직였고, 날와르 역 근처에서 기차의 속도가 느려졌을 때, 기차를 뒤쫓던 철도청 직원은 가까스로 기차에 오를 수 있었다. 그때까지, 엔진은 약 13km를 달렸다. 한편, 철도청 관계자는 전기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특별팀의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영)



<http://zeenews.india.com/india/mumbai-train-runs-without-pilot-for-13-km-railway-staff-chases-it-down-on-motorbike-2055834.html>

타지마할에서 네팔인 여행객들 곤란을 겪다.

2017. 11. 15. Hindistan
 월요일 타지마할을 보기 위해 온 12명의 네팔인 여행객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12명의 네팔인 여행객들이 타지마할을 보러갔을 때 가이드는 그들을 속였다. 가이드는 티켓값으로 각각 500루피씩 받았다. 그렇지만 입구에서 네팔인 여행객들은 인도인 티켓을 받았다. 타지마할 내에서 검사를 하는동안 모든 여행객들은 붙잡혔다. CISF 는 관광경찰로 불린다. 그들은 여행객들을 조사후 이번 사건을 기록했다. 월요일 델리의 빠하르칸즈에서 투어리스트 버스가 왔다. 이 버스에는 나왁이라는 가이드와 여행객들이 있었다. 그 여행객들은 12명의 네팔인들이었다. 여행객들은 타지마할로 가고 있었다.

가이드는 여행객들에게 요즘 검사할 때는 자신이 아쌘지역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지마할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만약 당신들이 네팔인이라고 하면 검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해가 지면 타지마할도 문을 닫는다. 여행객들도 이와같이 타지마할에서 나와야한다. 이렇게 나가는 동안 여행객들이 붙잡혔다. CISF는 여행객들에게 손을 모으라고 말했다. 여행객들은 CISF에게 모든 이야기를 말했다. CISF는 증거들로서 가이드가 사기쳤다는 것을 알았다. 네팔은 SAARC 국가 중 한 국가이다. SAARC 국가의 여행객들에게 타지마할 입장티켓은 350루피이다. 그렇지만 티켓마다 500루피를 받았다. 그리고 40루피짜리의 인도인티켓을 여행객들에게 줬다. 여행객들이 붙잡혔을 때 가이드는 그 곳으로부터 도망쳤다. CISF는 여행객들의 사건에 기초하여 가이드의 반대하는 것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곧 가이드는 잡히게 될 것이다.

(김동혁)



<http://www.livehindustan.com/uttar-pradesh/agra/story-nepali-tourists-cheated-by-guide-in-agra--1643819.html>

모디에 의해 할레된 무슬림 여성들

2017. 11. 21. JANSATTA
 Dawoodi Bohra 지역 사회 출신의 많은 여성들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접근하여 소녀의 성추행에 관해 도움을 주었다. 이 여성들은 할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의 날에 대한 온라인 캠페인이 Wispiakout Banner에 소개되었다. 우리에게 할레에 반대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나라에서는 소녀들이 할례를 받지만 예방 차원에서만 처방된다.

Bohra 지역 사회의 여성들은 중앙 정부에 적어도 주 정부와 Bohra Syedna에 자문을 요청하고 할례 전에 IPC와 POSCO의 위반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PM Modi에게 보냈다.

할례는 또한 포스코법에 따라 성희롱을 규정한다.

이 문제는 이미 여성과 아동 발달국에서 할례를 받게 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만료되었으므로 약속을 포기했다.

Bohra 커뮤니티는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 편지에 할례는 성인 여성이나 소녀의 삶에서 깊은 정서적, 성적 및 신체적 결과를 초래하는 성폭력의 한 유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제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해로운 관행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Msuma Ranalvi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에게 이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폐지해야 한다고 PM이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 전에도 Bohra 공동체는 할례를 요구하는 편지를 국무 총리에게 보냈다.

(이언지)



<https://www.jansatta.com/national/dawoodi-bohra-community-womans-request-pm-narendra-modi-that-declare-female-genital-mutilation-illegal/492236/>

Jaish-e-Muhammad (자이쉬 무함마드)는 Lashkar-e-Tayyiba(라쉬카르 타이바)의 도움을 받아, BJP당 대표자들을 겨냥하기 위한 공격

대상 명단을 준비함

2017. 11. 22. Zee News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테러 조직인 자이쉬 무함마드 (Jaish-e-Muhammad)는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정부의 일부 내각 구성원을 포함한 BJP (Bharatiya Janata Party) 최고 지도자들을 공격할 명단을 작성했다고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자이쉬 무함마드의 수장인 마수드 아즈하르는 공격 대상 명단에 있는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특별한 암살단도 조직했다고 한다.

자이쉬 무함마드는 2008년 뭄바이에 테러 공격을 한 무서운 테러단체인 하피즈 사이드의 라쉬카르 타이바와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

이 두 테러단체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간부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사신회성 있는 보도라면, 이미 몇몇의 테러리스트는 인도에 몰래 침입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이 테러단체는 주 수상을 겨냥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마수드 아즈하르의 조카가 잠무 까슈미르 주의 풀와마 지역에서 유엔 안전 보안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살해 된 자이쉬 무함마드의 테러리스트는 딸하 라쉬드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테러리스트 단체의 현지 사령관으로도 활동했다.

자이쉬 무함마드 수장의 조카 외에도 두 명의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살해당했다.

한 명은 사단의 사령관인 무함마드 바이이고 다른 한 명은 드롭캅 풀와마에 살고있는 와심이다.

합동 작전은 중앙 예비 경찰군 (CRPF), 라스뜨리아 라이플스 (RR) 그리고 풀와마의 칸디 아글라르 마을의 잠무 및 카슈미르 경찰에 의해 수행되었다.

미국에서 제작된 M4 카빈 총은 현장에서 회수되었다.

이것은 잠무 까슈미르 주에서 무기가 회수 된 첫 번째 사례다.

그리고 군은 러시아제 AK-74총도 현장에서 회수했다.

(전지영)



<http://zeenews.india.com/india/jem-prepares-hit-list-to-target-top-bjp-leaders-gets-help-from-let-2059039.html>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42091884>

한 기자의 죽음에 대한 저항으로 빈칸을 남긴 인도 신문들

2017. 11. 23. BBC News

이번 목요일, 북동쪽 트리푸라 주의 신문들이 고위 군인 관리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자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사설공간을 비워두었습니다.

수요일에 군 지휘관인 '타판 데바르마'씨는 그의 부하에게 '수디프 두타 보우믹'의 총격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화요일에 보우믹씨가 회의 참석 중이던 데바르마씨의 사무실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의 편집자인 '수달 꾸마르 디'씨는 보우믹씨가 그의 기사 때문에 살해당했으며, 그의 "유일한 잘못"은 수 많은 재정적인 부정부패를 공개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 뉴스기사들은 항의 표시로 사설 칸을 비워 놓았습니다.

주 정당 역시 보우믹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많은 회사들에게 하루 문을 닫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살인은 남쪽 도시 벵갈로르의 저명한 기자였던 '가우리 란게시'가 베일에 쌓인 범인에게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윤영훈)

모디 총리 고향의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2017. 11. 25. BBC Hindi

2014년 인도의 총리가 된 이후, 나렌드라 모디는 정부의 깨끗한 나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BBC 힌디의 프리얀카 두비아는 그 정책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보기 위해 모디의 고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자라트 주의 서쪽에 위치한 바드나가르 도시에 갔을 때, 반짝반짝 빛나야 할 정부의 주력 사업인 'Swachh Bharat Abhiyan'와 '깨끗한 인도'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구자라트 메샤나 지역의 지방자치체인 바드나가르는 모디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며, 현재 역사의 중요성을 가진 관광 장소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달리트(불가촉천민)들이 있는 곳인 로빗 바스에 갔을 때, "당신은 바드나가르의 와이파이존에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보의 노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변에 화장실에 대해 물었을때, 내용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 학생들 그룹이 나를 주변의 땅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이 매일 아침 볼 일을 보는 곳입니다.

로빗 바스가 여전히 남성과 여성들을 위해 나뉜 배설 장소가 있다는 사실은 모디가 자신의 마을에 화장실에 짓기 위해 할당하기로 했던 10.9백만 기금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딕샤 벤(30)은 이 지역의 오물 배수로는 항상 열려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의 어린 소녀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또한 볼일을 보기 위해 저곳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한 집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집도 받지 못했으며, 그 누구도 화장실에 대해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BBC에 말했습니다.

(윤영훈)

GES(세계 기업가정신 정상회의)-2017: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기업가들을 초청함

2017. 11. 29. The Hindu

"오세요, 인도에서 만드세요, 인도에 투자하세요, 인도를 위해 세계를 위해"

라고 모디가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화요일, 자신의 정부는 기업가 정신이 번창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책 환경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Ivanka Trump), 두 명의 장관 그리고 델랑가나의 주 수상인 찬드라 세카르 라오(K. Chandrasekhar Rao)가 참석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는 세계 기업가 정신 정상회담 (GES)을 개최하면서 세계의 기업가들에게

"오세요, 인도에서 만드세요, 인도에 투자하세요, 인도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라고 말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인도 성장 스토리의 파트너가 되라고 초청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라고 인도와 미국 등 150개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인도의 신진 사업가들을 변화의 원동력이자 인도의 새 시대를 열 길잡이라고 표현하며 개개인 모두가 2022년까지 새로운 인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모디총리는 투자자 친화 환경 형성과 암시장, 탈세 및 검은돈을 뿌리뽑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주도 노력을 강조하며 GES가 주관하는 이 포럼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최근 '무디'가 인도 정부 채권 등급을 올림으

로써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하며

"이러한 발전은 대략 14년의 공백 이후에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과 인도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3 일간의 GES는 연례 행사 중 남아시아의 첫 번째 순방으로 '여성 우선, 모두를 위한 번영(Women First, Prosperity for All)' 을 주요 테마로한다.

그리고 대표단의 50 % 이상이 여성이다.

<여성 교육>

이방카 트럼프는 여성기업가들이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화의 주체 되기: 여성 기업가의 리더십" 관련 패널 토론에 참여해서 그녀는 기술이 모든 삶의 영역들을 혼란시켰고, 여성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컴퓨터 과학을 교육하고 기술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창업자와 여성 기업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우선권을 정립한 국방부 장관인 니르말라 시따라만은 푸시는 여성들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기술은 여성들 스스로로부터 과소평가 되었다.

인도의 환경은 여성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지영)



<http://www.thehindu.com/news/national/ges-2017-narendra-modi-invites-global-entrepreneurs-to-invest-in-india/article21040290.ece>

버락 오바마의 델리대담은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일부이다.

2017.12. 02. NDTV

버락 오바마 미국 전대통령은 오늘 인도방문이 그의 대통령직 사임 이후 가장 큰 단일 임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바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차세대 리더십을 양성하는 임무를 말하는 것이다.

오바마 재단이 주관하는 이 델리대담에서 그는 인도 전역에서 모인 약 300명의 젊은 남녀들에게

"내가 주력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차세대 리더십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단의 핵심 목표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젊은 인구를 보유하는 인도는 그에게 중요한 곳 이라고 하며 인도와 미국은 둘다 다양성과 많은 공통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나라의 관계가 "21세기의 파트너십을 정의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미래의 흐름을 그려 나가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젊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100%를 얻을 수 없다며 점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정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종종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편 진영보다 그에게 표를 던진 진보적인 진영에게 더 많이 공격받아왔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의 직원들에게 우리의 목표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것 이라고 항상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온라인 활동가에 그치지 말고 사람들에게 섞여 일하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을 충고했다.

행사를 앞두고 오바마의 수석 국제 고문, 벤 로즈는 NDTV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는 젊은 리더들로부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또 어떻게 오바마재단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듣고 배우기 위해 이 곳에 왔다. 오바마 재단은 젊은 리더들의 네트워크 성장을 돕고 그들이 하는 일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홍보할 수 있길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르길 전쟁 영웅인 아버지 만딕싱 대위가 파키스탄이 아닌 전쟁에 의해 죽임 당한 것이라는 반(反)전 메시지로 작년 논란에 휩싸인 구메하르 카우르도 초대받은 인물 중 한명이다.

그녀는 "일어나서 메일을 확인하니 오바마 재단으로부터의 초대장이 있었다.

나는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과 여성인권에 대한 태도를 존경해왔다.

그와 차세대 리더들과의 만남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 이라고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김보미)



<https://www.ndtv.com/india-news/barack-obamas-delhi-town-hall-part-of-his-most-important-mission-1782551>

UP 투자자 정상 회담: 첫 번째 로드쇼 델리에서 개최할것

2017. 12. 08 Hindustan

내년 2월 21일 22일에 러크나우의 인디라 간디 뿌라띠산 홀에서 열릴 우따르 뿌라데시 투자자 정상회담을 위한 첫 번째 로드쇼가 금요일 델리에서 개최 될것이다. 이 로드쇼는 델리의 타지마할 호텔에서 열릴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따르 뿌라데시 주정부의 산업개발부 장관 사피시 마하나와 더불어 다른 부서의 간부들과 투자자들이 만나고 내년엔 러크나우에서 열릴 회담에 초대할것이다.

또한 경제 산업 개발부의 위원인 아누 쟄드르 뽀데이, 경제 산업 개발부의 주요비서인 알록 신하를 비롯해 다른 관리들도 포함 된다.

이 로드쇼 다음으로는 벵갈로르, 하이드라바드, 아하메다바드, 뭄바이와 콜카타에서 로드쇼가 개최될것이다. 금요일에 열릴 로드쇼에는 산업부 장관 사피시 마하나 와 로드쇼 우따르 뿌라데시 투자가정은

홍보될 것이다.

(김동혁)



<https://www.livehindustan.com/uttar-pradesh/story-up-investors-summit-first-roadshow-in-delhi-today-1685448.html>

다른 종교의 사람과 결혼을 해도 아내의 종교는 바뀌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2. 08 JANSATTA대법원은 목요일 봄베이 고등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결혼 후 여성의 종교는 남편의 종교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한 바르 사드 파르시 트러스트에게 침묵의 탑(Tower of Sciences)에 있는 여성의 입국과 부모의 마지막 예식을 제한한 결정을 재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Deepak Mishra 판사, AK Sikri 판사, AM Khanvilkar 판사, DY Chandchud 판사 및 Ashok Bhushan 판사는 공동체 밖에서 결혼한 파르시 사람이 침묵의 탑에 가야한다는 것은 분명히 임의의 태도라고 말했다. Parsi Trust는 Gulrok M Gupta라는 여성이 침묵의 탑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벤치는 결혼이 결코 여성의 권리를 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벤치 장관은 Gulrok을 대표하는 수석 옹호론자인 Indira Jaisingh의 탄원에 대해 "결혼은 아내가 남편에게 맹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벤치는 처음에 이 항병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봄베이 고등 판결에 반대하면서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대법원에서는 Goloch의 변호사, 그의 여동생 Shiraz 계약자 Patodia. 그들의 부모는 84세였다.

그들이 금지되었을 때 그들은 부모의 마지막 예식에 대한 고등 법원의 허락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등 법원은 신탁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후 최고 법정에 직면해야 했다. 대법원은 특별 결혼법에 대한 자이징

의 주장을 고려할 때 "특수 결혼법은 다른 종교를 믿는 남녀가 결혼한 후에도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다. 그러한 여성의 종교는 결혼 이후에 남편과 동일해야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자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종교를 포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파시 트러스트에게 엄격한 태도를 떠나 부모에 대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요청했다.

(이연지)



<https://www.jansatta.com/national/wifes-religion-doesnt-merge-with-husbands-post-marriage-sc-on-parsi-row/511053/>

인도-중국, 이번 주 금요일 도클람 분쟁 이후 첫 국경회담

2017. 12. 12 The Times of India

뉴델리 : 인도와 중국이 도클람에서 73일의 긴 군사 대치 후 처음으로 금요일 국경회담을 계획할 것이다. 외무부는 수요일, 인도 국가 안보 보좌관인 아жит 도발 (Ajit Doval)의 초청으로 중국의 양제츠 (Yang Jiechi) 국무 위원이 국경문제 특사 자격으로 12 월 22 일 스무 번째 고위급 회담을 위해 인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담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후아 춘잉 (Hua Chunying)은 기자회견에서 SR 회담이 국경 문제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자 전략적인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2017년 중국-인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도클람 사건이 양국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후아(Hua)는 말했다.

인도 군은 중국 군이 인도의 '담 모가지'라는 회랑 근처에 도로 건설을 하는 것을 중단시키면서 인도군

과 중국군은 6월 16일부터 국경대치로 국경에 발이 묶였었다.

8월 28일 인도는 양국의 군사들이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그 도로는 부탄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서 중국군에 의해 건설되고 있었다.

(전지영)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india-china-to-hold-border-talks-on-friday-first-after-doklam-standoff/articleshow/62179817.cms>

델리 지하철의 답변 - 사고는 시운전 중에 일어나지 않았고, 새 열차는 운전자 없이 운행되지 않을 것이다

2017. 12. 20 JANSATTA

Magenta Line이 시작되기 전에, 델리 지하철의 비극이 있었다. 수요일, 델리 메트로 레일 코퍼레이션 (DMRC) 대변인인 Anuj Dayal은 시운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차고에 있는 객차가 앞뒤로 가는 비극이었다. 그는 그 문제가 다소 감각적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운전자가 없는 기차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일 수도 있다. 즉, 기차에 운전자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운전사가 기차에 탑승한다는 것이다. 1, 2년 동안 운전자가 없는 열차는 운행하지 않는다. 열차는 자동 모드로 작동하지만 운전 기사가 기내에 배치되어 열차를 수동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절할 수 있다. 화요일 Kalindi Kunj 근처에서 큰 사고가 있었음을 알린다. 벽을 부수고 나서야 지하철이 나왔다. 좋은점은 이 사고에 사상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차의 전방 부분과 경계벽이 손상되었다. 사고 중에는 지하철에 운전 기사가 없었다. 처음에

이 사건은 기술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로 여겨졌다. Magenta Line은 12월 25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 날은 전 PM Atal Bihari Vajpayee의 93번째 생일이다. PM Narendra Modi는 이 기회에 이 길을 열 것이다. Uttar Pradesh의 Yogi Adityanath 총리도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다. 사건 이후 사건과 관련된 비디오도 등장했다. 이 선은 노이다(Noida)와 남부 델리(Delhi)를 연결한다. 이 델리 지하철 노선은 Kalkaji에서 Botanical Gardens까지 있다. 이 구간이 시작된 후에는 Noida와 South Delhi간에 여행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메트로 레일 안전 위원장은 지난 달 12.64km의 이 구역과 관련된 보안을 확보했다. 이 통로는 식물원-Jakapuri West (Magenta) 라인의 일부이다. 이 섹션에서는 새로운 지하철 열차가 운행된다. 동시에 CBTC 신호 기술은 90-100초 내에 열차 이동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가 설치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라운드에서 열차는 2~ 3년 동안 운전자가 있을 것이다. 현재 Noida에서 South Delhi로 이동하려면 Mandi House에서 지하철을 환승하고 Blue Line에서 Violet Line으로 환승해야 한다.

(이연지)



<https://www.jansatta.com/rajya/hot-trial-run-train-will-driverless-says-dmrc/524408/>

사고 : 안개로 인한 차량 충돌, 호주인 사망

2017. 12. 21 Hindustan

목요일 안개 낀 야무나익스프레스에서 세대의 차량 충돌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젊은 호주사람은 사망에 이르게됐다.

한명의 학생을포함,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의 희생자는 친구와함께 아그라로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가는중이었다. 경찰은 모든 부상자를 카일라

쉬 병원에 입원시켰다.

사고는 야무나익스프레스의 단까르 경찰서에서 11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의하면, 목요일 아침 8시경 안개로 인해 아그라로 향하던 로드웨이즈 버스(UP16 9282)는 트럭에 충돌했다.

이다음 버스는 조종할 수 없게되었고,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있던 라이더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호주국적의 라이더 매튜는 부상을 당했다. 그와함께 다른오토바이로 오고있던 호주국적의 라이더 벤넷 콜와트와 이완 보그는 무사했다.

그 사고에서 로드웨이즈 버스 운전자 다르멘드라와 안내원 뿌쉬벤드라, 승객 라세스와리, 학생 네하 팔은 부상당했다. 경찰은 그레이터 노이다에 있는 카일라쉬 병원에 모든 부상자들을 입원 시켰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호주인 매튜는 사망했다. 단까르 경찰서의 관리인은 젊은 외국인들의 오토바이는 경찰서가 맡고있다고 말했다.

(김동혁)



<https://www.livehindustan.com/ncr/story-accident-in-yamuna-expressway-due-to-fog-australian-died-1708119.html>

인도 힌두교 단체, 학교에 크리스마스 행사 하지말라 경고

2017. 12. 21 BBC India

힌두 자그란 만치 라는 힌두교 단체가 알리가르의 한 학교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다. 단체는 크리스마스 행사는 힌두교 학생들의 강제 개종을 부추기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알리가르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주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BJP가 통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모든 지방 당국은 크리스마스 축하행사를 방해하려는 이들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받았다고 말했다. 힌두 자그란 만치의 관계자

인 소수 사비타는 The Times of India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독교 학교의 힌두학생들은 크리스마스 축하를 위해 선물과 장난감을 가져오라는 학교의 지시를 받고있다. 이것은 그들을 쉽게 기독교로 유인하려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학교들이 우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학교 밖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다."라고 이 종교단체의 지역서기인 산주 바자즈가 말했다.

이 사건은 마드야 프라데시주에서 기독교로의 강제 개종을 시도한다는 신고로 캐롤을 부르던 6명이 체포된 지 몇 일 뒤 일어난 일 이다.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은 가톨릭 신학 대학의 교수였다. 그들이 속한 단체는 단지 마을에 들려 캐롤을 부르려고 했을 뿐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을 신고한 남성은 교수를 포함한 무리가 그에게 개종을 권유하며 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 당국은 힌두교 단체의 위협이 있는 후, 경찰에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보미)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42422596>

델리에 겨울이 왔다. 토요일 아침 8.6도 까지 떨어져

2017. 12. 29 Hindustan

오늘 델리의 아침온도는 8.6도까지 떨어졌다. 겨울의 평균온도보다 3도나 낮은온도이다.

기상학자에 의하면 아침 여덟시 반에 델리의 습도는 72%를 기록했다.

기상부에 의하면 새벽 다섯시 반의 가시거리는 1,500미터였지만 여덟시 반까지 증가하여 2,000미터가 되었다.

기상부의 관계자는 오늘 하루 하늘은 맑을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최고기온은 26도정도까지 오른다고 말

했다. 또한 최저기온은 8.6도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제는 7.6도 까지 떨어졌는데 11년동안 11월의 최저기온이었다. 최고기온은 26.5도로 기록됐다.

(김동혁)



<https://www.livehindustan.com/ncr/new-delhi/story-winter-in-delhi-8-6-para-reached-1663476.html>

Arun Jaitley 700억 루피의 자본을 투입해 RBI의 감시하에 있는 은행들을 구하려 함

2018. 01. 03 Financial Express

재정부는 Indradhanush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본 재구성 계획의 일환으로 높은 부실 자산으로 RBI(인도 중앙은행)의 감시하에 놓인 여섯 개의 PBS(Public Sector Bank)에 757억 루피의 자본 투입을 승인했다. 실제 자금 투입은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몇 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여섯 개의 PBS(Public Sector Bank)에는 Bank of India, IDBI Bank, Central Bank of India, Dena Bank, Bank of Maharashtra 그리고 UCO Bank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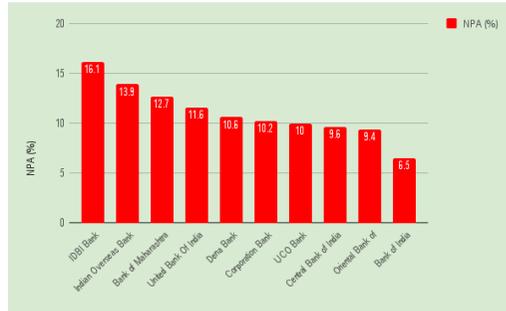
Indradhanush 계획에 따라 정부는 4 년간 7000억 루피를 할당했는데, 15-16 및 16-17 회계연도에는 2500억 루피, 17-18 및 18-19 회계연도에는 1000억 루피를 할당했다. 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본을 수령할 대출 기관으로는 Bank of India, IDBI bank 그리고 UCO bank가 포함된다고 PTI는 전했다.

실제 자금 투입은 몇몇 필수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난 후 몇 주 내에 이뤄질 것이다. 12월 20일, 재정부는 2016-2017 회계기간에 실적을 채우지 못한 13개의 PBS에게는 정부가 할당된 자금의 25%를 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5 년에 도입 된 Indradhanush 계획은 바젤 -III로 알려진 글로벌 리스크 규범에 따라 자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4 년 동안 국영 은행에 7000억

루피를 투입 할 계획이었다. 국가의 부실여신 상황이 악화되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좌예금출납장을 깨끗하게하고 경제 둔화에 대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서 부실한 은행 시스템 개혁을 위한 주요 절차에서 향후 2 년 동안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전례가 없는 2조 1100억 루피를 승인했다.

(전지영)



<http://www.financialexpress.com/industry/banking-finance/aron-jaitley-comes-to-rescue-of-banks-under-rbis-watch-to-infuse-rs-7000-crore-capital/1000389/>

타지마할을 보는데 3시간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2018. 01. 03 JANSATTA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인기 있는 타지마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전한다. 주말과 휴일에 수많은 관광객을 다루는 새로운 계획이 고려되고 있다. 타지마할을 보는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그 외에도 관광객 수를 결정한다. 중앙 정부는 인도 고고학 조사 (ASI)의 조언에 따라 곧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관광 문화부와 ASI 관계자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관광 문화부 장관인 Mahesh Sharma가 이를 알렸다. 그는 회의에서 ASI는 관광객 수와 시간을 결정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제안을 했으므로 관광객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연합 장관은 이러한 조언을 수락하는 것 외에도 정부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목요일(12월 28일)에 타지마할 입구는 입장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돌파구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부상당했다. 그 후, ASI 팀이 월요일 (1월 1일)에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그 팀은 조사 후 문화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고고학과에 따르면 평균

35,000 - 40,000명의 관광객이 타지마할을 보기 위해 매일 방문한다. 그러나 휴일과 주말에 이 수치는 60,000 - 70,000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균형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타지마할을 보러 오는 관광객 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동시에 사람들은 내부에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ASI 관계자는 방문객 수를 제한 한 후에는 40,000장의 티켓 판매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카운터가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별도로 티켓을 판매하여 지하실을 볼 수있는 것이 제안되었다. 약 2개월 전에 CISF가 ASI에 관광객 수를 통제하도록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준 군사 조직은 타지마할의 안전 외에도 관광객을 관리한다.

(이언지)



<https://www.jansatta.com/national/center-consider-on-new-proposal-to-control-visitor-at-taj-mahal-they-would-spend-only-three-hours-inside-the-monument/537239/>

1월 10일부터 7.75%의 저축 채권을 발행

2018. 01. 04 Business Line (The hindu)

재무부는 소매 투자자를 위한 7.75%의 새로운 저축 채권 제도를 고지했다. "인도 정부는 국민들과 대가족(HUF)이 통화 최대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 채권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2018년 1월 10일부터 7.75%의 저축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라고 재무부는 말했다. 1월 3일에 고지된 새로운 제도는 2003년에 출범한 8%의 과세대상 채권을 대체할 것이다. "수표 현금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 고지와 일주일의 간격이 필요했다."라고 경제부 장관인 Subash Chandra가 말했다. 이자는 반년마다 지급 가능하며 7년 후 1,000루피의 누적된 가치는 1,703루피가 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말했다. 이 채권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를 끌어 올 것이지만, 부유세는 면제될 것이다.

(전지영)



<http://m.thehindubusinessline.com/economy/finmin-offers-775-taxable-bonds/article10010797.ece>

600만루피 이상 쇼핑할 경우 보고서가 정부로 보내질 것이다

2018. 01. 18 JANSATTA

정부는 이미 2백만 현금 송금을 중단했으므로 정부는 6백만 거래를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채찍을 가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보기에 6백만 구입이 있을 것이며, 거리가 돈세탁을 위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이 Nijehavani jadis에서 보석이나 다른 비싼 물건을 구입할 것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 Hindustan Times의 한 소식통은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당국자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같은 한도가 현재 인도 통화로 1만 루피, 즉 6백만 38천 565달러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600만루피 한도를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나라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국은 집행 이사회 외에도 이 정책의 시행과 별도로 구매자의 수입과 구입한 상품의 불일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한다. 이 협약을 이행한 후에, 소매업자는 6백만 루피 이상을 구입할 때 Financial Intelligence Unit(FIU)에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 부대는 검은 돈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제안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흑자와 검은 돈

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존재하는 유일한 셀 회사 (네임 스페이스 회사)의 폐쇄를 포함하고 그러한 거래를 촉진하고 익명 거래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구매자에게 50,000루피의 거래에 펜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23일에 다이아몬드와 장식품 판매상이 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넘겨 줄 것을 요청한 통지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이 통보는 10월에 철저히 고정 경제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지면서 철회되었다.

정부는 또한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은행 및 모든 금융 기관은 100만루피 이상의 모든 거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부에서 오는 5백만 루피에 대한 주의 깊은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모든 구입과 5백만이나 그 이상의 부동산 판매에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금지령 이후, 은행에 5만 이상의 예치된 현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책이 이행되었다. 집행 이사회는 2백만 루피의 거래가 중단되었을 때 이를 말해 왔지만, 최근의 일부 세부 사항은 회계사들이 법적 बैंक 채널을 통해 독점적으로 흑자가 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연구에서 ED는 48%의 블랙 머니가 셀 회사를 금융 채널을 통해 유효하게 만들고 있음을 발견했다. 관계자는 거래가 현금이 아닌 경우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연지)



<https://www.jansatta.com/business/govt-to-scan-purchases-above-rs-6-lakh-mainly-luxury-goods-and-jewellery/552263/>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한 남성이 셀피 촬영을 하다 달리는 기차에 치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수천 번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헬스트레이너인 T Siva는 1월 21일 Borabanda 열차역 근처에서 주변사람들과 기관사의 경고를 무시하며 이 영상을 촬영했다. 남부 중앙 철도 경찰에 따르면 Siva는 생존했으나 심각한 머리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법정에 출두하여 500루피(한화 약 8000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초 길이의 이 영상은 수요일 페이스북에서 수천 번 공유되었다. 영상에는 주변사람들의 경고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기차에서 요란하게 반복되는 경적소리도 들린다. Siva는 "1분"이라고 말하며 움직이지 않고 영상 촬영을 계속하였다. 기차는 그의 머리와 몸 오른쪽 부분을 치고 휴대폰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빠른속도로 접근하는 열차 앞에서 셀프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 위험한 행동이 인도에서는 유행처럼 번졌다.

2017년 10월에는 카르나타카 주에서 3명의 십대들이 셀피를 찍으려다 기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으며 또다른 십대 2명은 델리의 철도위에서 셀피를 찍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젊은이들이 무모한 셀피를 찍기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셀피관련 사망사건의 대다수가 인도에서 발생했다. 피츠버그 카네기멜론대학의 박사과정 학생 Hemank Lamba와 그의 팀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발생한 셀피관련 사망 중 76건이 인도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인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셀피 사망이 기차와 관련이 있다며 Lamba는 이것이 "친한친구와 철도 옆이나 위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낭만적이고 영원한 우정의 사인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은 이 비디오를 공유하며 Siva의 행동이 충격적이고 위험하다는 반응이다.

(영상은 다음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42815483>)

(김보미)

셀피찍으려다 기차에 치인 남성

2018. 01. 27 BBC India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42815483>

랄길라 테러한 증범죄자 빌랄, 10일동안 경찰이 구금중

2017. 01. 11 Hindu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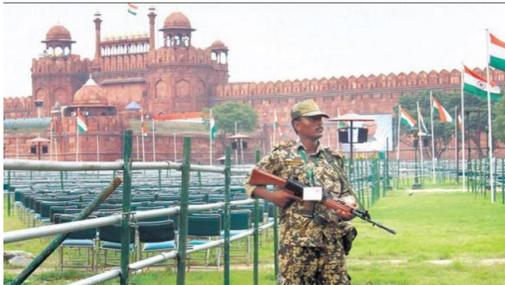
델리의 한 법원에서 2000년도에 랄길라에서 테러를 행해서 잡혔던 한사람을 10일간 경찰에 구금시켰다. 메트로폴리탄 고위 법관 덩싹 셰흐라바뜨는 델리 경찰에게 빌랄 아하마드 까와의 10일간 구금하는것을 허가했다.

델리 경찰과 구자라뜨 반테러 부대(ATS) 는 랄길라에서 테러를 행했던 범죄자 빌랄 아하마드 까와를 수요일 델리 공항에서 잡았다. 2000년 12월 22일에 랄길라 테러중 두명의 군인과 세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경찰은 빌랄과 라식가레 떼아바와 관련이 있다고 했고 터미널 3에서 잡았다.

또한 빌랄은 테러를 위해 여러 은행계좌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0년부터 카슈미르 지방에서 숨어왔다고 주장했다.

(김동혁)



<https://www.livehindustan.com/ncr/story-red-fort-attack-delhi-court-sends-accused-bilal-ahmed-kawai-to-10-day-police-custody-1743402.html>

델리 : 바와나 산업지역에 있는 폭죽 공장에서 화재, 17명 사망

2017. 01. 20 Hindustan

델리의 바와나 산업지역에 위치한 플라스틱 창고의 화재로 15명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경찰에 의하면 화재에 의해 5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반면에 소방청에서는 열 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창고에서는 세 시반쯤에 불이났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3-4시간 동안 소방차를 이용했다.

한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를 진압 했다고 말했다.

이 화재는 오후 세 시반쯤 발생했고, 7시쯤에 진압됐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소방관들은 도착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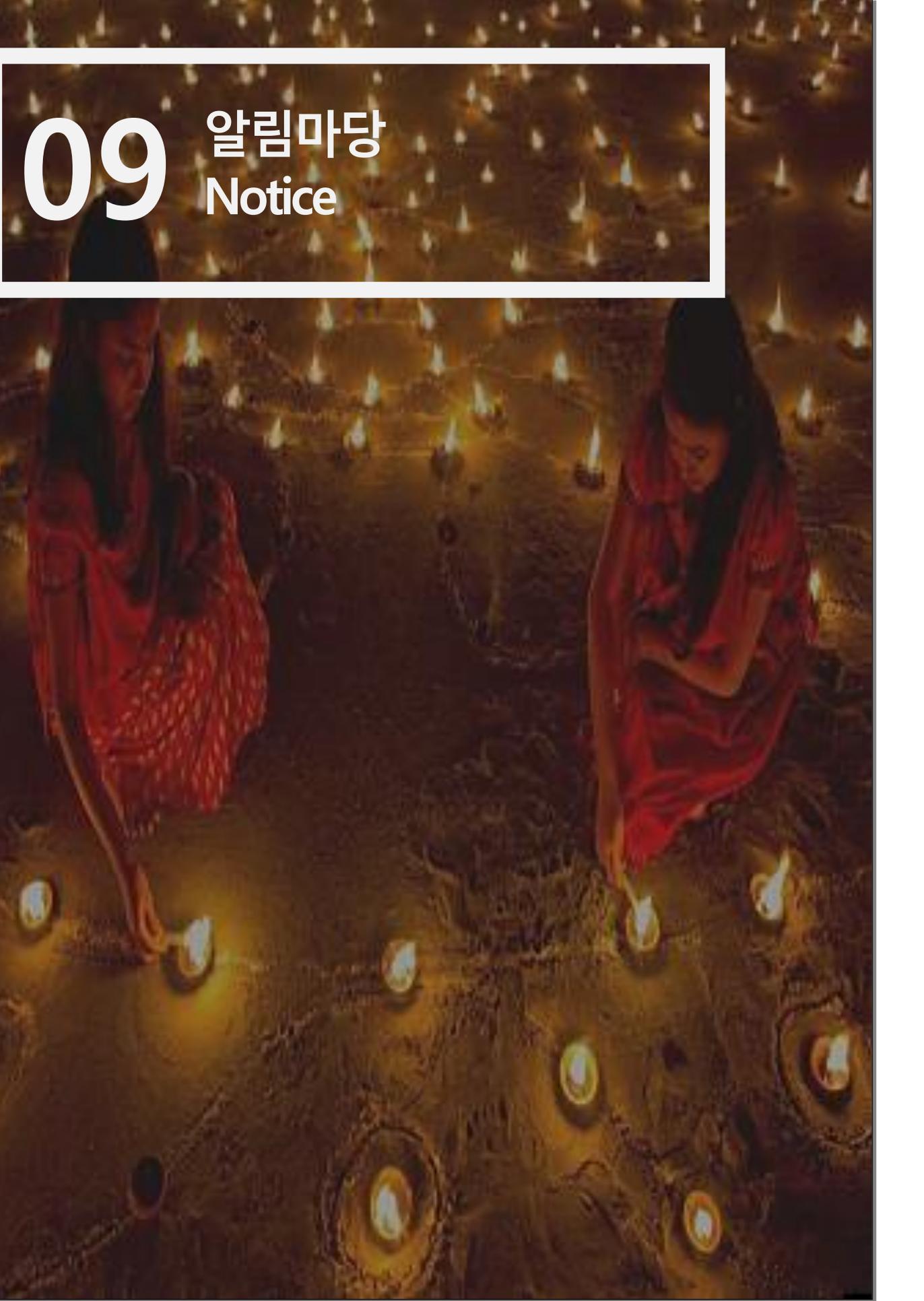
(김동혁)



<https://www.livehindustan.com/ncr/new-delhi/story-delhi-fire-broke-out-at-plastic-godown-in-bawana-industrial-area-nine-killed-1759983.html>

09

알림마당
Notice





인도언어문화연구소

Institute of Indian Languages & Culture Studies

제 4호 원고 모집

2018년 중반에 발행 예정인 웹진 『자이 호』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4호의 테마는 인도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한 눈에 엿볼 수 있는 '인도 종교'이며, 2018년 4월 30일(월요일)까지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원고를 기고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웹진 『자이 호』에 대한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JAI HO』 원고 모집 요강

- ❖ 주 제 인도 종교
- ❖ 원고 마감 2018년 4월 30일(월요일)
- ❖ 원고 분량 5 페이지(A4), 폰트 12
- ❖ 접수 방법 E-Mail : iilcs@bufs.ac.kr

2018년 1월 31일

46234 부산광역시금정구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센터 A407 인도언어문화연구소
TEL 051-509-6727/ FAX 051-509-6855 / E-mail : iilcs@bufs.ac.kr



인도언어문화연구소
Taza Khabar 제 2기 기고자 모집

인도언어문화연구소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의 최신 동향을 소개할 국내 및 인도 거주 제 2기 기고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뉴스 및 라디오 방송 혹은 오프라인 신문 기사를 토대로 인도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고자 하는 분은 아래 모집공고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 집 공 고]

1. 선발인원 : 6명

2. 활동기간 : 2018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

3. 지원 자격

- 국내 및 인도 거주자로 인도의 언어·문화·사회·문학·예술·정치 등에 관심이 많은 자(힌디어 전공자 우대)
- 성실한 활동이 가능한 자

4. 활동 사항

가. 국내 거주자

- 인도에서 발행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힌디어 주요 뉴스를 한국어로 번역
- 매달 2회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

나. 인도 거주자

- 인도 거주 지역 혹은 비거주 지역의 주요 사건·행사·인물 등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여 글·사진으로 기사를 작성
- 인도에서 발행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힌디어의 주요 뉴스를 한국어로 번역
- 매달 2회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

5. 접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접수기간 : 2018. 1. 25.(목) ~ 2. 18.(일) 20:00 (한국시간 기준)

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iilcs@bufs.ac.kr)으로 제출 (기타 증빙자료는 스캔 후 전송)

라. 전형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온라인/오프라인 면접 및 테스트)

마. 발표일자 : 2018년 2월 23일(금요일)

6. 기고자 혜택

- 기고자의 기사를 선정하여 인도언어문화연구소에서 발행 중인 『자이 호』의 '최신동향' 부분에 게재
- 활동 기간을 명시한 certificate 발급
- 소정의 활동비(원고료 포함) 지급

※ 문의 : 인도언어문화연구소 (051-509-6727, iilcs@bufs.ac.kr)

जय हो JAI HO

January 2018 Vol. 3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언어문화연구소
Institute of Indian Languages & Culture Studies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TEL 051-509-6727, FAX 051-059-6855
65, Geumsaem-ro 485 beon-gil, Geumjeong-Gu